

05-20

21세기 한국 메가트렌드 시리즈 II

모바일 커뮤니케이션과 도시 공적공간의 변화

2005. 2

연구기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책임자: 황 주 성

요 약 문

제 1 장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본 연구는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의 확산과 발달에 따라 도시 공적공간의 의미와 역할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나타나게 될 공적공간의 새로운 역할과 모델을 정립함으로써 미래의 공적공간을 계획하기 위한 기초적 이해와 지식을 형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오래되고 보편적인 형태인 휴대전화를 대상으로 이것의 활용이 개인의 공간 인식과 행태, 사회관계의 유지와 새로운 구성, 그리고 도시 공적공간의 기능과 역할에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는지를 이론 및 실증연구를 통해 밝혀보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의 방법과 자료

본 연구는 크게 두 부분으로 대별된다. 첫 부분은 휴대전화의 활용과 공간변화에 대한 기존 연구를 검토하여 주요 이슈와 개념을 도출하기 위한 문헌연구이다. 두 번째 부분은 휴대전화의 이용에 따른 도시공간의 변화에 대한 실증연구이다. 문헌연구에서 도출된 주요 개념과 연구문제를 한국적 상황에 적용하는 부분으로 자료에 따라 정량적 실증분석과 정성적 사례연구로 심층집담회(FGI: Focused group Interview)를 실시하였다.

제 2 장 모바일 커뮤니케이션과 도시공간의 변화

제 1 절 정보통신, 도시공간 그리고 이동성

도시와 통신의 관계는 비교적 오래된 학술적·현실적 주제이다. 하지만 그 만큼

양자간의 관계가 단순하지 않으며 그것이 가시적으로 명확하게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양자간의 관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통신 또는 정보통신이 그것을 채택하고 이용하는 주체의 의도와 능력에 따라 다양한, 심지어는 상반된 결과까지도 초래할 수 있는 가능기술(enabling technology)이라는 사실이다. 도시와 공간간의 관계는 매우 명백해 보이지만 관점에 따라서는 역설적이기도 하다. 도시가 공간을 응축함으로써 시간을 지배하는 기술이라면, 정보통신은 시간을 응축함으로써 공간을 지배하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의 확산과 고도화는 인간이 공간을 이용하고 관리하는 방식에 획기적인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제2 절 모바일 커뮤니케이션과 개인공간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이 개인의 공간인식과 경험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될 수 있다. 첫째는 일상생활의 세부일정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시공간의 미세적 조정(micro-coordination)’이고 둘째는 장소의 논리가 아니라 인간활동의 본질이 공간의 성격을 규정하게 되는 소위 ‘일시적으로 형성된 공간(temporalized space)’의 등장이다. 전자는 개인의 활동을 시공간적 제약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즉흥적 생활양식(extempore lifestyle)’이 나타나게 해주는 반면, 후자는 동일한 장소에 있는 사람들도 각자 독특한 방식으로 공간을 경험하게 하여 ‘다의적 장소성(polysemy of place)’을 가능케 한다. 이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인간 개인의 공간에 대한 인식과 경험 그리고 통제에 관련되지만, 그것이 집합적으로 형성되고 보편화됨으로 인해 개인공간은 물론 사회공간 및 공적공간 변화의 기저가 되는 개념이다.

제3 절 모바일 커뮤니케이션과 사회공간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이 사회적 상호작용이나 사회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슈가 있지만, 여기서는 공간과 관련하여 두 가지 개념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첫째는 휴대전화를 통해 공간을 초월하여 형성되는 ‘모바일친구와의 항

시적 연결성(full-time intimate community)의 가능성이다. 둘째는 ‘물리적 만남과 휴대전화를 통한 사회적 상호작용 간의 관계’를 살펴보려는 것으로 통신-공간의 오래된 이슈 중 하나인 통신교통 대체론과 맥락을 같이 한다. 확대하면 물리적 도시공간과 모바일 가상공간 간의 관계와 미래의 도시계획에 미치는 함의를 찾는다는 측면에서 공적공간의 이슈와도 상당한 관련성을 갖는다. 과연 휴대전화로 인해 이전에는 존재하거나 유지하기 힘들었던 새로운 친구관계가 형성될 수 있을까? 만약 그렇다면, 기존의 물리적 만남에 의존했던 사회관계와 사회공간의 특성이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으로 인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개념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제4 절 모바일 커뮤니케이션과 공적공간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이 공적공간에 미치는 영향은 ‘공적공간의 사사화’와 ‘공적공간의 기능과 역할변화’로 대별될 수 있다. 전자는 1990년대 말부터 휴대전화에 관한 사회과학적 연구의 주요 주제로 다루어져 왔으며, 주로 규범적 차원의 논의와 공적공간의 공동체적 성격에 주는 영향이 주로 조명되었다. 여기서는 휴대전화의 사용으로 인한 공적공간과 사적공간의 구분의 불명확성, 달리말해 공적공간내의 세분화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사사화문제를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후자는 휴대전화의 확산으로 역할과 중요성이 감소될 것으로 우려되었던 공적공간의 미래가 과연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관한 다양한 가설적 개념들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제5 절 연구문제와 가설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의 등장은 개인의 생활과 사회적 관계뿐만 아니라, 사회 메카니즘으로서 작동하는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인식까지 변화시키고 있다. 모바일 커뮤니케이션과 공간과 관련하여 이제까지 정리한 논의들은 개인공간, 사회공간, 공적공간으로 크게 세가지 차원으로 구성된다. 이들 논의들을 중심으로 각 차원의 연구문제를 제시하고 실증분석함으로써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간의 변화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1: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으로 인하여 개인의 시공간 활용이 변화하고 있는가?

연구가설 1-1: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의 사용으로 개인의 이동중 시간이 의미있어졌으며, 시간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하다.

연구가설 1-2: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의 사용으로 공간의 고유성(고유한 성격과 역할)에서 벗어난 다중적 공간 활용이 가능하다.

연구문제 2: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으로 인하여 사회관계가 변화하고, 사회공간이 재구성되고 있는가?

연구가설 2-1: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의 사용으로 개인의 사회관계가 긍정적으로 변화한다.

연구가설 2-2: 모바일 커뮤니케이션과 물리적 만남의 관계는 보완적이다.

연구문제 3: 모바일 공간행태가 도시 공적공간의 기능과 역할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가설 3-1: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은 공적공간을 사사화시킨다.

연구가설 3-2: 모바일이 고도로 발달된 미래사회에는 공적공간의 활용이 더욱 활성화된다.

제 3 장 휴대전화에 의한 공간변화 설문분석

제 1 절 조사개요

모바일 커뮤니케이션과 도시공간의 변화 조사는 제2장에서 제시한 연구문제와 가설을 기반으로, 휴대전화의 이동중 연결성과 시공간의 응축으로 개인공간, 사회공간, 그리고 공적공간의 변화를 살피고자 함에 따라 만 12세 이상의 휴대전화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2004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휴대전화 이용(3,659만명, 보급률 75.91%)율이 가장 높은 SKT(휴대전화 시장점유율 51.3%)의 이용자 구성 즉 성별, 연령별 구성비율에 따라 서울거주자 400명을 대상으로 표본집단을 구성하였

다. 휴대전화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모바일 커뮤니케이션과 공간 변화 조사는 2004년 11월 25일부터 12월 15일까지 3주간 면접조사로 실시되었으며, 기록된 자료는 통계 패키지 SPSS 12.0을 이용해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문제에 따른 조사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연구문제와 조사내용

| 연구문제 | 연구 질의 내용 |
|---|--|
|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으로 인하여 개인의 시공간 활용이 변화하고 있는가? | - 휴대전화 사용이후 시공간의 활용과 효율 |
|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의 사용으로 개인의 이동중 시간이 의미 있어졌으며, 시간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하다. | - 만남과정의 유연화 정도 |
|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의 사용으로 공간의 고유성(고유한 성격과 역할)에서 벗어난 다중적 공간 활용이 가능하다. | - 휴대전화로 인한 다의적 장소성 경험 |
|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으로 인하여 사회관계가 변화하고, 사회공간이 재구성되고 있는가? | - 사회관계성의 양과 깊이 |
|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의 사용으로 개인의 사회관계가 긍정적으로 변화한다. | - 하루평균 1회 이상 휴대전화 통신자수 - 모바일 친구수 - 모바일 친구와의 상호작용량(통화&문자) |
| 모바일 커뮤니케이션과 물리모바일 커뮤니케이션과 물리적 만남의 관계는 보완적이다. | - 전체 만남 횟수 - 즉흥적 만남 횟수 - 전체 만남 대비 즉흥적 만남 비율 |
| 모바일 공간행태가 도시 공적공간의 기능과 역할에 영향을 미치는가? | - 공적공간 인식 |
|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은 공적공간을 사사화시킨다. | - 공적공간 개념화 - 공간특성별 휴대전화 수신여부 - 공간특성별 휴대전화 사용 규제방식 |
| 모바일이 고도로 발달된 미래사회에는 공적공간의 활용이 더욱 활성화된다. | -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발달과 활용 기대 - 요구되는 모바일 통신서비스 |

제2 절 휴대전화 일반에 대한 고찰

휴대전화를 어느 정도나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본 결과, 하루평균 음성 통화의 수발신 건수 약 15.3건과 문자메세지의 수발신 건수 약 10.0건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사회경제적 집단에 따라 음성과 문자의 비중이 상당히 차이나는 것으로 보이지만, 가장 두드러진 대비는 10대와 학생 그리고 미혼집단의 문자 의존율이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났다.

휴대전화의 중요도는 일의 효율적 처리, 사회적 관계유지, 가정생활 영위, 정보검색, 온라인거래, 오락 등으로 구분하고 각각에 대해 사용자가 생각하고 중요도를 5단계 리커트척도(Likert scale)로 조사하였다. 그 결과, 사회적 관계유지는 79.5%, 가정생활 지속은 80.6%로 나타나 가족과 사회적 관계 등 다른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하여 휴대전화가 얼마나 유용하고 중요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그리고 업무처리 등의 효율화를 위해서 중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75.6%로 나타났으며, 뉴스 등의 정보검색과 온라인거래는 각각 16.1%, 18.0%이었다. 오락에 부여하는 중요도는 다소 낮아 21.1%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2.7, 남자는 2.9)에 비해 도구적 목적의 이용이 중요하며, 반면 여자는 사회적 목적의 이용이 4.1로 4.0인 남자에 비해 더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 있어서 사회적, 그리고 도구적 목적의 이용이 유사하게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오락적 목적의 이용에 있어서는 연령이 낮을수록 높아져서, 10대는 3.4, 20대는 2.8의 중요성을 나타냈다.

제3 절 휴대전화와 개인의 공간 경험

시공간의 활용과 효율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50% 이상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시공간적 변화는 ‘시공간의 미시적 조정’이 가장 크며, 다음으로 ‘일시적 공간’의 형성, 그리고 ‘모바일 친구’와 ‘물리적 만남의 증대’ 순으로 활용성과 효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공간의 미시적 조정’이라고 할 수 있는 위치나 장소의 구속으로부터의 자유와 공공장소에서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 그리고 이로 인한 일정의 효율적 조정은 각각 63.8%, 51.0%, 64.8%로 높게 나타났다.

휴대전화를 통한 ‘일시적 공간’의 형성과 이로 인한 장소의 다의적 활용에 대해서는 새로운 활동공간의 형성과 특정활동만 하던 공간에서 다른 활동도 가능하게 되었다는데 각각 60.3%와 54.3%로 조사되었다.

1. 시공간의 미시적 조정

휴대전화의 사용은 이동중의 통신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시공간의 미시적 조정을 가능케 하였다. 특히, 이동 중인 두 개인이 통신을 통하여 약속시간이나 공간의 조정을 용이하게 하게 한다. 사적인 만남과 공적인 만남을 각각 나누어 만남에 있어서 시간과 장소가 사전에 고정되어 확정되는지 휴대전화를 이용한 상호작용으로 조정을 해 나가는지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만남의 과정에서 29%가 시간과 장소를 모두 확정하지 않고 만남의 접점을 합의하여 나갔다. 사적만남의 과정은 36.1%가, 공적만남의 과정은 21.7%가 유동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 다의적 장소성

휴대전화의 사용으로 인해 동일한 장소에 있으면서도 상대방과의 통화에 몰입되어 “일시적 공간”의 형성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6가지 유형의 일시적 공간 경험 여부를 조사하였다. 전반적으로 일시적 공간의 경험정도는 높지 않았으며(16%~34%), 극단적인 형태인 하차오류가 가장 낮았고(16%), 공존자나 주변상황에 대한 분석, 통화 상대방에 대한 몰입으로 갈수록 보다 많은 사람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특정한 기능의 공간이 휴대전화로 또 다른 기능을 위한 공간으로 전환되는 경험은 좀 더 많은 응답자로부터 확인되었다.

제4 절 휴대전화와 사회관계의 변화

휴대전화와 사회공간 변화의 관계를 살펴보기에 앞서, 휴대전화의 사용으로 사회

적 관계 전반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살펴보기로 하자. 휴대전화의 사용에 따른 사회적 관계의 변화를 사회적 관계의 양(관계수)과 깊이(친밀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휴대전화의 사용에 의한 사회관계의 양과 깊이의 변화를 조사해 본 결과, 사회관계의 양적 확대에 대해서는 77.1%가 양적인 증가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사회관계의 깊이에 대해서는 68.1%가 친밀도가 강화되었다고 하였다. 휴대전화가 사회관계를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더욱 확장시키고 향상시킨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휴대전화로 인해 만나는 사람의 수는 늘어났으나, 일부 사람과는 친밀도가 강화된 반면 다른 사람과는 더 소원해졌다고 대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20%에 달해 휴대전화로 인한 사회관계의 양극화 현상도 적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시공을 극복할 수 있는 특성으로 인해 사회관계가 개인의 선호에 따라 선택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양적 팽창과 질적 집중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된다.

1. 모바일친구와의 항시적 연결성

휴대전화는 사회관계의 양과 깊이에만 영향을 준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상대방과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항상(恒常)적인 사회공간이 존재하는 듯, 사회적인 관계성을 더욱 긴밀하게 한다. 휴대전화를 통해서 함께 있는 것과 같이 공존감을 주는 사람들간에 형성된 사회네트워크를 ‘모바일 친구’라 하여 하루에 1회 이상 통화나 문자를 주고받는 사람의 수와 이들 간의 상호작용량을 알아보았다. 하루에 음성통화와 문자메세지를 1회 이상 교환하는 사람은 각각 3.0명과 1.6명으로, 하루에 휴대전화로 1회 이상 커뮤니케이션하는 사람은 4.6명이다. 그러나, 엄격히 이야기하면 하루에 1회 이상 음성통화도 하고 문자메세지도 하는 사람은 각각 음성통화 상대자와 문자메세지 상대자로 계산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하루에 1회 이상 커뮤니케이션 하는 사람은 4.6명 이하일 것이다. 하루 1회 이상 커뮤니케이션하면서 항상 옆에 있는 듯한 ‘모바일 친구’의 존재는 평균 2명 정도로, 이 사람과 하루 평균 최대 4.4건(음성통화 2.4건, 문자메세지 2.0건)의 상호 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바일 친구’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은 전체

의 11.8%이며, ‘모바일 친구’는 최대 6명까지 구성되고 있다. 그리고 ‘모바일 친구’와 하루 최대 52건 상호작용하기도 한다.

2. 물리적 만남과 모바일 만남

휴대전화의 등장은 공간의 효율적 활용뿐만 아니라, 시간의 효율적 관리로 여유 시간의 확보와 즉각적인 연결성으로 여유시간을 즉흥적 만남으로 연결시켜 사회관계의 긍정적인 효과를 높이고 있다. 개개인의 공적인 만남과 사적인 만남 중에서 즉흥적인 만남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해 보았다. 친구나 친척 등 사적으로 이루어지는 물리적인 만남은 일주일 평균 3.4회로, 많게는 50회인 사람도 있으며, 사적인 만남이 전혀 없는 사람도 16명으로 전체의 4%이다. 그리고 약속과 다음 약속 사이에 잠시 여유가 생긴 틈새시간이나 사전에 약속이 정하여지지 않고 갑자기, 휴대전화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즉흥적인 만남은 일주일 평균 1.7회이다. 전체 사적 만남 대비 50.0%로 두 번의 만남 가운데 한번 이상은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전화의 사용으로 즉흥적 만남의 생활양식의 보편화와 더불어 물리적인 만남 또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일반적인 만남이 휴대전화 사용량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소량이용그룹은 일주일 평균 4.2회이나, 휴대전화를 많이 사용할수록 만남의 비율도 증가하여 다량이용그룹은 8.0회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흥적인 만남의 횟수도 휴대전화 사용량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소량이용그룹은 1.8회인 반면, 다량이용그룹은 3.9회이다. 다시 말해, 상호간의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휴대전화는 물리적인 만남을 대신함으로써 직접적인 만남의 기회를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휴대전화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이 계기가 되어 물리적인 만남의 기회를 증가시키면서 물리적인 만남을 확대,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제 5 절 휴대전화와 공적공간의 의미 변화

공적공간은 불특정한 사람들이 특정 혹은 불특정한 목적으로 모여서 공공적 성격 을 띠는 공간이라 한다. 그러면, 현대의 사람들은 공적공간에서의 공익과 사익, 방

해받지 않을 권리와 통신의 자유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한다. 일반적으로 공공장소에 대해서 75.3%가 공공장소의 특성에 따른 특정한 행위를 해야 한다고 여기며 74.3%가 공공의 이익이 우선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48.5%가 공공의 이익을 방해하지 않는 한 사적 행동이 가능하다고도 여기며, 통신의 자유가 공익보다 보장되어야 한다는데 29.5%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공익은 우선되어야 하되 공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적인 통신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1. 공적공간의 사사화

휴대전화의 사용에 따른 공적공간의 사사화를 파악하기 위해 두가지를 조사하였다. 하나는 공적공간의 공공적 성격에 대한 인식이며 다른 하나는 공적공간에서의 휴대전화 수신행태이다. 공간적 구분을 염두에 두고, 각 공간에 대한 인식과 그 공간에서의 휴대전화의 관계성을 분석한 결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전화 수신행태가 공간특성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며, 특히나 한정적 행위공간과 다양한 행위공간으로 나뉘어 차별적 양상을 보였다. 한정적 행위공간으로 인식된 공간에서는 휴대전화의 사용을 자제하며, 개방적 행위공간으로 인식된 공간에서는 자유로운 통화를 하는 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2. 사회반응적 공간

휴대전화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사회성과 생활양식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더욱 다기능해지는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통신서비스의 발달로 향후에는 더 큰 사회경제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어지고 있다. 휴대전화를 포함한 모바일 통신서비스의 증대로 예견되는 공간의 다중적 활용과 이용의 효율화에 대한 기대, 그리고 공적공간시설 이용의 효율화, 공적공간으로의 관심을 통하여 공적공간이 지녔던 역할과 중요성이 과연 쇠퇴하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전반적으로 미래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의 발달로 공적공간의 수요와 활용 및 활력이 증대될 것이라는데 절반이상이 동의하였다. 이는 휴대전화의 등장으로 공적공간의 역할과 중요성

이 감소하리라는 일반적인 추측과는 반대되는 결과이다.

특히나 공공장소 이용 수요가 증가하고(66.1%) 공간 다중성이 확대되리라는 (64.1%) 기대가 높으며, 다음으로 도로이용(59.0%)과 지역시설이용(62.3%) 등 공적 공간시설 이용이 효율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공공문제(52.5%)와 공간 활력(48.8%) 또한 증대될 것이라는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적공간에 대한 의미와 역할은 사용량이나 중요도, 사회경제적 지표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고, ‘사회반응적 공간’의 형성으로 더욱 중요해지리라 기대되고 있다.

제 4 장 휴대전화에 의한 공간활용 심층분석

제 1 절 조사개요

휴대전화 이용에 의한 공간 활용에 대해 보다 심층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10대에서 40대 남녀 32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앞장의 설문조사가 일반적인 차원에서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에 의한 공간 활용 현상을 살펴보았다면, 이번장의 심층 인터뷰 조사는 보다 경험적인 차원에서 이 같은 현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심층 인터뷰 조사를 위해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며 휴대전화를 이용하고 있는 10대에서 40대 남녀 32명을 인터뷰 대상으로 삼았다. 집단별 4명씩 총 8개의 집단에 대해 각각 2~3시간가량 소요되는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모든 인터뷰는 녹음되었으며 분석을 위해 빠짐없이 기록되었다. 인터뷰 대상자 선정은 위해서 집단별 초기 정보 제공자(informant)를 정하고 이 사람을 통해 인터뷰 대상자를 한 명 섭외하였고, 이 인터뷰 대상자가 추천 또는 연결해주는 사람, 또 그 사람이 추천 또는 연결해주는 또 다른 사람 등 일종의 릴레이 방식으로 인터뷰 대상자로 정하였다.

본 조사는 다양한 인구학적 특성을 가진 다양한 집단의 개인들이 휴대전화를 통해 어떻게 공간을 경험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연령, 성, 직업 등의 차이를 최대한 고려하여 조사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하지만 이들이 자신들이 속

한 인구학적 집단을 대표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본 조사 또한 이들에 대한 인터뷰 결과를 토대로 이들 모집단의 휴대전화 이용패턴에 대한 확대된 결론을 제시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다. 하지만 심층 면접을 통해 휴대전화 이용자의 이용 패턴 및 공간에 대한 경험이 어떻게 ‘공통적으로’ 혹은 ‘다양하게’ 구성되는지를 구체적이고 심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즉, 심층적 사례 연구를 통해, 휴대전화 이용에 따른 공간 경험의 일면을 포착하고자 한다.

제2 절 휴대전화 이용의 일상성 및 상징성

휴대전화의 사용량과 중요도는 인터뷰 대상자의 연령층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었고, 성별에 따라 서비스 이용의 차이가 발견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인터뷰 집단 중 다른 연령층 집단에 비해 40대의 휴대전화 이용이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경향을 띄고 있고, 10대, 20대의 경우 대부분 휴대전화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10대, 20대가 주로 친구와의 교제와 관계 유지를 위해 휴대전화를 주로 사용하였다면, 30대, 40대의 경우 일이나 가족 관련 이용도 중요한 사용 목적이 되고 있다. 또한 같은 10대라도 남성에 비해 여성 인터뷰 대상자가 휴대전화 이용에 좀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여성에 비해 남성 인터뷰 대상자는 “뭐 하나”, “재밌냐”, “같이 하자”, “놀자” 식의 간단한 문자 메시지 혹은 통화 내용을 주고받는 경향이 발견된다.

무엇보다도 주목되는 점은 연령별 집단 내에도 개인의 성향이나 사회적 활동에 따른 휴대전화 이용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같은 20대라 하더라도 개인의 사회적 성향에 따라 휴대전화 이용에 소극적인 경우를 찾을 수 있었고, 같은 40대층이라도 직업이 전업주부인 여성과 생활설계사란 영업직에 종사하는 직업주부인 여성은 서로 다른 휴대전화 이용도를 보이고 있다.

제3 절 휴대전화와 개인의 공간 활용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해 개인은 장소의 물리적 구속성에서 벗어나 사회공간을 가

질 수 있게 된다. 휴대전화가 물리적 형태의 장소에 탈물리적인 매개 사회공간을 형성할 수 있게 함으로써, 특정한 역할 혹은 기능을 수행하는 공적인 장소에서 사적인 사회공간을 가질 수 있고, 특정 장소가 다양한 사회공간과 접합하며 다양한 기능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물리적인 장소와 커뮤니케이션의 가상적 공간이 쉽게 접합가능하게 됨으로써, 물리적, 가상적 공간의 경계가 쉽게 허물어질 수 있게 되고, 특정 목적의 장소와 특정 목적의 공간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실제 인터뷰 대상자들의 휴대전화 이용 경험을 보면, 특정 공간의 물리적 구속성에서 벗어나는 것을 종종 발견할 수 있다. 대부분의 10대, 20대 학생의 경우, 강의를 듣는 교실이나 책을 읽는 도서관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함으로써 장소의 고유한 맥락에서 벗어나 개인의 사회공간으로 넘나들고 있었다. 이러한 장소에서 휴대전화의 이용을 공식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대부분의 인터뷰 대상자들은 그곳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방법을 나름대로 터득하고 있었다.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개인적인 행동을 제한했던 물리적 장소에 사회공간의 구성이 가능해진 것이다. 그럼으로써 이용자는 같이 있지 않는 상대방과 ‘항상 연락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1. 시공간의 미시적 조정

휴대전화 사용으로 약속 장소 및 시간을 정하는 계획이 좀더 ‘합의의 과정(shared decision)’을 거쳐 형성되고, 전반적으로 느슨하고 유연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인터뷰 대상자들은 휴대전화를 통해 약속 장소 및 시간을 정하는 것에서부터 약속 장소에 대한 정보 교환, 약속 장소에 참석하는 현황 등에 이르기까지 서로의 의견을 물어 만남을 계획하고 실행함으로써 이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각종 불안감과 불확실성을 최소화시키고 있었다.

2. 다의적 장소성

휴대전화의 이용으로 면대면 사회공간에 또 다른 사회공간 혹은 사회공간을 형성할 수 있다. 휴대전화 이용으로 인한 가상적 사회공간이 실제 사회공간과 접합되는

방식은 실재공간의 상황(공식적 vs. 비공식적, 공적 vs 사적),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상대와의 친밀도와 규모(소수 vs. 다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공식적이고 공적이며 예의범절이 중요시 되는 딱딱한 모임 혹은 소수의 인원이 긴밀한 이야기를 나눌 때는 휴대전화의 이용을 자제하며 면대면 커뮤니케이션 상황에 좀더 집중을 하지만, 비공식적이고 사적인 모임이나 참석이 다수여서 다소 산만한 커뮤니케이션 상황이 진행될 때는 휴대전화의 이용으로 인한 일시적 사회공간의 형성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진다.

제 4 절 휴대전화와 사회공간의 재구성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해 개인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원하는 때에 원하는 사람과 커뮤니케이션함으로써 사회적 관계를 더욱 수월하게 유지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 휴대전화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없이 그 안에서 편리하게 정보를 교환하고 인간관계를 구축하는 사회공간의 연장선인 것이다. 또한 개인적 통신수단을 넘어, 배타적이고 독립적인 소통행위의 영역, 곧 개인적 공간을 만들어 준다는 의미에서 사인주의(私人主義, *privatism*) 매체이다. 가족들간에 혹은 직장동료들간에 공동으로 사용하였던 유선전화와는 달리, 상대방과 직접적으로 일대일 통화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사적생활과 사회관계를 영위할 수 있게 한다.

1. 모바일친구와의 항시적 연결성

휴대전화의 이용은 시공간에 상관없이 상대방과의 사회공간, 다시 말해 사회공간을 갖게 해줌으로써 상대방이 물리적으로 실재하지 않더라도 항상 같이 있는 느낌을 갖게 하는데 일조한다. 휴대전화는 일상생활의 많은 부분을 같이 공유하는 지근(至近)의 동료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동료에 이르기까지 그들과의 사회적 관계를 유지시켜줄 뿐만 아니라 서로의 존재감을 항상 확인하고 가상적으로 혹은 텔레프레젠스(*telepresence*)의 형태로 ‘모바일 친구’를 구성 또는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휴대전화가 장소와 시간에 상관없이 상대방에게 접

속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상대방에 대한 실재감 혹은 함께 한다는 느낌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한다.

2. 물리적 만남과 모바일 만남

한편, 휴대전화의 이용으로 인해 계획에 없었던 즉흥적인 만남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대부분의 인터뷰 대상자들은 “할 일 없을 때”, “심심할 때”, “갑자기 기분이 oo해져서”, “갑자기 생각나서”, “근처에 지나가다” 등 개인의 당시 기분과 감성에 따라 즉흥적인 만남을 실행하는 경험을 가지고 있다. 물론 10대, 20대 인터뷰 대상자에게 좀더 빈번하게 일어나고, 40대 남성 인터뷰 대상자의 경우 즉흥적 만남을 별로 갖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연령별, 개인별 휴대전화 이용의 패턴에 따라 즉흥적인 만남의 빈도수가 다르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휴대전화 이용에 따른 즉흥적 만남의 내용은 대부분 유사한 성격을 갖는다. 즉, 휴대전화를 통해 자신의 일정에 없던 만남을 즉흥적으로 만들고, 다른 장소에 있던 사람들을 순간적으로 끌어모으며, 물리적인 만남 혹은 상호작용을 한다는 것이다.

제 5 절 휴대전화와 공적공간의 역할 변화

1. 공적공간의 사사화

대부분의 인터뷰 대상자들은 ‘모두에게 공유된(common to all)’ 공적공간의 공공적 성격에 따라 자신의 휴대전화 수신 모드를 조정하고 있었다. 자신의 ‘연결’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와 공적공간의 성격에 대한 인식 혹은 공적 장소의 공공성에 피해를 주지 말아야겠다는 의식을 견주어가며, 벨소리, 진동, 무음, 꺼놓음 등의 수신 모드를 변화시키고 공적공간의 공공성에 대해 나름대로 대처하고 있다. 물론 ‘연결’에 민감한 몇몇 10대 여성 인터뷰 대상자의 경우, 장소의 공공성보다는 연결 상태 유지를 보다 중요시했지만, 대부분 인터뷰 대상자들은 공적공간의 성격에 따라 자신의 수신 모드나 수신 태도를 조정하였다.

2. 사회반응적 공간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특히 휴대전화의 발달로 무의미할 수도 있었던 공적공간에서의 활동이 효율화되었으며, 물리적 만남의 증대로 공적공간의 활용이 활성화되고 있다. 그러나, 공적공간이 물리적 만남의 장소로서 활성화되어지고는 있지만, 휴대전화의 상호작용 대상자이자 주체자로서 활용되어지는 데는 몇가지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었다. 길을 안내하여 주는 교통정보서비스는 한번 정도씩 이용하고 있었으나, 주변 지역정보 등은 제공서비스의 내용과 요금의 문제로 거의 이용하지 않고 있다.

제 5 장 종합 및 시사점

제 1 절 모바일과 도시공간 변화의 종합적 이해

본 연구는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의 발달로 인한 사회적 변화들을 커뮤니케이션에 한정하지 않고 전체적인 변화들을 파악하여 일반화시키고자 하였다. 사회적 변화들은 개인의 공간, 사회공간, 공적공간의 세가지 공간으로 나누어, 휴대전화로 인한 시공간 활용의 변화와 사회적 관계 및 사회공간의 구성, 그리고 공적공간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기존 연구와 논의들을 중심으로 한 제2장의 이론연구를 토대로 제3장과 제4장을 통한 실증분석을 시행하였다. 제3장에서 이루어진 정량적 실증분석결과는 더 심화되고 상황맥락적인 제4장의 심층집담회의 사례를 통해서 면밀히 재검토되고 입증되었다.

휴대전화의 다기능화(메일, 알람, 스케줄, 인터넷 등)와 일상화로, 휴대전화는 이제 단순히 커뮤니케이션 도구만이 아니라, 생활의 일부분이 되어가고 있다. 그리고 휴대전화는 ‘공’의 시간과 장소에서 사적 행위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사’의 시간과 장소화의 조정능력을 가지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개인의 공간과 사회공간, 공적공간을 변화시키고 있었다.

시간의 절대성과 공간의 한정성에 대한 실존적 한계는 여전히 존재하고 인정하나, 휴대전화의 매개가 되어 현재의 물리적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인지적인 시

간과 공간을 형성가능하게 됨으로써 시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그리고 공간을 다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파악되었다. 더불어 휴대전화 버튼만 누르면 바로 다른 장소의 사람과 이루어지는 새로운 차원의 사회공간은 시간화된 공간, 즉 시간에 따라 바로바로 공간을 형성함으로써 공간을 더욱 다중적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휴대전화로 확장된 시간과 공간은 업무의 처리나 사회적 관계의 유지에 이용되어, 일정과 기타 시간(틈새시간)을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게 하며 물리적인 만남을 증가시키고 항상 함께 하고 있는 듯한 모바일 친구의 존재를 확인시켜 안정감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각적인 네트워크 연결성은 사적으로나 공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의 기회를 증가시켰으며, 이 커뮤니케이션의 확대는 즉흥적인 만남으로 이어짐으로써 물리적인 만남의 기회도 증가시켰다.

정보통신기술이 공간을 압축함으로써 물리적 만남을 대체시킬 것이라는 기술적 기대와는 반대로 실제적인 만남을 촉진하는 보완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변화하고 있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지만, 여전히 공간적 특성에 따른 활동의 제약은 공공적 측면에서 지켜져야 한다고 여기며 다만, 공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통신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인식되어지고 있다.

또한, 개인활동의 자유에 대한 개인적 욕구와 공공성간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면서 자발적인 휴대전화 이용 규범을 형성해 나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존 연구 논의에서 우려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공적공간의 사사화나 공간 규범 파괴 보다는 ‘공적공간의 활성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근대의 공적공간이 활성화되던 양상과는 조금 다른 방향, 즉 전체가 하나의 목적을 위한 공적공간의 활용이 아니라, 개별적 목적의 다양한 공적공간의 활용이 일어나고 있다.

제2절 정책적 시사점

1.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의 일상화에 관한 측정·평가 지표의 개발

휴대전화는 단순한 커뮤니케이션 매개체가 아니라 이용자 삶의 양식을 변화시키

는 기제가 되고 있으므로, 일상생활에서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측정과 고찰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휴대전화로 인한 변화들을 고찰하기 위하여, 개인공간, 사회공간, 공적공간으로 구분하여 변화의 요인과 의미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구분과 논의는 합의의 과정을 통하여 일반화되지는 않았지만, 향후 학계 및 조사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객관성을 지닐 수 있는 개념과 지표를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한국형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정책

초고속인터넷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정보화정책은 국제적으로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제 정보화정책이 이동성을 기반으로 한 유비쿼터스, 즉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정책으로 넘어가면서 한국은 제2의 도약을 꿈꾸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휴대전화의 사용행태와 인식이 삶의 양식 전체에 얼마나, 어떻게 영향을 미치며, 다시금 휴대전화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었다.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정책에 의해 한국사회 전반의 구조와 생활행태가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의 활용 및 기대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자료를 참고로 하여 한국적 상황 및 사회에 적합한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정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3. 미래 모바일 커뮤니케이션과 서비스의 질 제고

미래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요구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인프라의 제공보다는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기대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현재 교통정보서비스는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지만, 대중교통안내정보서비스 등 기타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용요금 대비 부족한 서비스내용의 제공으로 그 이용도가 그리 높지 않고 있다.

향후 DMB 서비스 등 다양한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제공됨에 따라 그에 따른 서비스의 질 또한 고려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까지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은 단순인프라로서 보급이 곧 서비스 이용으로 서비스 활용능력이나 서비스 내용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질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향후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 정책은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질 제고에도 많은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제 1 장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휴대전화,¹⁾ 휴대인터넷 등의 발달과 확산으로 이동성과 연결성이 결합됨으로써, 도시 공적공간(urban public space)이 다양한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공간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사실 휴대전화의 발명 그 자체가 집이나 사무실이 아닌 이동 중인 공간에서의 통신을 위해서 시도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휴대전화 사용의 50%가 집이나 사무실이 아닌 제3의 장소 또는 이동 중(en route)에 발생한다는 조사결과는 이를 지지하는 현실적인 증거이다(Ling & Haddon, 2002).

최근 공적공간에서 휴대전화 사용의 확산은 ‘방해받지 않을 권리 침해’, ‘공적공간의 사사화’ 등 비규범적인 것으로 비난받고 있으며(배진한, 2004), 신구세대간 반목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하지만, 공적공간이 통신의 영역으로 포함된 것은 전기통신의 발달과정에서 그다지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이동 중인 공간에서 유선전화를 사용하게 한 것이 공중전화라면, 휴대전화는 이동전화 기지국이 커버하는 모든 공간에서 전화의 사용을 가능하게 한 혁명적인 문명의 이기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WCDMA, 휴대인터넷, DMB, 텔레마틱스 등의 기술발전에 따라 공적공간에서 통신의 활용은 더욱 더 강화될 추세이다. 물론, 공적공간에서의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사용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나 공적공간의 규범의 문제가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양자간 관계에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이슈는 아니라는 것이다.

1) 본 연구에서는 ‘이동전화’라는 용어 대신에 ‘휴대전화’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원하는 때와 장소에서 항시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용이한 개인용 전화라는 의미가 이동전화보다는 휴대전화라는 용어에 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공적공간에서의 휴대전화 이용행태와 이에 영향을 주는 태도와 인식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이러한 추세가 도시의 공적공간 나아가 도시공간 자체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휴대전화의 확산은 공적 활동, 만남의 일차적 장소, 또는 통과 공간 등의 기능을 수행하였던 공적공간들의 기능과 의미는 물론 공적공간에 대한 인식과 개념에도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의 이용은 공적공간에서 사람들의 행동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공적공간은 물론 다양한 도시공간상에 펼쳐질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고 미래의 도시공간을 예측하는데 점점 더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동시에 새로운 IT의 발달로 인한 가상공간의 상호성과 실시간 대응성은 기존의 물리적 공적공간에 새로운 의미와 역할, 그리고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다. 휴대단말기를 통해 각종 정보의 제공이 좀 더 고도화되고 이것이 유비쿼터스 기술을 통해 공적공간의 시설 하나 하나로 확대될 경우, 인간과 도시의 상호작용은 기존에 비해 보다 다양하고 역동적으로 전개될 것이다.

본 연구는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의 확산과 발달에 따라 도시 공적공간의 의미와 역할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나타나게 될 공적공간의 새로운 역할과 모델을 검토함으로써 미래의 공적공간을 계획하기 위한 기초적 이해와 지식을 형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오래되고 보편적인 형태인 휴대전화를 대상으로 이것의 활용이 개인의 공간 인식과 행태, 사회관계의 유지와 새로운 구성, 그리고 도시 공적공간의 기능과 역할에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는지를 이론 및 실증연구를 통해 밝혀보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의 방법과 자료

본 연구는 크게 두 부분으로 대별된다. 첫 부분은 휴대전화의 활용과 공간변화에 대한 기존 연구를 검토하여 주요 이슈와 개념을 도출하기 위한 문헌연구이다. 휴대

전화의 사용에 따라 이용자의 공간인식과 행동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찾아내고, 이를 토대로 공적공간 나아가 도시공간의 변화와 관련된 미래의 연구문제를 도출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휴대전화에 관한 기존의 사회과학적 연구들을 검토하여 휴대전화의 활용으로 비롯된 개인적·사회공간행동의 변화에 대한 개념들을 도출하고자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IT와 도시 및 공간에 관련된 기존연구를 검토하여 IT와 도시공간의 변화에 관련된 개념들을 찾아내고자 한다. 상기한 두 가지 그룹의 문헌연구를 종합하여 모바일 커뮤니케이션과 도시공간의 변화에 대한 보다 종합적인 개념적 틀을 정리하고 본 연구의 실증연구를 위한 연구문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두 번째 부분은 휴대전화의 이용에 따른 도시공간의 변화에 대한 실증연구이다. 문헌연구에서 도출된 주요 개념과 연구문제를 한국적 상황에 적용하는 부분으로 자료에 따라 두 부분으로 나뉜다. 하나는 휴대전화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로 연구문제의 형태로 제시된 휴대전화 이용자의 공간행태 변화가 어느 정도 나타나는지를 규명하고 그러한 변화의 차이를 설명하는 변수들을 찾아내기 위한 정량적 실증분석이다. 다른 한 부분은 문헌연구에서 제시된 주요 개념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떠한 현상으로 나타나는지를 보다 세밀하게 분석하기 위한 정성적 사례연구로 연령대별로 선별한 면담대상자들에 대한 심층집담회(FGI: Focused group Interview)를 통해 수집한 자료에 기초하였다.

제 2 장 모바일 커뮤니케이션과 도시공간의 변화

제 1 절 정보통신, 도시공간 그리고 이동성

도시와 통신의 관계는 비교적 오래된 학술적·현실적 주제이다. 하지만 그 만큼 양자간의 관계가 단순하지 않으며 그것이 가시적으로 명확하게 되기까지에는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양자간의 관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통신 또는 정보통신이 그것을 채택하고 이용하는 주체의 의도와 능력에 따라 다양한, 심지어는 상반된 결과까지도 초래할 수 있는 가능기술(enabling technology)이라는 사실이다(Graham, 2004). 도시와 공간간의 관계는 매우 명백해 보이지만 관점에 따라서는 역설적이기도 하다. 도시가 공간을 응축함으로써 시간을 지배하는 기술이라면, 정보통신은 시간을 응축함으로써 공간을 지배하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Kopomaa, 2000, p.26). 특히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의 확산과 고도화는 인간이 공간을 이용하고 관리하는 방식에 획기적인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에 의한 ‘이동 중 연결성(mobile communicability)’이 도시와 공간에 미칠 영향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개념이 타운젠드가 주창한 ‘실시간 도시(real time city)’이다(Townsend, 2000). 그는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은 정보의 제공과 피드백을 시공을 초월하여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도시의 자원을 보다 효율적인 방향으로 재할당함으로써 자본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도시의 신진대사(urban metabolism)를 극적으로 증진시킨다고 주장하였다.

양자의 관계에 대한 또 다른 개념으로 ‘응축된 도시(condensed city)’를 들 수 있다. 핀란드의 도시사회학자 코포마는 휴대전화가 서구인의 도시생활을 구성하는 시공간적 배열을 완전히 재편시켰다고 주장한다. 1999년에 이미 휴대전화 가입율 78%에 달한 헬싱키에서 휴대전화 보편화가 이용자의 사회생활과 상호작용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고찰하였다. 휴대전화는 산업시대의 고정적이고 판에 박힌 시공간 조정(rythemic space-time routines)을 극복하고 ‘유연하면서 고도화된 시공간적 조정이 가능한 이른바 응축된 도시’를 탄생시켰음을 강조하였다(Kopomaa, 2004).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에 의한 공간의 변화를 보다 구체적이고 객관화하여 살펴보고자, 조작적이고 중첩되는 개념이지만 공간을 개인공간과 사회공간, 그리고 공적공간으로 분절화하여 분석하였다.

제 2 절 모바일 커뮤니케이션과 개인공간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이 개인의 공간인식과 경험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될 수 있다. 첫째는 일상생활의 세부일정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시공간의 미시적 조정(micro-coordination)’이고 둘째는 장소의 논리가 아니라 인간활동의 본질이 공간의 성격을 규정하게 되는 소위 ‘일시적으로 형성된 공간(temporalized space)’의 등장이다. 전자는 개인의 활동을 시공간적 제약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즉흥적 생활양식(extempore lifestyle)’이 나타나게 해주는 반면, 후자는 동일한 장소에 있는 사람들도 각자 독특한 방식으로 공간을 경험하게 하여 ‘다의적 장소성(polysemy of place)’을 가능케 한다. 이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인간 개인의 공간에 대한 인식과 경험 그리고 통제에 관련되지만, 그것이 집합적으로 형성되고 보편화됨으로 인해 개인공간은 물론 사회공간 및 공적공간 변화의 기저가 되는 개념이다.

1. 시공간의 미시적 조정

전신과 전화의 발명 이후 통신은 교통으로부터 분리되었으며, 다양한 교통수단의 발달에 따라 거리의 장벽은 낮아진 반면 분리된 활동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성은 더욱 증대되게 되었다. 자동차의 등장과 도시의 팽창 그리고 전화의 조정기능이 복합적으로 작용함으로써 오늘날 도시사회가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전기통신의 등장은 통신의 사각지대를 낳게 되었다. 전기통신시스템의 한 단말기에서 다른

단말기에 이르는 중간지대에 있는 개인, 즉 이동중인 개인은 통신에 접근할 수 없었던 것이다. 휴대전화의 등장은 이동중의 통신을 가능케 함으로써 시공간의 미시적 조정을 가능케 한다(Ling & Yttri, 1999, p.6).

인간이 집이나 직장과 같은 고정된 장소에서 벗어나 언제 어디서나 통신할 수 있음으로 인해 새로운 미시적 조정이 가능하게 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동중인 상태에서 고정된 장소에 있는 정보를 입수하거나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다. 약속시간에 늦는 경우에도 사전에 통보할 수 있으며, 이동중인 두 개인이 통신을 통해 점점 하나의 접점으로 근접해 나가는 유연한 만남의 방식도 등장한다. 서로가 약속장소를 잘못 알거나 쉽게 찾지 못하는 경우도 휴대전화로 해결된다. 인간의 활동이 시공간적 구속에서 벗어나게 됨으로써 물리적 이동성보다는 연결성이 더 중요하게 된다. 이러한 미시적 조정이 극단적인 형태로 고도화될 경우 일상생활의 여러 부분들이 마치 한편의 매스게임처럼 ‘단절 없는 연속적 흐름(continuous project)’으로 짜여질 수도 있다(Kopomma, 2002, p.243).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의 등장으로 인간은 사전적 스케줄링에서 자유로워지고 일과 휴식의 주기적 리듬으로부터도 벗어나게 된다. 어떠한 것도 사전적으로 확정됨이 없이 개인의 선택가능성은 최후의 순간까지 최대한 유지된다. 사전적 약속에 구애받지 않고 순간순간의 상황에 따라 우선순위를 변화시키고 시간일정을 재조정할 수 있게 된다. 사전적 조정이 없이도 즉흥적인 정보교환에 의해 새로운 만남과 활동 그리고 일정이 만들어 지는 ‘즉흥적 생활양식(extempore lifestyle)’ 이른바 ‘실시간 생활양식(real-time life style)’이 가능하게 된다(Kopomma, 2002, p.243). 실시간 접촉에서 비롯된 속도의 문화(culture of speed)는 도시의 기존문화, 즉 장소의 문화를 대체하고 있다(Sheller & Urry, 2000 from Kopomma, 2002, p.242).

2. 다의적 장소성

근대화는 인간생활에 있어 시간과 공간의 본질을 변화시켰다. 근대화된 시간개념은 더 이상 연속적이지 않으며 특정한 공간적 맥락에 따라 규정된다. 예컨대 아침

9시, 직장이라는 공간에 들어서는 순간 업무적인 시간이 조성되는 반면, 12시부터 1시까지는 점심시간이 시작되며 사람들은 직장의 구내식당과 인근의 식당으로 몰려 나온다. 오후 6시가 되면 일제히 퇴근을 하고 그 순간 사적이거나 사회적인 시간이 새로이 시작된다. 기계화된 표준시계의 제작과 유통은 인간이 시간을 그 본연의 궤도에서 이탈시켜 인위적인 톱니바퀴의 사슬로 구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공간도 마찬가지로이다. 근대화 이후 인간은 공간을 보다 다양한 기능으로 분화시켰다.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노동과 주거가 구분되고, 벽 하나를 넘어 식사와 놀이의 공간이 분리되었다.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시공간의 근대화가 상호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근대적 개념에서 인간의 활동은 ‘공간적으로 고착된 시간(spatialized time)’에 의해 규정되었다. 다시 말해, 인간활동의 시간적 스케줄은 특정 시간대에 할당된 특정한 기능과 그 기능에 맞게 조성된 특정 장소에 의해 규정되어 왔다. 현대 도시를 살아가는 평범한 소시민의 24시(A)는 B와 같이 활동별로 구분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C와 같이 장소로도 표현이 가능하며, A와 B, C의 개별 구성요소 간에는 일대일 대응이 이루어진다.

A: 7시 → 7~8시 → 8~9시 → 9~12시 → 12~1시 → 1~5시 → 5~8시 → 8~9시 → 9~11시 → 11시~

B: 기상 → 아침식사 → 출근 → 노동 → 점심 → 노동 → 사교 → 귀가 → 휴식 → 취침

C: 침실 → 부엌 → 도로 → 사무실 → 구내식당 → 사무실 → 커피숍 → 도로 → 거실 → 침실

이처럼 근대화 사회에서 인간활동은 장소에 의해 최종적으로 규정되며 이로 인해 장소의 논리가 역으로 인간활동의 본질을 규정하는 ‘공간적으로 고착된 시간(spatialized time)’이 사회생활의 주도적 패러다임으로 자리잡게 되었다(Dholakia & Zwick, 2003). 예컨대, 집에서는 휴식을 취해야 하고, 식당에서는 식사를 하고, 직장에서는 일을 하는 등의 근대적 공간질서가 형성된 것이다.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의 등장은 인간의 경험을 구성하는 원칙의 우선순위를 바꾸어 놓았다. 인간활동의 본질이 장소의 논리에 의해 규정되는 ‘공간적으로 고착된 시

간(spatialized time)의 시대에서 인간활동의 본질이 장소를 규정하는 ‘일시적으로 형성된 공간(temporalized space)’(이후, 약어로 ‘일시적 공간’이라 함)의 시대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게 된 것이다. 공간은 그 속에 있는 인간의 활동과 상호작용에 의해 장소로 변하게 되는데,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기술은 공간의 장소화가 원격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일한 공간에서 서로 다른 장소성이 발현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레스토랑이라는 식사를 위한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통해 친구와 통화를 하는 순간 그 공간은 식당이라는 장소보다는 나와 통화자간의 사회적 의사소통을 위한 배경장소로 전환된다. 커피숍이라는 친교의 장소도 무선랜을 통해 회사의 메인컴퓨터에 접속하는 그 시간동안에는 일종의 위성 사무실로 변환될 수 있다는 것이다.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이 대중화되기 이전에 인간활동을 규정하는 주요기제가 장소였다면, 휴대전화의 등장 이후 이것을 통해 시시각각 연결되는 상대방의 정체와 그들과 소통하는 정보의 내용이 인간활동의 본질을 결정하게 된다. 결국 모바일 시대에는 어디에 있느냐 보다는 누구와 접속하고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보다 더 핵심적인 인간활동의 규정기제가 되며, 공간과 장소는 더 이상 본질적이고 고유한 기능을 유지하지 못하고 배경화면으로 물러나게 된다(Dholakia & Zwick, 2003).

‘일시적 공간’이라는 개념은 공간과 장소에 대한 인간의 경험에 새로운 국면을 초래한다. 다시 말해, 특정 시간에 동일한 장소에 있는 사람들도 각자 독자적인 방식으로 공간을 경험하게 되며, 그 결과 서로 다른 장소의식을 갖게 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이 광범위하게 나타날 경우 장소는 본질적이거나 고유한 맥락을 상실하고 ‘다의적 장소성(polysemy of place)’이 보편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공적공간과 관련하여 다의적 장소성은 공동체의 집합적이고 연속적인 장소의 경험을 어렵게 함으로써 공적공간의 성격을 희석시키는 부정적 측면이 있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공적공간의 다양성과 포용성, 그리고 다기능성을 강화시켜 ‘공적공간의 거실화(living room for the inhabitants)’(Kopomma, 2000, p.18)를 촉진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

제 3 절 모바일 커뮤니케이션과 사회공간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이 사회적 상호작용이나 사회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슈가 있지만(이재현, 2004; Geser, 2004; ITU, 2004), 여기서는 공간과 관련하여 두 가지 개념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첫째는 휴대전화를 통해 공간을 초월하여 형성되는 ‘모바일친구와의 항시적 연결성’의 가능성이다. 둘째는 ‘물리적 만남과 휴대전화를 통한 사회적 상호작용 간의 관계’를 살펴보려는 것으로 통신-공간의 오래된 이슈 중 하나인 통신교통 대체론과 맥락을 같이한다. 물리적 도시공간과 모바일 가상공간 간의 관계와 미래의 도시계획에 미치는 함의를 찾는다는 측면에서 공적공간의 이슈와도 상당한 관련성을 갖는다. 과연 휴대전화로 인해 이전에는 존재하거나 유지하기 힘들었던 새로운 친구관계가 형성될 수 있을까? 만약 그렇다면, 기존의 물리적 만남에 의존했던 사회관계와 사회공간의 특성이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으로 인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개념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1. 모바일친구와의 항시적 연결성

휴대전화와 즉흥적 생활양식이 확대됨에 따라 사회적 상호작용의 상당부분은 실시간 상호작용과 불확실성에 의해 결정되게 된다. 어떠한 활동이든지 고정된 일정을 벗어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관계의 형성에 있어서도 시간과 공간의 구속보다는 사회작용의 본질이 더 우위를 점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만나게 되는 일상적인 관계 못지않게, 언제든 필요에 따라 즉각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관계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있다.

코포마는 모바일 시대에 개인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규정하는 것은 휴대전화를 통해 언제든지 연락이 가능한 연락처(points of reference)와 시공간적 맥락을 같이하는 공존자(co-ordinate)라고 주장하였다. 그에 따르면 개인의 개성을 중심으로 사회적 관계가 형성되고 유지되는 소위 네트워크 개인주의(networked individualism)에서는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이 제공하는 통화, 문자, 화상 등 다양한 의사소통 수단들이 ‘모바일친구와의 항시적 연결성’을 형성하고 지속시키는 훌륭한 수단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Kopomma, 2000, p.3; Castells, 2004, pp.129~133). 코포마에 의하면, 휴대전화 이용자들은 모바일 집단에 소속하고 삶으로써 현실세계에서 본인과 생각을 같이 하는 공존자의 부족을 채우고 있다고 한다(Kopomma, 2002, p.243).

휴대전화는 유선전화와는 달리 접속의 임계비용이 낮다. 달리 표현하면 특정한 사안이 없이 단순한 안부문의나 위치확인, 심지어는 무료함을 없애기 위한 통화도 어렵지 않다. 특히, 휴대전화의 문자메세지(SMS: short message service)는 사회관계 면에서 음성통화와는 차별화되는 특징을 지닌다. 문자메세지는 일상생활 중 통신을 하기 어려운 시간, 즉 이동 중과 같은 짜투리 시간이나 회의 중이거나 영화관람 중과 같은 ‘통신의 공백기’에도 연락을 유지할 수 있다. 전면적인 통신이 아니라 배경과 같이 깔아놓는 연결상태의 유지가 가능하여 마치 한 공간에 있으면서 금방이라도 부르면 대답할 수 있는 소위 ‘분위기상의 공존(ambient virtual co-presence)’이 가능하게 해 준다는 것이다. 한숨소리, 미소, 눈짓 등 이모티콘이나 간단한 단어를 통해 연결도 단절도 아닌 중간상태의 주변적 배경을 전달함으로써 이러한 가상적인 공존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Ito & Okabe, 2002, pp.13~14). 만남의 도중에도 화제의 내용에 따라 화제의 주인공이나 동참하지 못한 다른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모임의 분위기와 안부를 전하게 된다. 이토와 오카베(Ito & Okabe, 2002)는 휴대전화를 통해 형성되는 이러한 성격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모바일친구와의 항시적 연결성(full-time intimate community)’(이후, 약어로 ‘모바일친구’라 함)으로 명명하였으며, 일본의 청소년의 경우 보통 2~5명 많게는 10여명의 모바일 친구를 갖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2. 물리적 만남과 모바일 만남

통신과 교통의 발달로 사회적 연결성을 강화함으로써 직접적인 접촉이 필요없게 될 것이라는 기술적인 기대와는 달리, 일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이토와 오카베의

연구결과는 휴대전화가 물리적인 만남을 더 풍요롭게 하고 있다(Ito & Okabe, 2002)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휴대전화로 인한 일상생활의 조정은 짜투리시간을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게 한다. 짜투리시간 동안, 일시적 공간을 형성하고 업무나 사적 행위를 하도록 하지만, 또한 즉흥적 만남의 기회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휴대전화는 모바일친구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즉흥적 만남으로 연결되는 일련의 만남의 고리를 형성하여 지속적인 관계유지를 가능하게 한다. 실제로 일본에서 실험된 바 있는 이마히마(ImaHima)²⁾와 같은 서비스는 차세대 휴대전화 서비스가 사회구성원들 간의 새로운 만남을 어떻게 유발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한 예이다. 코포마가 언급한 ‘유동적이고 순간적인 공동체의식(fleeting instance of communality)’도 접촉의 증대와 동시적 몰입(immersed, synchronized living)을 물리적 공간상의 행동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휴대전화의 조정능력을 강조한 같은 맥락의 개념이다. 또한, 만남 이후에도 문자메세지 등을 통하여 아쉬웠던 이야기나 필요한 정보들을 주고받게 함으로써 물리적 만남과 휴대전화의 이용 사이에는 상호상승적인 관계가 유지된다.

물리적 만남과 모바일 만남의 교류는 결국 기존의 도시공간이 휴대전화의 흐름에 의해 보다 많은 사회적 상호작용으로 채워지도록 할 뿐만 아니라, 위치정보와 무선 데이터 등과 같은 유비쿼터스 기술의 발전과 확산에 따라 또 다른 차원의 물리공간 대 사이버공간의 통합을 가져올 수 있다. 실바는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으로 인해 익명적 도시공간이 언제든지 개인과 구성원 전체에 의미를 지니는 장소로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게 되었다고 주장한다(Silva, 2002, p.2).

2) 이마히마(ImaHima; 지금 한가해?)는 2000년에 서비스되기 시작한 일본 제1의 휴대전화 인스턴트 메시징 서비스로서 친구 그룹끼리 자신의 위치와 특징을 상대방 바탕화면으로 송신하는 메신저와 같은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사용자끼리 자신이 현재 무엇을 하고 있으며, 어떤 기분인지 게시판에 적어두면 접속중인 이용자끼리 검색해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http://www.imahima.co.jp>).

제 4 절 모바일 커뮤니케이션과 공적공간³⁾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이 공적공간에 미치는 영향은 ‘공적공간의 사사화’와 ‘공적공간의 기능과 역할변화’로 대별될 수 있다. 전자는 1990년대 말부터 휴대전화에 관한 사회과학적 연구의 주요 주제로 다루어져 왔으며, 주로 규범적 차원의 논의와 공적공간의 공동체적 성격에 주는 영향이 주로 조명되었다. 여기서는 휴대전화의 사용으로 인한 공·사적 공간 구분의 불명확성, 달리말해 공적공간내의 세분화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사사화문제를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후자는 휴대전화의 확산으로 역할과 중요성이 감소될 것으로 우려되었던 공적공간의 미래가 과연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관한 다양한 가설적 개념들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1. 공적공간의 사사화

정보통신은 지금까지 구분이 분명하였던 여러 영역들 간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였는데, 대표적인 것이 공적인 공간과 사적인 공간의 구분이다(Wei & Leung, 1999, pp.12~26). 특히,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의 등장은 사적인 대화나 업무협의를 공공장소⁴⁾에서 가능하게 함으로써 공적공간의 사적화를 가속화시킨 것으로 지적되고 있

-
- 3) 공적공간이란 도시의 시설이나 공간 중 일반대중에게 개방된 공공 또는 사적으로 운영되는 시설로 도로, 버스, 지하철, 정류장, 공원 등 공공적 성격의 공간은 물론 카페, 식당, 병원, 도서관, 쇼핑몰 등 대중에게 개방된 기업적 공간을 포함한다.
 - 4) 공적공간과 공공장소에 대한 정의는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며, 학문영역 별이나 사용처별로 각각의 의미가 혼재하여 혹은 차별화되어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공적공간’에 대한 연구이며, 공간과 장소에 대해서 ‘하나의 장소가 활동을 위한 공간이 되고 그 곳에서 일어나는 활동이 그 장소의 성격을 규정하게 될 때 그 장소는 비로소 의미를 갖기 시작한다(김기호 외, 1990)’고 생각한다. 그래서 보고서 전체에서는 ‘공적공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사례와 설문조사 등 공적공간에서의 활동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곳으로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공공장소’라는 용어를 함께 사용하고 있다.

다. 위크맨은 사적, 주관적, 감정적 공간이 도시의 공적공간을 채우게 하며 그 결과 공적공간을 공유된 경험의 공동체가 아닌 사적이고 주관적인 경험의 집합체로 변모시켰다는 해석이 대표적인 예이다(Du Guy, 1997 from Green, 2002, p.283). 휴대전화 역시 공간의 분절화와 개별적 경험을 조장하여(Cooper et al, forthcoming from Green, 2002, p.283) 개개인들을 국지적, 집합적, 그리고 공존적 이해와 활동에서 벗어나게 한 것으로 비판받고 있다.

사인주의(私人主義, *privatism*) 매체(김평호, 2002)로서 휴대전화가 확장시킨 개인 활동은 공공성과의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공공적 성격의 공적공간에서의 휴대전화 이용은 개인의 통화자유와 방해받지 않을 권리 사이에서 개개인의 인식 차이에 의해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문제는 사적행위를 얼마나 잘 조절하여 공적공간을 활용해 나가느냐는 것이다. 도시공적공간과 인간활동, 통신기술이 상호작용적으로 그 의미와 역할을 변화시켜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2. 사회반응적 공간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의 등장으로 인하여 공적공간의 역할이 변화하게 될 것이라는 논의는 두가지 양극적 형태를 보이고 있다. 하나는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의 등장으로 전통적으로 만남이나 사회적 회동의 장소로서 공적공간이 지녔던 역할과 중요성이 쇠퇴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만남의 조정이 ‘이동 중 연결성(*mobile communicability*)’을 통해 이루어짐에 따라 만남의 일차적 장소로서 의미를 지녔던 광장, 공원, 역 등 공적공간들의 의미가 반감될 수 있다(Witzgall & Burlison, 2000, p.1)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지리학 또는 도시사회학자들을 중심으로 주장되고 있는 휴대전화의 사용이 공적공간 부활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이다. 가정과 직장의 중간지대 다시 말해, 통신의 사각지대로 인식되었던 공적공간이 휴대전화에 의해 상호작용과 만남, 그리고 생활이 영위되는 새로운 공간, 즉 제3의 공간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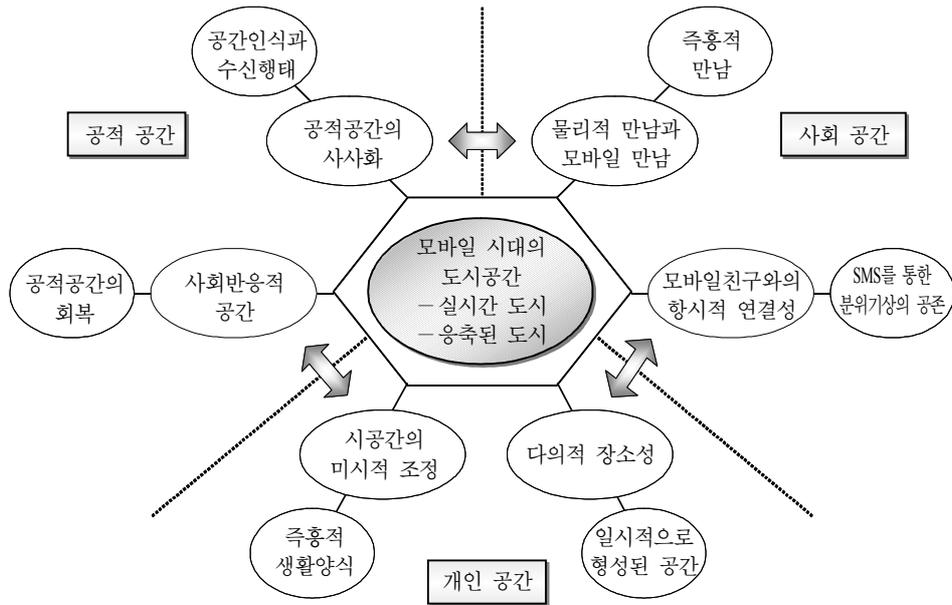
것이다. 이들은 휴대전화 나아가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의 발달이 공적공간에 활력을 불어넣음은 물론 특정지역의 장소성을 높이고, 나아가서는 도시공간 전반의 집약적 활용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Kopomma, 2002, p.244; Kopomma, 2000, p.2).

최근 유비쿼터스 기술의 발달에 따라 공적공간의 미래상을 새로이 규정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유비쿼터스 기술은 ‘이동성과 지능성 그리고 융합성을 포괄하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패러다임’이다. 이러한 기술이 개발되고 적용됨에 따라 공적공간 및 공적공간 내 시설에 대한 정보를 광범위하게 제공할 수 있으며, 또한 물리공간상 사람들의 활동과 이동에 반응하여 공적공간을 제어할 수도 있다. ‘사회반응적 공간(socially responsive environment; context aware environment)’이란 유비쿼터스 기술의 환상적인 상호성(fascination of interactivity)과 실시간 응답성(real-time responsiveness)을 다시 물리적 공간에 반영함으로써, 인간의 활동과 이동에 대응하여 적절히 반응하는 공간을 의미한다(Witzgall & Burleson, 2000). 이 개념의 주창자들은 사회반응적 환경이 개개의 이용자를 연결시키는 공유된 정보와 인식을 형성하며 이를 통해 개인의 공간인지뿐만 아니라 이용행태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공적공간의 미래모습이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상호적이고 동태적이며, 사회적인 공간으로 변할 수 있는가? 또는 IT가 공적공간의 소통성, 공동체성, 소속감을 높일 수 있는가 등의 질문은 이제 실증적으로 답하기 보다는 실천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과제라 하겠다. 이러한, 관점에서 유비쿼터스 시대에 부응하는 공적공간의 새로운 정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핵심 구성요소에 대한 산·학·연의 협력이 필요한 때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모바일 커뮤니케이션과 도시공간의 변화에 관련된 기존의 주요 개념들을 종합적으로 표현한 것이 [그림 2-1]이다.

[그림 2-1] 본 연구의 이론적 논의



제 5 절 연구문제와 가설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의 등장은 개인의 생활과 사회적 관계뿐만 아니라, 사회 메카니즘으로서 작동하는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인식까지 변화시키고 있다. 모바일 커뮤니케이션과 공간과 관련하여 이제까지 정리한 논의들은 개인공간, 사회공간, 공적공간으로 크게 세가지 차원으로 구성된다. 이들 논의들을 중심으로 각 차원의 연구문제를 제시하고 실증분석함으로써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간의 변화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첫째, 절대적이고 초험적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상대적이고 경험되는 것으로(칸트; 이진경, 1997 재인용) 바뀌고 있으며,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에 의해 더욱 가속화된다는 것이다.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으로 인하여 시공간적 제약에서 벗어나서 인간 활동이 확장되고 상호작용을 통한 생활양식의 미시적 조정까지 가능하게 된 것이

다. 그리고 공간을 초월하여 가상적(일시적) 공간의 형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시간에 따라 가변적인 공간이동이 불연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과연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에 의해 변화되고 있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은 실재적으로 개인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행동 양식을 변화시켰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아래와 같은 연구문제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으로 인하여 개인의 시공간 활용이 변화하고 있는가?

연구가설 1-1: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의 사용으로 개인의 이동중 시간이 의미 있어졌으며, 시간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하다.

연구가설 1-2: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의 사용으로 공간의 고유성(고유한 성격과 역할)에서 벗어난 다중적 공간 활용이 가능하다.

둘째,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극복해 주는 효율적인 상호작용의 도구이며 사회화의 수단이자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틀이라는 것이다.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은 항시적으로 연결된 친구를 가지게 함으로써 이용자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해주는 매체이기도 하다. 즉각적이고 빈번한 상호 커뮤니케이션은 실재적인 사회관계까지 발전시키게 된다.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은 사회공간의 변화에 어느 정도나 영향을 주고 있으며, 사회관계로 반영되는 양상(실재 물리적인 만남 등)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아래와 같은 연구문제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2: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으로 인하여 사회관계가 변화하고, 사회공간이 재구성되고 있는가?

연구가설 2-1: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의 사용으로 개인의 사회관계가 긍정적으로 변화한다.

연구가설 2-2: 모바일 커뮤니케이션과 물리적 만남의 관계는 보완적이다.

셋째,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은 편리한 소통의 기제이며 업무처리의 도구이자, 사용자 개개인의 통제 하에 있는 사적인 매개체라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공적공간에서 담보되어야 하는 공공성이 침해를 받고 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일상적이고, 유연하며, 다양한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으로 인하여 쇠퇴해 가던 공적공간이 사회반응적 공간으로 변모하면서 활성화되고 있다.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으로 인하여 공적공간이 사사화되고 쇠퇴하고 있는 것인가, 활성화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 것인가를 살펴보고자 아래와 같은 연구문제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3: 모바일 공간행태가 도시 공적공간의 기능과 역할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가설 3-1: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은 공적공간을 사사화시킨다.

연구가설 3-2: 모바일이 고도로 발달된 미래사회에는 공적공간의 활용이 더욱 활성화된다.

제 3 장 휴대전화에 의한 공간변화 설문분석

제 1 절 조사개요

1. 조사의 목적과 기준

이번 장에 있어서는 앞서 논의되었던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가운데 보급률 76.5% (2005년 2월 기준)인 휴대전화와 공간의 변화에 대해서 실증적으로 분석해 내하고자 한다.

휴대전화로 인한 시공간의 미시적 조정 및 즉흥적 생활양식, 일시적으로 형성되는 공간 및 장소의 다의성 등 개인의 공간인식 및 경험과 항시적으로 연결가능한 친구집단의 존재, 물리적인 만남과 휴대전화를 통한 사회적 상호작용간의 관계 등 사회적 상호작용이나 사회관계, 공적공간의 기능과 역할 변화 등 공적공간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휴대전화가 초래한 공간적인 양상들에 대한 이론적 논의가 현재 우리의 상황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지, 어떠한 현상을 보이는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그 설명 요인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하고자 한다.

2. 조사 방법

가. 조사대상자 구성 및 특성

모바일 커뮤니케이션과 도시공간의 변화 조사는 제2장에서 제시한 연구문제와 가설을 기반으로, 휴대전화의 이동중 연결성과 시공간의 응축으로 개인공간, 사회공간, 그리고 공적공간의 변화를 살피고자 함에 따라 만 12세 이상의 휴대전화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2004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휴대전화 이용(3,659만명, 보급률 75.91%)율이 가장 높은 SKT(휴대전화 시장점유율 51.3%)의 이용자 구성 즉 성별, 연령별 구성비율에 따라 서울거주자 400명을 대상으로 표본집단을 구성하였다.⁹⁾

표본집단의 성별구성은 모집단과 93.5%의 근사유의율을 나타내며, 남자의 경우 모집단 구성비율 보다 0.2% 적은 60.0%이며, 여자의 경우 모집단 구성비율 보다 0.2% 많은 40.0%로 이루어졌다. 연령구성은 모집단구성과 100%의 근사유의율로, 10대가 8.8%, 20대가 24.0%, 30대가 26.0%, 40대가 23.5%, 50대 이상이 17.7%로 구성되었다(〈표 3-1〉 참조).

〈표 3-1〉 표본집단의 사회경제 지표

| 특성 | 구분 | 빈도 | 백분율 | 특성 | 구분 | 빈도 | 백분율 | |
|------|--------|-----|-------|------------------|-------|-------|-------|-------|
| 성별* | 남 | 240 | 60.0% | 직업 ⁵⁾ | 화이트칼라 | 109 | 27.2% | |
| | 여 | 160 | 40.0% | | 블루칼라 | 77 | 19.3% | |
| 연령** | 10대 | 35 | 8.8% | | 자영업 | 71 | 17.7% | |
| | 20대 | 96 | 24.0% | | 주부 | 74 | 18.5% | |
| | 30대 | 104 | 26.0% | | 학생 | 65 | 16.3% | |
| | 40대 | 94 | 23.5% | | 무직/기타 | 4 | 1.0% | |
| | 50대 이상 | 71 | 17.7% | | 중졸 이하 | 15 | 3.7% | |
| 결혼유무 | 기혼 | 269 | 67.2% | | 학력 | 고졸 | 170 | 42.5% |
| | 미혼 | 131 | 32.8% | | | 대재 이상 | 215 | 53.8% |

* : 근사유의율: 93.5%

** : 근사유의율: 100%

5) 표본집단에 있어서 직업별 구성이 적용되지 않은 것은 직업구성 정보가 명확한 조사정보가 아니어서 기준비율로서 적절치 못하기 때문이다. SKT 가입시 필수적인 주민등록번호로 인지가능한 성과 연령 이외에는 부가적인 정보로서 직업정보 또한 SKT의 이용자들로부터 직접 받아지는 정보로 오류가 많다. 무직이 전체의 40.7%나 되고 있어서 직업별 층화를 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 이후의 시점에 발표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2004년 무선인터넷이용실태조사』의 직업별 구성인 전문관리직 5.2%, 사무직 17.7%, 서비스판매직 25.6%, 생산관리직 11.4%, 학생 19.6%, 주부 16.3%, 무직 4.3%와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6) 직업 분류에 있어서 화이트칼라에는 경영관리직과 전문자유직, 사무기술직이 포함되며, 블루칼라에는 판매서비스직, 기능숙련공, 그리고 일반직업직이 포함되어 있다.

나. 조사절차

휴대전화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모바일 커뮤니케이션과 공간 변화 조사는 2004년 11월 25일부터 12월 15일까지 3주간 면접조사로 실시되었다. 휴대전화 이용자 가운데, 응답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에 면접원이 직접 방문하여 조사내용을 질의하고 응답내용을 체크하였다. 직접 면접조사는 대상자 개인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응답 편향(bias)을 없애주고 무응답율도 줄여준다. 또한, 응답내용의 데이터 처리 과정을 거치면서 불분명한 내용을 확인하는 작업이 전화와 전자우편을 통해 이루어졌다. 기록된 자료는 통계 패키지 SPSS 12.0을 이용해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3. 조사 내용

실증조사에서는 첫 번째로 휴대전화 이용으로 인한 개인의 공간인식과 경험을 살펴보기 위하여, 먼저, 휴대전화 이용으로 가능해진 시공간의 조절능력을 통하여 시공간의 미시적 조정과 이로 인하여 변화된 즉흥적 생활양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휴대전화로 인하여 공간의 장소화가 원격으로, 일시적으로 형성가능해진 다양한 공간성, 즉 장소의 다중성에 주목해 보고자 한다.

고정된 장소 및 공간과 고착된 시간에서 벗어나 시공간의 압축과 조정으로 나타나는 생활양식 등을 살펴보면, 휴대전화 이용으로 개인의 일상생활 속에서 공간의 활용과 경험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가늠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두 번째 연구문제는 사회관계와 사회적 상호작용 등 사회공간의 재구성 문제이다. 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첫째, 휴대전화를 통한 소통으로 인하여 물리적 만남이 약화되었는지, 아니면 강화되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하고자 한다. 둘째, 휴대전화를 통하여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시공간적 맥락을 같이 하는, 모바일친구에 대해서 주목하고자 한다.

휴대전화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사회공간이 어떻게 마련되고 구성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유지되는 모바일 친구와 물리적인 만남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세 번째 연구문제는 휴대전화의 이용이 공적공간의 기능과 역할변화이다. 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첫째, 공적공간의 공공성과 공간특성적 차이에 따른 휴대전화 사용행태와 규제방식의 차별화를 알아보며, 둘째,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발달로 변화하는 공적공간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주목해 보고자 한다.

〈표 3-2〉 조사내용

| 연구문제 | 연구 질의 내용 |
|---|--|
|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으로 인하여 개인의 시공간 활용이 변화하고 있는가? | - 휴대전화 사용이후 시공간의 활용과 효율 |
|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의 사용으로 개인의 이동중 시간이 의미 있어졌으며, 시간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하다. | - 만남과정의 유연화 정도 |
|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의 사용으로 공간의 고유성(고유한 성격과 역할)에서 벗어난 다중적 공간 활용이 가능하다. | - 휴대전화로 인한 다의적 장소성 경험 |
|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으로 인하여 사회관계가 변화하고, 사회공간이 재구성되고 있는가? | - 사회관계성의 양과 깊이 |
|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의 사용으로 개인의 사회관계가 긍정적으로 변화한다. | - 하루평균 1회 이상 휴대전화 통신지수 - 모바일 친구수 - 모바일 친구와의 상호작용량(통화&문자) |
| 모바일 커뮤니케이션과 물리적으로 만난 관계는 보완적이다. | - 전체 만남 횟수 - 즉흥적 만남 횟수 - 전체 만남 대비 즉흥적 만남 비율 |
| 모바일 공간행태가 도시 공적공간의 기능과 역할에 영향을 미치는가? | - 공적공간 인식 |
|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은 공적공간을 사사화시킨다. | - 공적공간 개념화 - 공간특성별 휴대전화 수신여부 - 공간특성별 휴대전화 사용 규제방식 |
| 모바일이 고도로 발달된 미래사회에는 공적공간의 활용이 더욱 활성화된다. | -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발달과 활용 기대 - 요구되는 모바일 통신서비스 |

공공장소의 공공적 성격과 휴대전화 사용이 어떻게 공적공간을 구성하며, 조절되

고 기대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표 3-2>에서 연구문제와 조사내용을 정리하였다.

이와 같은 구체적인 연구 문제를 통해 휴대전화가 개인의 공간 활용, 사회공간 재구성, 공적공간의 경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 내용과 특성에 대해 조사결과를 분석한 일반적 양상을 파악하고자 한다.

제2 절 휴대전화 일반에 대한 고찰

이 절에서는 3절부터 4절까지 논의될 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는 설명변수들을 기초 분석하여 그룹변수를 생성해 내고자 한다. 그리고 휴대전화 사용량과 중요도에 대한 기초적인 데이터를 제시하고자 한다.

1. 휴대전화 사용량

휴대전화의 사용 정도는 그 자체로도 휴대전화 이용의 보편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의미를 갖지만, 휴대전화의 사용으로 공간 활용과 사회적 관계성이 차이나는지를 살펴보는 데 필요한 독립변수이기도 하다. 하루평균 음성통화의 횟수와 문자메시지의 횟수를 조사하였다. 음성통화의 경우, 통화 건수보다는 통화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더욱 정확한 사용량이 되었을 수도 있으나, 통화목록에서의 시간확인과 평균치 측정이 어렵고 문자메시지양과의 비교를 위하여 ‘건수’로 측정기준을 통일하였다.

휴대전화를 어느 정도나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본 결과, 하루평균 음성통화의 수발신 건수 약 15.3건과 문자메시지의 수발신 건수 약 10.0건으로 나타났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2004년 무선인터넷이용실태조사』결과와 비교하면 주평균 음성통화 70.9건과 문자메시지 61.8건 보다 조금 더 많이 사용하는 집단으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휴대전화 이용에 있어서는 음성통화와 문자메시지 모두 발신 보다는 수신되는 양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060 등 무차별적으로 수신되는 광고성(스팸) 전화의 영향인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성격의 음성통화와 문자

메세지가 각각 1건 정도씩으로 하루평균 2건 정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반적으로 사회경제적 집단에 따라 음성과 문자의 비중이 상당히 차이나는 것으로 보이지만, 가장 두드러진 대비는 10대와 학생 그리고 미혼집단의 문자의존율이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났다(〈표 3-3〉 참조).

〈표 3-3〉 휴대전화 사용량

| | | 음성통화 | 문자메세지 | 합계 |
|--------|--------|-------|-------|-------|
| 발신건수 | | 7.3건 | 4.6건 | 12.1건 |
| 수신건수 | | 8.4건 | 5.4건 | 13.8건 |
| 합계 | | 15.7건 | 10.0건 | 25.9건 |
| 성① | 남 | 18.1건 | 9.1건 | 27.2건 |
| | 녀 | 12.5건 | 11.4건 | 23.9건 |
| 연령② | 10대 | 10.8건 | 32.3건 | 43.1건 |
| | 20대 | 15.6건 | 14.7건 | 30.3건 |
| | 30대 | 16.4건 | 6.4건 | 22.7건 |
| | 40대 | 17.2건 | 5.3건 | 22.5건 |
| | 50대 이상 | 16.0건 | 4.2건 | 20.3건 |
| 직업③ | 화이트칼라 | 19.4건 | 9.3건 | 28.7건 |
| | 블루칼라 | 16.4건 | 8.6건 | 25.1건 |
| | 자영업 | 19.5건 | 5.2건 | 24.7건 |
| | 주부 | 9.9건 | 3.6건 | 13.5건 |
| | 학생 | 12.5건 | 25.8건 | 38.3건 |
| 학력④ | 무직 | 6.5건 | 3.3건 | 9.8건 |
| | 고졸 | 12.9건 | 9.6건 | 22.5건 |
| | 대재 | 18.3건 | 10.4건 | 28.7건 |
| 결혼 유무⑤ | 기혼 | 16.2건 | 5.3건 | 21.5건 |
| | 미혼 | 15.0건 | 19.7건 | 34.7건 |

①: 음성통화의 t-test 유의확률 0.000

②: 문자메세지의 anova 유의확률 0.000, 총 합계의 anova 유의확률 0.000

③: 음성통화와 anova 유의확률 0.000, 문자메세지의 anova 유의확률 0.000, 총 합계의 anova 유의확률 0.000

④: 음성통화의 t-test 유의확률 0.000, 총 합계의 t-test 유의확률 0.007

⑤: 문자메세지의 t-test 유의확률 0.000, 총 합계의 t-test 유의확률 0.000

성별로는 남성은 음성통화량이 여성(12.5건)에 비해 44.8%가 많은 18.1건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여성은 문자메세지량이 남성(9.1건)에 비해 25.3%가 많은 11.4건이었다. 연령별로는 중장년층의 음성통화량이 많아서 10대가 10.8건인 반면에 30대가 16.4건이며, 40대가 17.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층은 음성통화량 보다 문자메세지량이 절대적으로 많아서 50대 이상은 4.2건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10대의 문자메세지량은 32.3건으로 최대 100건 이상인 경우도 있었다. 결혼유무에 따른 음성통화량은 차이가 크지 않지만, 문자메세지량은 미혼이 기혼(5.3건)의 271.7%인 19.7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음성통화량과 문자메세지량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⁷⁾ 휴대전화 사용량을 설명변수로 이용하는데 있어서 통화와 문자를 구분하지 않고 총사용량으로 살펴보기로 하였다. 단, 두가지 가운데 특별하게 종속변수와의 연관성이 나타나는 변수에 있어서는 따로 해석해 나가고자 한다.

그리고 휴대전화 사용량에 따른 그룹 구분은 음성통화의 수발신양과 문자메세지의 수발신양을 합한 총통화양에 대한 백분위수(Quartiles)로 형성되었다. 백분위수로 구분된 휴대전화 사용량그룹은 총 사용량에 따라 가장 사용량이 적은 그룹부터 소량이용, 중하이용, 중상이용, 다량이용의 네 그룹으로 구분하였다. 소량이용그룹은 음성발신이 3.3건, 문자발신이 3.6건인데 반하여 다량이용그룹은 음성발신이 12.9건, 문자발신이 16.2건으로, 하루사용량이 7배가 차이가 난다(〈표 3-4〉 참조).

〈표 3-4〉 휴대전화 사용량그룹

| | 음성 발신 | 음성 수신 | 문자 발신 | 문자 수신 | 합 |
|------|-------|-------|-------|-------|-------|
| 합계 | 7.3건 | 8.4건 | 4.6건 | 5.4건 | 25.9건 |
| 소량이용 | 3.3건 | 0.5건 | 3.6건 | 0.7건 | 8.0건 |
| 중하이용 | 5.1건 | 2.1건 | 5.6건 | 2.3건 | 15.2건 |
| 중상이용 | 8.0건 | 3.9건 | 8.4건 | 4.5건 | 24.7건 |
| 다량이용 | 12.9건 | 12.2건 | 16.2건 | 14.2건 | 56.2건 |

7) 상관관계 분석에 있어서 양자간 Person 상관계수 0.190이며 유의확률 0.007임

2. 휴대전화 중요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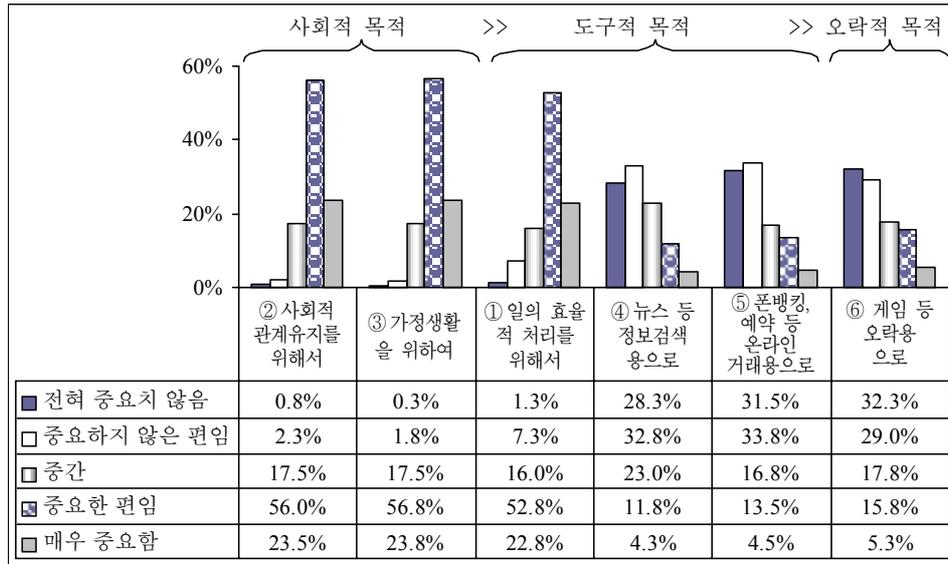
개인에 따라 휴대전화를 이용하게 되는 주요 사용목적이 다를 수 있다. 휴대전화 사용량이 휴대전화의 보편화를 가능하는 척도가 된다면, 휴대전화 중요도는 휴대전화가 일상생활 속으로 어느 정도나 침투하여 일상화되었는지를 측정하는 척도라고 할 수 있다. 일례로 보험설계사는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확보가 업무의 중요한 일 부분으로 휴대전화 사용에 익숙치 않은 50대의 개인이라도 휴대전화가 일상에서 중요하게 되는 경우와 같이 중요도는 휴대전화의 구입동기는 물론 사회경제적 배경과도 긴밀히 관련된다.

휴대전화의 중요도는 일의 효율적 처리, 사회적 관계유지, 가정생활 영위, 정보검색, 온라인거래, 오락 등으로 구분하고 각각에 대해 사용자가 생각하고 중요도를 5단계 리커트척도(Likert scale)로 조사하였다. 그 결과, 사회적 관계유지는 79.5%, 가정생활 지속은 80.6%로 나타나 가족과 사회적 관계 등 다른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하여 휴대전화가 얼마나 유용하고 중요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그리고 업무처리 등의 효율화를 위해서 중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75.6%로 나타났으며, 뉴스 등의 정보검색과 온라인거래는 각각 16.1%, 18.0%이었다. 오락에 부여하는 중요도는 다소 낮아 21.1%로 조사되었다(그림 3-1) 참조).

휴대전화 사용의 중요성이 사용목적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고자 휴대전화의 사용목적은 도구적 목적, 사회적 목적, 그리고 오락적 목적으로 나누어 평균값을 산출하였다.⁸⁾ 휴대전화는 사회적 목적의 이용이 4.0으로, 주로 사회관계 유지에 이용되고 있으며, 작업의 효율화를 위한 도구적 목적의 이용이 2.8로 적지 않은 중요성을 나타내었다. 오락적 목적의 이용은 2.3으로 휴대전화 사용의 중요 목적은 아닌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3-5〉 참조).

8) 도구적 목적 = ‘①일의 효율적 처리+④ 정보검색용+⑤온라인 거래용’의 평균
 사회적 목적 = ‘②사회적 관계 유지+③가족관계 지속’의 평균
 오락적 목적 = ⑥오락적용

〔그림 3-1〕 휴대전화 사용목적과 중요도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2.7, 남자는 2.9)에 비해 도구적 목적의 이용이 중요하며, 반면 여자는 사회적 목적의 이용이 4.1로 4.0인 남자에 비해 더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 있어서 사회적, 그리고 도구적 목적의 이용이 유사하게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오락적 목적의 이용에 있어서는 연령이 낮을수록 높아져서, 10대는 3.4, 20대는 2.8의 중요성을 나타냈다.

휴대전화의 사용목적은 기능적 차원(도구성)과 사회적 차원(사회성), 그리고 문화적 차원(오락성)으로 나뉘어서 개인에 따라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다(이인희, 2001; 배진한, 2001; 나은영, 2001). 그러나, 휴대전화의 사용은 때와 장소에 따라서 사용목적이 변화하는 것이므로, 사용목적 합계의 평균을 ‘휴대전화 중요도’라 하여 어느 정도나 중요하게 이용되는지를 독립변수로 사용하였다(〈표 3-5〉 참조).

〈표 3-5〉 휴대전화 중요도

| | | 사회적 목적 | 도구적 목적 | 오락적 목적 | 휴대전화 중요도 |
|--------|--------|--------|--------|--------|-------------|
| 평균 | | 4.0 | 2.8 | 2.3 | 3.1 |
| 성① | 남 | 4.0 | 2.9 | 2.3 | 3.1 |
| | 녀 | 4.1 | 2.7 | 2.3 | 3.1 |
| 연령② | 10대 | 4.1 | 2.8 | 3.4 | 3.4 |
| | 20대 | 4.0 | 2.9 | 2.8 | 3.3 |
| | 30대 | 4.1 | 2.8 | 2.1 | 3.1 |
| | 40대 | 4.0 | 2.9 | 2.1 | 3.1 |
| | 50대 이상 | 3.8 | 2.6 | 1.8 | 2.9 |
| 직업③ | 화이트칼라 | 3.9 | 2.9 | 2.0 | 3.1 |
| | 블루칼라 | 4.0 | 2.8 | 2.4 | 3.1 |
| | 자영업 | 4.0 | 2.9 | 2.3 | 3.2 |
| | 주부 | 4.1 | 2.6 | 2.0 | 3.0 |
| | 학생 | 4.1 | 2.9 | 3.2 | 3.4 |
| | 무직 | 2.8 | 2.1 | 1.5 | 2.2 |
| 학력④ | 고졸 | 4.0 | 2.7 | 2.3 | 3.0 |
| | 대재 | 4.0 | 2.9 | 2.4 | 3.2 |
| 결혼 유무⑤ | 기혼 | 4.0 | 2.8 | 2.1 | 3.1 |
| | 미혼 | 4.1 | 2.9 | 2.9 | 3.3 |

①: 사회적동기의 t-test 유의확률 0.024

②: 사회적동기의 anova 유의확률 0.032, 오락적 동기의 anova 유의확률 0.000, 휴대전화 중요성의 anova 유의확률 0.000

③: 도구적 동기의 anova 유의확률 0.017, 사회적동기의 anova 유의확률 0.000, 오락적 동기의 anova 유의확률 0.000, 휴대전화 중요성의 anova 유의확률 0.001

④: 도구적 동기의 t-test 유의확률 0.001, 휴대전화 중요성의 t-test 유의확률 0.007

⑤: 오락적 동기의 t-test 유의확률 0.000, 휴대전화 중요성의 t-test 유의확률 0.003

휴대전화 중요도는 백분위수(Quartiles)에 따라 저중요도, 중하중요도, 중상중요도, 고중요도의 네그룹으로 분류하였다. 휴대전화 중요도의 그룹 분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목적은 오락적 목적인 반면, 사회적 목적은 전체적으로 고른 분포를 보

였다(〈표 3-6〉 참조).

〈표 3-6〉 휴대전화 중요도그룹

| (5점척도) | 휴대전화 중요도 | 사회적 목적 | 도구적 목적 | 오락적 목적 |
|--------|------------------------|---------------------|------------------------|------------------------|
| 저중요도 | 2.4 | 3.7 | 1.9 | 1.2 |
| 중하중요도 | 2.9 | 3.9 | 2.6 | 1.9 |
| 중상중요도 | 3.3 | 4.1 | 3.1 | 2.6 |
| 고중요도 | 4.0 | 4.3 | 3.9 | 3.8 |
| 비고 | 사용량에 따른 유의확률: 0.002 | 사용량에 따라 유의미하지 않음 | 사용량에 따른 유의확률: 0.003 | 사용량에 따른 유의확률: 0.006 |

저중요도그룹은 일의 효율적 처리(도구적 중요도에 대한 대표적 질의)와 사회관계 유지(도구적 중요도에 대한 대표적 질의), 그리고 게임(오락적 중요도에 대한 대표적 질의)용으로의 사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5점 척도에서 ④중요함과 ⑤매우 중요함에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각각 45.2%, 63.4%, 0%인 반면에 고중요도 그룹은 각각이 95.7%, 88.2%, 69.9%로 높게 나타났다.

3. 휴대전화의 사용량과 중요도에 의한 그룹 구분

설명변수로 이용하고자 하는 사용량과 중요도에 따라 구분된 그룹이 사회경제적인 지표와 어떤 관련성을 갖는지를 조사분석에 들어가기에 앞서 살펴보았다. 사용량과 중요도에 따라 차이를 보이며 나타나는 각 조사결과의 특성이 사회경제적인 구성에 의한 간접적인 영향인지, 사용량과 중요도에 의한 직접적인 영향인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휴대전화 사용량에 있어서 〈표 3-7〉에서와 같이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으며(성별에 의해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음), 연령과 직업, 학력과 결혼유무가 영향을 주는 변수로 보이며, 여기서 구분된 학력과 결혼유무는 연령으로 인한 간접적인 요인인 것으로 생각된다.

〈표 3-7〉 휴대전화 사용량에 따른 그룹의 사회경제적 구성

| 사회경제적 그룹 | | 소량이용 (N=109) | 중하이용 (N=91) | 중상이용 (N=100) | 다량이용 (N=100) | 기준 |
|-----------------|--------|-----------------|----------------|-----------------|-----------------|-------|
| 성별 (100%) | 남 | 55.0% | 52.7% | 63.0% | 69.0% | 60.0% |
| | 녀 | 45.0% | 47.3% | 37.0% | 31.0% | 40.0% |
| 연령 (100%) | 10대 | 4.6% | 3.3% | 6.0% | 21.0% | 8.8% |
| | 20대 | 11.0% | 22.0% | 33.0% | 31.0% | 24.0% |
| | 30대 | 22.9% | 37.4% | 27.0% | 18.0% | 26.0% |
| | 40대 | 31.2% | 18.7% | 26.0% | 17.0% | 23.5% |
| | 50대 이상 | 30.3% | 18.7% | 8.0% | 13.0% | 17.7% |
| 직업 (100%) | 화이트 칼라 | 20.2% | 24.2% | 34.0% | 31.0% | 27.2% |
| | 블루칼라 | 14.7% | 23.1% | 19.0% | 21.0% | 19.3% |
| | 자영업 | 27.5% | 12.1% | 12.0% | 18.0% | 17.7% |
| | 가정주부 | 30.3% | 28.6% | 15.0% | 0.0% | 18.5% |
| | 학생 | 4.6% | 12.1% | 19.0% | 30.0% | 16.3% |
| | 무직/기타 | 2.8% | 0.0% | 1.0% | 0.0% | 1.0% |
| 학력 (100%) | 고졸 이하 | 64.2% | 49.5% | 35.0% | 35.0% | 46.2% |
| | 대재 이상 | 35.8% | 50.5% | 65.0% | 65.0% | 53.8% |
| 결혼 유무 (100%) | 기혼 | 85.3% | 76.9% | 61.0% | 45.0% | 67.2% |
| | 미혼 | 14.7% | 23.1% | 39.0% | 55.0% | 32.8% |

소량이용그룹은 전체 샘플과 비교할 때 여성과 40대 이상이 상대적으로 많이 반영되었으며, 직업에 있어서는 주부와 자영업, 그리고 무직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중하이용그룹은 여성의 비율이 높았으며, 세대별로는 30대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직업은 블루칼라와 가정주부가 많이 반영된 그룹이다.

중상이용그룹은 남성의 비율이 약간 높으며, 세대별로는 20대의 사회활동세대가 많이 반영되었다. 직업적으로는 화이트칼라가 높은 구성율을 보였다.

다량이용그룹은 남성과 20대 이하가 상대적으로 많이 반영되었으며, 직업적으로는 학생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전체적으로 소량이용그룹에서 다량이용그룹으로 갈수록 낮은 연령대의 구성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직업적으로는 소량이용그룹에서 주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이 반영된 반면, 다량이용그룹은 화이트칼라와 학생의 상대적 비중이 높았다. 휴대전화 사용량과 성,⁹⁾ 휴대전화 사용량과 연령¹⁰⁾은 상관관계를 보이며, 성별과 연령대에 따라서 휴대전화 사용량이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전화 중요도는 <표 3-8>에서와 같이 성, 연령, 직업 등의 사회경제적 지표에 따라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저중요도그룹은 전체 샘플과 비교하여 여성과 50대 이상이 상대적으로 많이 반영되었으며, 직업에 있어서는 주부와 부직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중하중요도그룹은 남성의 비율이 약간 더 높았으며, 세대별로는 40대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자영업이 많이 반영된 그룹이다.

중상중요도그룹은 남성의 비율이 높았다. 그리고 연령과 직업적으로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고중요도그룹은 여성과 20대 이하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직업적으로는 학생의 비중이 많은 그룹이다.

전체적으로 휴대전화 중요도는 사회경제적인 지표에 따른 차별적인 경향은 찾아볼 수 없었다. 단, 휴대전화의 사용량과 상관관계를 보이며,¹¹⁾ 휴대전화가 중요할수록 사용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9) 상관관계 분석에 있어서 양자간 Person 상관계수 -0.118이며 유의확률 0.018임

10) 상관관계 분석에 있어서 양자간 Person 상관계수 -0.312이며 유의확률 0.000임

11) 상관관계 분석에 있어서 양자간 Person 상관계수 0.186이며 유의확률 0.000임

〈표 3-8〉 휴대전화 중요도에 따른 그룹의 사회경제적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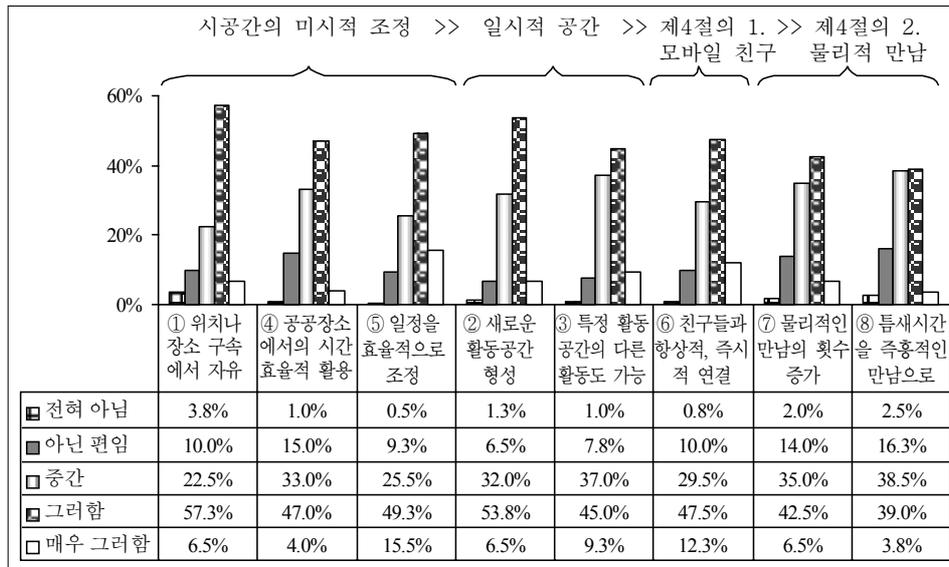
| 사회경제적 그룹 | | 저중요도 (N=115) | 중하중요도 (N=89) | 중상중요도 (N=103) | 고중요도 (N=93) | 기준 |
|-----------------|--------|-----------------|-----------------|------------------|----------------|-------|
| 성별 (100%) | 남 | 54.8% | 62.9% | 68.0% | 54.8% | 60.0% |
| | 녀 | 45.2% | 37.1% | 32.0% | 45.2% | 40.0% |
| 연령 (100%) | 10대 | 4.3% | 6.7% | 9.7% | 15.1% | 8.8% |
| | 20대 | 18.3% | 21.3% | 20.4% | 37.6% | 24.0% |
| | 30대 | 32.2% | 22.5% | 26.2% | 21.5% | 26.0% |
| | 40대 | 18.3% | 31.5% | 28.2% | 17.2% | 23.5% |
| | 50대 이상 | 27.0% | 18.0% | 15.5% | 8.6% | 17.7% |
| 직업 (100%) | 화이트칼라 | 25.2% | 28.1% | 28.2% | 28.0% | 27.2% |
| | 블루칼라 | 21.7% | 12.4% | 24.3% | 17.2% | 19.3% |
| | 자영업 | 18.3% | 23.6% | 16.5% | 12.9% | 17.7% |
| | 가정주부 | 25.2% | 18.0% | 16.5% | 12.9% | 18.5% |
| | 학생 | 7.0% | 16.9% | 14.6% | 29.0% | 16.3% |
| | 무직/기타 | 2.6% | 1.1% | 0.0% | 0.0% | 1.0% |
| 학력 (100%) | 고졸 이하 | 59.1% | 36.0% | 49.5% | 36.6% | 46.2% |
| | 대재 이상 | 40.9% | 64.0% | 50.5% | 63.4% | 53.8% |
| 결혼 유무 (100%) | 기혼 | 73.9% | 68.5% | 71.8% | 52.7% | 67.2% |
| | 미혼 | 26.1% | 31.5% | 28.2% | 47.3% | 32.8% |

제3 절 휴대전화와 개인의 공간 경험

휴대전화의 사용으로 인해 이용자의 공간 행위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났는지를 살펴해보았다. 제2장에서 논의된 개념을 반영할 수 있는 문항들에 따라 휴대전화 이용 전과 이용후의 변화 여부에 대해서 5단계의 리커트척도로 답하게 하였다.

시공간의 활용과 효율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50% 이상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시공간적 변화는 ‘시공간의 미시적 조정’이 가장 크며, 다음으로 ‘일시적 공간’, 그리고 ‘모바일 친구’와 ‘물리적 만남의 증대’ 순으로 활용성과 효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2) 참조).

〔그림 3-2〕 휴대전화 사용 이후 시공간의 활용



‘시공간의 미시적 조정’이라고 할 수 있는 위치나 장소의 구속으로부터의 자유와 공공장소에서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 그리고 이로 인한 일정의 효율적 조정은 각각 63.8%, 51.0%, 64.8%로 높게 나타났다.

휴대전화를 통한 ‘일시적 공간’의 형성과 이로 인한 장소의 다의적 활용에 대해서는 새로운 활동공간의 형성과 특정활동만 하던 공간에서 다른 활동도 가능하게 되었다는데 각각 60.3%와 54.3%로 조사되었다.

제4절에서 더 자세히 이야기될 휴대전화를 통한 사회관계의 향상에 대해서는 항상 연결되어있는 듯한 모바일 친구의 존재와 물리적 만남의 횟수의 증가에 각각 59.8%와 49.0%가 동의하였다.

휴대전화 사용 이후의 시공간의 활용과 효율은 사용량에 따른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 단, 물리적인 만남의 횟수는 사용량에 따라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서, 소량이용그룹의 40.4%가 동의한 반면에 다량이용그룹은 56.0%가 동의하였다.

그리고 휴대전화 중요도에 따라서는 휴대전화 사용 이후의 시공간의 활용과 효율이 차별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3-9〉 참조).

먼저, 시공간의 미시적 조정과 관련된 위치나 장소의 구속에서의 자유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동의를 하고 있어서 중요도에 따른 특별한 양상을 보이진 않았다. 그러나 공공장소에서 보내는 시간의 의미있는 활용과 일정의 효율적 조정 등에 대해서 저중요도그룹에서는 각각 42.6%와 59.1%이지만,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동의하는 비율이 높아져 고중요도그룹에서는 각각 59.1%와 73.1%이었다.

일시적 공간의 형성과 관련하여서는 사용량이나 중요도, 그리고 사회경제적 변수에 따른 특별한 양상이 나타나지는 않았다.

다음은 모바일 친구로, 저중요도그룹은 53.1%인데 반하여 고중요도그룹은 65.6%로 휴대전화를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친구와 항상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라서도 차별적 양상을 나타내는데, 10대는 71.4%가 휴대전화로 인하여 항상 같은 공간에 존재한다고 여기고 있으나 40대는 51.1%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직업적으로는 연령의 영향으로 학생집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물리적인 만남에 있어서는 사용량과 중요도, 성, 연령, 직업에 따른 차별적 경향을 나타냈다. 물리적인 만남의 횟수 증가와 틈새시간의 즉흥적 만남에 대해서 저중요도그룹은 각각 44.4%와 35.7%이나 고중요도그룹은 57.6%와 65.6%가 동의하였다. 연령에 있어서도 10대가 각각 54.3%와 48.6%인 반면에 40대는 39.4%와 42.5%로 나타나 연령이 낮을수록 물리적인 만남의 횟수 또한 증가하였다고 생각하고 있다. 직업적으로는 다른집단에 비해 학생집단의 물리적인 만남에 휴대전화가 효율적으로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여성이 47.5%이며, 남성이 39.6%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틈새시간을 즉흥적인 만남으로 연결시키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9〉 휴대전화 사용 이후 시공간의 활용과 설명변수

| | 사용량 | 중요도 | 사회경제적 지표 | | |
|-------------------|---|-----|----------|----|----|
| | | | 성별 | 연령 | 직업 |
| 시공간의 미시적 조정 | ① 위치나 장소의 구속에서 자유로워졌다 | — | — | — | — |
| | ④ 공공장소에서 보내는 시간을 더 의미있게 활용하게 되었다 | — | — | — | — |
| | ⑤ 일정과 이동경로 등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게 되었다 | — | — | — | — |
| 일시적 공간 | ② 새로운 활동공간이 형성되었다 | — | — | — | — |
| | ③ 기존에 특정활동만하 던 공간을 다른 활동도 가능하게 한다 | — | — | — | — |

| | 사용량 | 중요도 | 사회경제적 지표 | | | |
|--------|-----------------------------------|--|--|--|---|---|
| | | | 성별 | 연령 | 직업 | |
| 모바일 친구 | ⑥ 언제 어디서건 항상 친구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든다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령이 낮을수록 항상 연결된 느낌 5점 척도로 3.9(10대): 3.7(20대): 3.6(30대): 3.5(40대): 3.5(50대) (anova유의도 0.047)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항상 연결된 느낌이 높음 (0.018) | |
| 물리적 만남 | ⑦ 친구 등과 물리적인 만남의 횟수가 더 많아진 느낌이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용량이 많을수록 물리적인 만남의 횟수 많음 5점 척도로 3.2(소량이용): 3.3(중저이용): 3.5(중상이용): 3.5(다량이용) (anova유의도 0.02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요도가 높을수록 물리적인 만남의 횟수 많음 5점 척도로 3.2(저중요도): 3.2(중하중요도): 3.5(중상중요도): 3.6(고중요도) (anova유의도 0.006)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령이 낮을수록 물리적인 만남의 횟수 많음 5점 척도로 3.5(10대): 3.5(20대): 3.4(30대): 3.2(40대): 3.2(50대) (anova유의도 0.047)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물리적인 만남의 횟수가 많음(0.07) |
| | ⑧ 틈새시간을 즉흥적인 만남으로 연결시킨다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요도가 높을수록 틈새시간의 활용 높음 5점 척도로 3.0(저중요도): 3.2(중하중요도): 3.2(중상중요도): 3.7(고중요도) (anova유의도 0.00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이 틈새시간의 활용 높음 5점 척도로 3.2(남): 3.4(여) (t-test유의도 0.02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령이 낮을수록 틈새시간의 활용 높음 5점 척도로 3.4(10대): 3.4(20대): 3.2(30대): 3.2(40대): 3.1(50대) (anova유의도 0.027)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틈새시간 활용이 높음 (0.011) |

1. 시공간의 미시적 조정

휴대전화의 사용은 이동중의 통신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시공간의 미시적 조정을 가능케 하였다. 특히, 이동 중인 두 개인이 통신을 통하여 약속시간이나 공간의 조정을 용이하게 하게 한다.

시공간의 미시적 조정 중 가장 대표적인 형태인 ‘만남과정의 유연화’가 어느 정도 나타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개개인의 약속 설정시 얼마나 유동적으로 시간과 공간이 확정되는지를 질문하였다.

사적인 만남과 공적인 만남을 각각 나누어 만남에 있어서 시간과 장소가 사전에 고정되어 확정되는지 휴대전화를 이용한 상호작용으로 조정을 해 나가는지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만남의 과정에서 29%가 시간과 장소를 모두 확정하지 않고 만남의 접점을 합의하여 나갔다. 사적만남의 과정은 36.1%(사적 만남의 과정에서 ②, ③, ④의 합계)가, 공적만남의 과정은 21.7%(공적 만남의 과정에서 ②, ③, ④의 합계)가 유동적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3-10〉 참조).

〈표 3-10〉 만남 과정의 유연화

| | 전체 만남 | 사적 만남 | 공적 만남 |
|-----------------|-------|-------|-------|
| ① 시간, 장소 확정 | 71.0% | 64.0% | 78.1% |
| ② 시간 확정, 장소 유동적 | 13.2% | 16.5% | 9.9% |
| ③ 장소 확정, 시간 유동적 | 9.7% | 11.7% | 7.6% |
| ④ 시간과 장소 모두 유동적 | 6.1% | 7.9% | 4.2% |

그리고 일반적인 사적 만남과 공적만남의 만남 과정을 합한 평균으로 일반적 만남에 있어서 만남 과정의 유연화율을 분석한 결과, 휴대전화 사용량에 의해 차이를 보이고 있다. 휴대전화 사용량이 많을수록 시공간적 조정이 더욱 많이 일어나 소량 이용그룹은 24.1%이나, 다량이용그룹은 34.4%로 시간과 공간 조정이 유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표 3-11〉 참조).

시공간의 유연화 도구로서 휴대전화의 이용이 아직 보편화되지는 않지만, 휴대인터넷, 텔레메틱스 등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이 발달하면 정보의 흐름 조정과 도로의 이용 등으로 ‘만남과정의 유연화’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3-11〉 만남과정의 유연화와 설명변수

| | 사용량 | 중요도 | 사회경제적 지표 | | |
|--|--|-----|----------|--|---|
| | | | 성별 | 연령 | 직업 |
| 만남과정의 유연화 비율 (100% 대비) (사적과정과 공적과정의 합계의 평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량이 많을수록 유동적 만남의 비 율이 커짐 - 유동적 만남 비율 24.1(소량이용): 26.2(중저이용): 31.2(중상이용): 34.4(다량이용): (anova유의도 0.001)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령이 낮을수록 (특히 20대) 유동 적 만남의 비율이 커짐 - 유동적 만남의 비율 31.0(10대): 33.1(20대): 29.8(30대): 28.2(40대): 21.9(50대) (anova유의도 0.008)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과 블루칼라집단 은 각각 34.0%, 32.9%로 다른 집단에 비해 유동적 만남의 비율이 크며 주부는 22.4%로 낮음(0.002) |

2. 다의적 장소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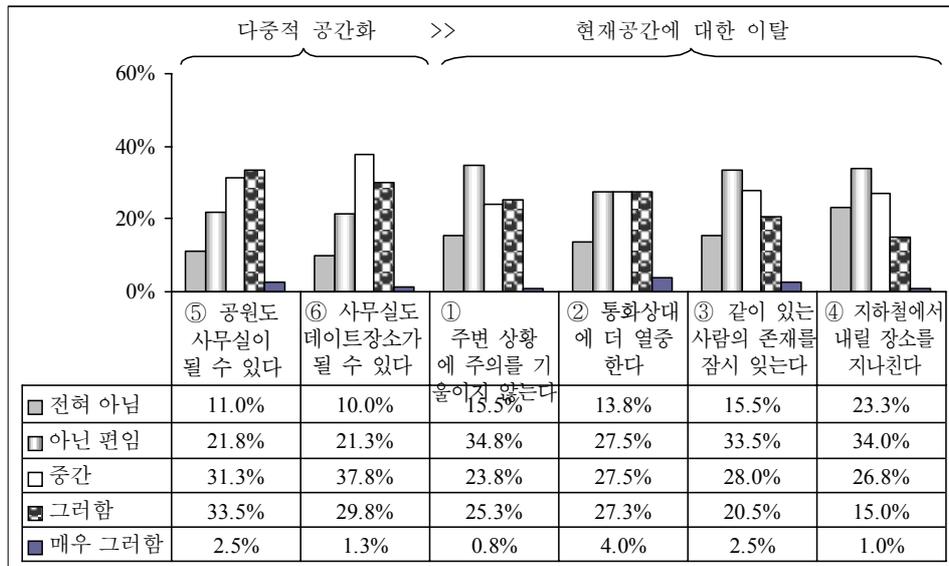
휴대전화의 사용으로 인해 동일한 장소에 있으면서도 상대방과의 통화에 몰입되어 “일시적 공간”의 형성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6가지 유형의 일시적 공간 경험 여부를 조사하였다. [그림 3-3]에서 보듯이, 6가지 문항 중에 앞의 네가지는 휴대전화에 몰입됨으로 인한 현재공간에 대한 이탈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이며, 나머지 두 문항은 이동중 연결성으로 인한 공간의 기능변화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전반적으로 일시적 공간의 경험정도는 높지 않았으며(16%~34%), 극단적인 형태인 하차오류가 가장 낮았고(16%), 공존자나 주변상황에 대한 분석, 통화 상대방에 대한 몰입으로 갈수록 보다 많은 사람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특정한 기능의

공간이 휴대전화로 또 다른 기능을 위한 공간으로 전환되는 경험은 좀 더 많은 응답자로부터 확인되었다. 하지만, [그림 3-2]의 ‘일시적 공간’의 유사질문에 비해 수긍하는 정도가 높진 않았는데, 이는 제시한 문항이 좀 더 구체적인 장소에 한정된 것으로 인해 나타난 차이로 해석된다.

주변상황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던가, 지하철에서 내릴 장소를 지나치는 등 현실의 존재공간을 의식하지 못한 경험에 대해서 각각 26.1%와 16.0%가 인정하였으나, 각각 50.3%와 57.3%가 되는 반수 이상의 사람들이 실재공간에 대한 현존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림 3-3] 휴대전화로 인한 다의적 장소성 경험



이중적 공간의 다른 한 축인 가상적인 인식공간에 대해서도 통화나 문자메세지 상대에 열중한다거나 현재 같이 있는 사람의 존재를 잠시 잊을 만큼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각각 31.3%와 23.0%이지만, 41.3%와 49.0%의 사람들이 가상공간으로 몰입하지는 않았다. 즉, 가상공간에 때때로 몰입하기도 하지만, 실재공간을 망각하

지 않고 가상공간에 참여함으로써 이중적, 혹은 다의적 장소성을 경험해 나간다.

그리고 공공장소의 공적업무공간화나 사적공간화에 대해서 각각 36.0%와 31.1%의 사람들이 경험하였다.

휴대전화를 통한 일시적 공간의 경험은 사용량이나 사회경제적 지표에 따른 차이 보다는 중요도에 따라 차이가 훨씬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6가지의 모든 유형의 ‘일시적 공간’ 경험에 있어 휴대전화를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일시적 공간에 대한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중요도그룹의 경우 좀 더 큰 차이를 보인다(〈표 3-12〉 참조).

고중요도그룹에서는 주변상황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며(65.6%), 지하철에서 내릴 장소를 지나치며(31.2%), 현재 같이 상대의 존재를 잠시 잊고(31.2%), 또 통화나 문자 상대에 열중하는(39.8%) 등 가상공간에 몰입하는 정도가 보다 광범위하게 나타난다. 반면, 저중요도그룹은 상기 네 항목에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21.8%, 26.1%, 18.3%, 15.7%에 그쳐 큰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휴대전화에 어느 정도의 가치를 부여하느냐는 것이 개인의 공간 인식과 새로운 공간 경험에 보다 유의미하게 관련됨을 시사한다.

휴대전화로 인한 ‘다의적 장소성’에 관한 경험도 사회경제적 지표와 관련하여서는 연령이 가장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특이한 점은 20대가 가장 높은 경험도를 보인다는 점이다. 중요도에 따라서는 저중요도그룹이 각각 33.1%, 27.9%에 불과한 반면, 고중요도그룹은 49.4%, 48.4%으로 나타나, 휴대전화의 중요도를 높게 평가할수록 필요할 시에는 공공장소나 업무공간을 사적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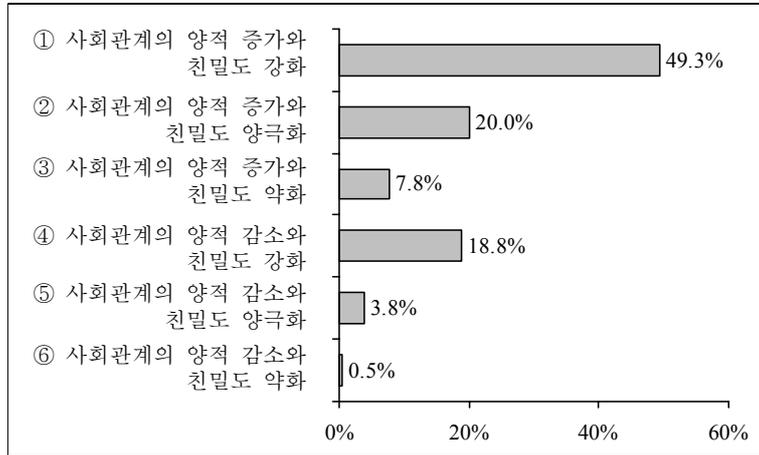
〈표 3-12〉 휴대전화로 인한 다의적 장소성 경험과 설명변수

| | 사용량 | 중요도 | 사회경제적 지표 | | | |
|-----------------|---------------------------|---------------------------------------|---|----|---|--------------------------------|
| | | | 성별 | 연령 | 직업 | |
| 다의적 장소성 | ⑤ 공원도 사무실이 될 수 있다 | - 사용량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만 특별한 양상을 보이는 것은 아님 | - 중요도가 높을수록 공적공간의 업무공간화 가능 - 5점척도로 2.8(저중요도): 2.8(중하중요도): 3.0(중상중요도): 3.3(고중요도) (anova유의도 0.001) | - | - | - |
| | ⑥ 사무실도 데이트장소가 될 수 있다 | - | - 중요도가 높을수록 공적공간의 사적공간화 가능 - 5점척도로 2.6(저중요도): 2.8(중하중요도): 2.9(중상중요도): 3.3(고중요도) (anova유의도 0.006) | - | - 20대 이하가 30대 이상과 차이를 보이며 사적공간화 높음 - 5점척도로 3.1(10대):3.2(20대): 2.9(30대):2.7(40대): 2.7(50대) (anova유의도 0.001) | - |
| 현재 공간에 대한 이탈과 약 | ① 주변 상황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 - | - 중요도가 높을수록 주변인식이 떨어짐 - 5점척도로 2.4(저중요도): 2.6(중하중요도): 2.6(중상중요도): 2.9(고중요도) (anova유의도 0.002) | - | - 20대 이하가 30대 이상과 차이를 보이며 주변인식이 떨어짐 - 5점척도로 2.8(10대):2.8(20대): 2.5(30대):2.5(40대): 2.5(50대) (anova유의도 0.080) | - 무직과 기타집단이 주변인식이 떨어짐(0.015) |
| | ② 통화나 문자 메시지 상대에 더 열중한다 | - | - 중요도가 높을수록 통화 상대에 대한 몰입이 높음 - 5점척도로 2.6(저중요도): 2.8(중하중요도): 2.8(중상중요도): 3.1(고중요도) (anova유의도 0.026) | - | - 20대 이하가 30대 이상과 차이를 보이며 통화상대에 더 몰입 - 5점척도로 3.0(10대):3.2(20대): 2.7(30대):2.5(40대): 2.5(50대) (anova유의도 0.000) | - 학생집단이 통화상대에 대한 몰입이 높음(0.001) |
| | ③ 현재 같이 있는 상대의 존재를 잠시 잊는다 | - | - 중요도가 높을수록 주변존재감이 낮음 - 5점척도로 2.4(저중요도): 2.5(중하중요도): 2.7(중상중요도): 2.9(고중요도) (anova유의도 0.004) | - | - | - |
| | ④ 지하철에서 내릴 장소를 지나친다 | - 사용량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만 특별한 양상을 보이는 것은 아님 | - 중요도가 높을수록 상황인식이 낮음 - 5점척도로 2.1(저중요도): 2.1(중하중요도): 2.3(중상중요도): 2.9(고중요도) (anova유의도 0.000)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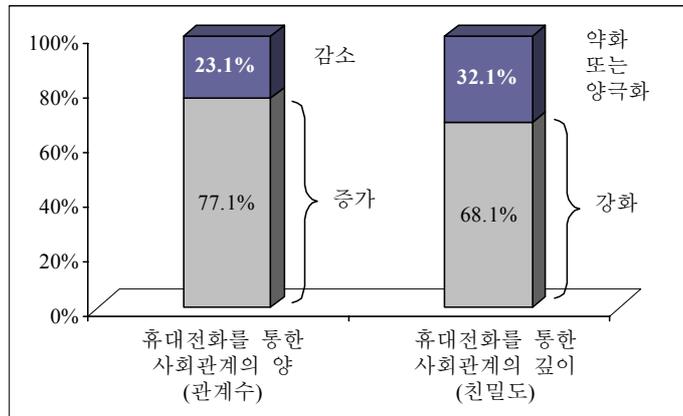
제 4 절 휴대전화와 사회관계의 변화

휴대전화와 사회공간 변화의 관계를 살펴보기에 앞서, 휴대전화의 사용으로 사회적 관계 전반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살펴보기로 하자. 휴대전화의 사용에 따른 사회적 관계의 변화를 사회적 관계의 양(관계수)과 깊이(친밀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림 3-4] 휴대전화와 사회관계성의 변화



[그림 3-5] 휴대전화를 통한 사회관계의 양과 깊이



휴대전화의 사용에 의한 사회관계의 양과 깊이의 변화를 조사해 본 결과, 사회관계의 양적 확대에 대해서는 77.1%(①과 ②와 ③의 합계)가 양적인 증가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사회관계의 깊이에 대해서는 68.1%(①과 ④의 합계)가 친밀도가 강화되었다고 하였다. 휴대전화가 사회관계를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더욱 확장시키고 향상시킨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그림 3-5) 참조.

하지만, 휴대전화로 인해 만나는 사람의 수는 늘어났으나, 일부 사람과는 친밀도가 강화된 반면 다른 사람과는 더 소원해졌다고 대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20%에 달해 휴대전화로 인한 사회관계의 양극화 현상도 적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시공을 극복할 수 있는 특성으로 인해 사회관계가 개인의 선호에 따라 선택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양적 팽창과 질적 집중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된다(그림 3-4) 참조.

사회적 관계의 변화에 대한 인식은 사용량이나 중요도, 그리고 사회경제적 지표에 의한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전반적으로 휴대전화를 통하여 사회관계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하였다고 인식하고 있다.

1. 모바일친구와의 항시적 연결성

휴대전화는 사회관계의 양과 깊이에만 영향을 준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상대방과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항상(恒常)적인 사회공간이 존재하는 듯, 사회적인 관계성을 더욱 긴밀하게 한다.

휴대전화를 통해서 함께 있는 것과 같이 공존감을 주는 사람들간에 형성된 사회 네트워크를 ‘모바일 친구’라 하여 하루에 1회 이상 통화나 문자를 주고받는 사람의 수와 이들 간의 상호작용량을 알아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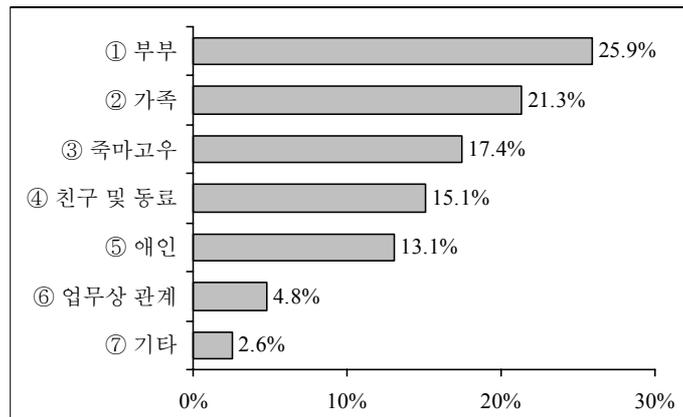
하루에 음성통화와 문자메세지를 1회 이상 교환하는 사람은 각각 3.0명과 1.6명으로, 하루에 휴대전화로 1회 이상 커뮤니케이션하는 사람은 4.6명이다. 그러나, 엄격히 이야기하면 하루에 1회 이상 음성통화도 하고 문자메세지도 하는 사람은 각각 음성통화 상대방과 문자메세지 상대방으로 계산되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하루에 1

회 이상 커뮤니케이션 하는 사람은 4.6명 이하일 것이다.

하루 1회 이상 커뮤니케이션하면서 항상 옆에 있는 듯한 ‘모바일 친구’의 존재는 평균 2명 정도로, 이 사람과 하루 평균 최대 4.4건(음성통화 2.4건, 문자메세지 2.0건)의 상호 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바일 친구’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은 전체의 11.8%이며, ‘모바일 친구’는 최대 6명까지 구성되고 있다. 그리고 ‘모바일 친구’와 하루 최대 52건 상호작용하기도 한다.

‘모바일 친구’와의 관계는 부부나 가족(47.2%)이 많으며, 다음으로 친구(32.5%), 애인(13.1%)인 것으로 조사되었다(그림 3-6 참조).

[그림 3-6] 모바일 친구와의 관계



‘모바일 친구’의 형성 및 ‘모바일 친구’와의 사회적 상호작용량은 중요도에 의해 차별적 경향을 보이지는 않았으며, 사용량과 연령에 따른 차이를 나타냈다. 하루평균 1회 이상 음성통화하는 상대자수가 소량이용그룹은 1.7명인데 반하여 다량이용그룹은 4.8명이고, 문자메세지 상대자수도 소량이용그룹은 0.7명이나 다량이용그룹은 3.0명이다. ‘모바일 친구’에 있어서 소량이용그룹은 1.5명인 반면, 이용정도가 높을수록 많아져서 다량이용그룹은 2.6명으로 나타났고, 이들의 통화 및 문자메세지 건수의 합도 소량이용그룹은 2.8건이나 다량이용그룹은 7.0건이다(표 3-13 참조).

〈표 3-13〉 모바일 친구의 형성과 설명변수

| | 사용량 | 중요도 | 사회경제적 지표 | | |
|------------------------------------|---|--|---|--|--|
| | | | 성별 | 연령 | 직업 |
| 하루 평균 1회 이상 음성통화하는 상대자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량이 많을수록 1회 이상 음성통화 상대자수 많음 - 1회이상 음성통화하는 상대자수 1.7(소량이용): 2.6(중저이용): 3.0(중상이용): 4.8(다량이용) (anova유의도 0.00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요도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만 특별한 양상을 보이는 것은 아님 - 고중요도 집단의 1회 이상 음성통화 상대자수 많음(0.011)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과 화이트칼라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1회 이상 음성통화 상대자수 많음(0.093) |
| 하루 평균 1회 이상 문자메세지 하는 상대자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량이 많을수록 1회 이상 문자메세지 상대자수 많음 - 1회이상 문자메세지하는 상대자수 0.7(소량이용): 1.3(중저이용): 1.6(중상이용): 3.0(다량이용) (anova유의도 0.00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요도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만 특별한 양상을 보이는 것은 아님 - 고중요도 집단의 1회 이상 문자메세지 상대자수 많음(0.00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의 1회 이상 문자메세지 상대자수 많음 - 1회이상 문자메세지하는 상대자수 1.5(남): 2.0(여) (anova유의도 0.00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령이 낮을수록 1회 이상 문자메세지 상대자수 많음 - 1회이상 문자메세지하는 상대자수 3.1(10대): 2.3(20대): 1.7(30대): 1.3(40대): 0.8(50대) (anova유의도 0.00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1회 이상 문자메세지 상대자수 많음(0.000) |
| 모바일 친구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량이 많을수록 모바일 친구수 많음 - 항상 옆에 있다고 느껴지는 상대자수 1.5(소량이용): 1.9(중저이용): 2.3(중상이용): 2.6(다량이용) (anova유의도 0.00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요도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만 특별한 양상을 보이는 것은 아님 - 고중요도 집단의 항상 옆에 있다고 느껴지는 사람수 많음(0.00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의 모바일 친구수 많음 - 항상 옆에 있다고 느껴지는 상대자수 1.9(남): 2.3(여) (anova유의도 0.00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령이 낮을수록 모바일 친구수 많음 - 항상 옆에 있다고 느껴지는 상대자수 2.3(10대): 2.3(20대): 1.9(30대): 1.9(40대): 1.8(50대) (anova유의도 0.02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모바일 친구수 많음(0.005) |

| | 사용량 | 중요도 | 사회경제적 지표 | | |
|----------------|--|-----|----------|--|--|
| | | | 성별 | 연령 | 직업 |
| 모바일 친구와의 상호작용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량이 많을수록 모바일 친구수 많음 - 항상 옆에 있는 사람과의 상호작용량 2.8(소량이용): 3.1(중저이용): 4.6(중상이용): 7.0(다량이용) (anova유의도 0.000)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령이 낮을수록 모바일 친구와의 상호작용량 많음 - 항상 옆에 있는 사람과의 상호작용량 8.7(10대): 5.7(20대): 3.5(30대): 3.5(40대) 2.5(50대) (anova유의도 0.00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모바일 친구와의 상호작용량 많음(0.000) |

2. 물리적 만남과 모바일 만남

휴대전화는 필요에 따라 즉각적인 연결을 제공하고 또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미시적 조정력을 제공하므로 물리적 만남의 가능성을 높여준다. 휴대전화를 사용하기 이전에는 생각을 하였어도 가능하지 않았던 만남, 짜투리 시간을 이용한 즉흥적 만남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이용자들은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사회관계를 더 풍요롭게 형성해 갈 수 있다.

휴대전화의 등장은 공간의 효율적 활용뿐만 아니라, 시간의 효율적 관리로 여유시간의 확보와 즉각적인 연결성으로 여유시간을 즉흥적 만남으로 연결시켜 사회관계의 긍정적인 효과를 높이고 있다. 개개인의 공적인 만남과 사적인 만남 중에서 즉흥적인 만남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해 보았다(그림 3-7) 참조).

친구나 친척 등 사적으로 이루어지는 물리적인 만남은 일주일 평균 3.4회로, 많게는 50회인 사람도 있으며, 사적인 만남이 전혀 없는 사람도 16명으로 전체의 4%이다. 그리고 약속과 다음 약속 사이에 잠시 여유가 생긴 틈새시간이나 사전에 약속이 정하여지지 않고 갑자기, 휴대전화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즉흥적인 만남은 일주일 평균 1.7회이다. 전체 사적 만남 대비 50.0%로 두 번의 만남 가운데 한번 이상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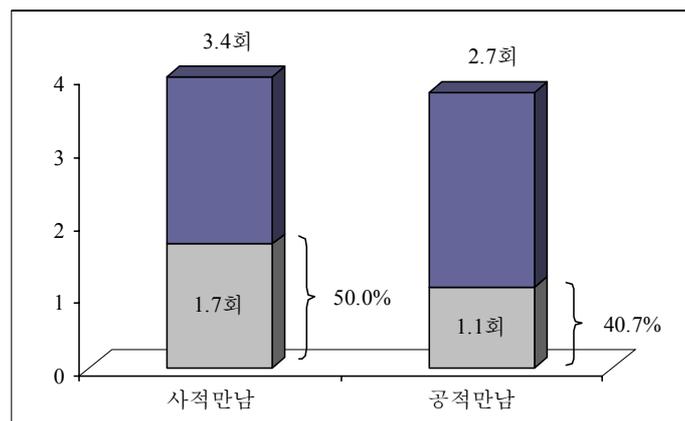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상으로는 관공서 일보기 등 공적으로 이루어지는 물리적인 만남은 일주일 평균 2.7회로, 많게는 40회인 사람도 있으며, 공적인 만남이 전혀 없는 사람은 전체의 27%인 108명이다. 즉흥적인 만남은 일주일 평균 1.1회이며, 전체 공적 만남 대비 40.7%로 나타났다.

공적인 만남에 있어서 즉흥적 만남의 비율이 사적만남 보다 낮게 나타난 것은 공적 업무라는 성격상 회의나 계약과 같은 일은 사전에 약속을 정하고 만나야 하는 것이 상대방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인 것으로 인식되어지고 있는 것에 기인한다고 생각한다.

즉흥적인 사적 만남은 커피숍이나 일반식당(38.9%), 그리고 집(20.1%)에서의 만남이 주를 이루며, 쇼핑센터(8.2%)와 도로나 공원(7.8%) 등의 개방적이며 다기능적인 공간에서의 만남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으로는 사무실에서가 40.1%, 그리고 커피숍이 26.1%이며 도로나 공원에서도 7.7%의 만남이 이루어진다.

[그림 3-7] 일반적인 만남과 즉흥적 만남



공적인 만남의 횟수와 사적인 만남의 횟수를 합한 전체 만남은 일주일 평균 6.1회이고 그 가운데 즉흥적 만남은 2.7회로, 일반적 만남 가운데 즉흥적 만남의 비율이

44.3%이어서 두 번 가운데 한번 정도는 즉흥적으로 만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4〉 휴대전화로 인한 물리적인 만남의 확대와 설명변수

| | 사용량 | 중요도 | 사회경제적 지표 | | |
|---------------------------------|---|--|---|---|----|
| | | | 성별 | 연령 | 직업 |
| 전체 만남 횟수 (사적만남과 공적만남의 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량이 많을수록 전체 만남의 횟수 많음 - 전체 만남의 비율이 4.2(소량이용): 5.4(중저이용): 7.0(중상이용): 8.0(다량이용) (anova유의도 0.000)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성의 전체 만남의 횟수가 많음 - 전체 만남의 횟수 6.8(남): 5.3(여) (t-test유의도 0.005) | - | - |
| 즉흥적 만남 횟수 (사적만남과 공적만남의 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량이 많을수록 즉흥적 만남의 횟수 많음 - 즉흥적인 만남의 비율이 1.8(소량이용): 2.2(중저이용): 3.1(중상이용): 3.9(다량이용) (anova유의도 0.000) | - | - | - | - |
| 전체 만남 대비 즉흥적 만남 비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량이 많을수록 즉흥적 만남의 횟수 많음 - 전체 만남의 비율이 46.5(소량이용): 52.0(중저이용): 52.0(중상이용): 69.3(다량이용) (anova유의도 0.077)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요도가 높을수록 전체 즉흥적 만남 비율이 높음 - 즉흥적인 만남의 비율이 46.0(저중요도): 44.0(중저중요도): 50.9(중상중요도): 69.6(고중요도) (anova유의도 0.000)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대가 즉흥적 만남 비율이 높음 - 즉흥적인 만남의 비율이 54.4(10대): 61.1(20대): 52.2(30대): 50.1(40대): 42.6(50대) (anova유의도 0.019) | - |

휴대전화로 인하여 즉흥적 생활양식이 보편화되어 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적어도 만남에 있어서는 즉흥적 만남의 생활양식이 전체 만남의 생활양식에 있어서 절반이상으로 확대되었다.

휴대전화의 사용으로 즉흥적 만남의 생활양식의 보편화와 더불어 물리적인 만남 또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일반적인 만남이 휴대전화 사용량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소량이용그룹은 일주일 평균 4.2회이나, 휴대전화를 많이 사용할수록 만남의 비율도 증가하여 다량이용그룹은 8.0회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흥적인 만남의 횟수도 휴대전화 사용량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소량이용그룹은 1.8회인 반면, 다량이용그룹은 3.9회이다.

다시 말해, 상호간의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휴대전화는 물리적인 만남을 대신함으로써 직접적인 만남의 기회를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휴대전화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이 계기가 되어 물리적인 만남의 기회를 증가시키면서 물리적인 만남을 확대,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휴대전화와 물리적 만남 간의 인과관계는 일방적으로 규정하기 어렵다. 휴대전화의 사용으로 사회적 관계가 확대되었다고 할 수도 있지만, 역으로 사회적 관계가 넓은 사람이 휴대전화를 더 사용하게 되었다는 설명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만남 대비 휴대전화를 통한 즉흥적인 만남의 비율은 사용량과 중요도, 연령에 따른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저중요도그룹은 46.0%인데 비해, 고중요도그룹의 비율은 69.6%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3-14〉 참조).

제 5 절 휴대전화와 공적공간의 의미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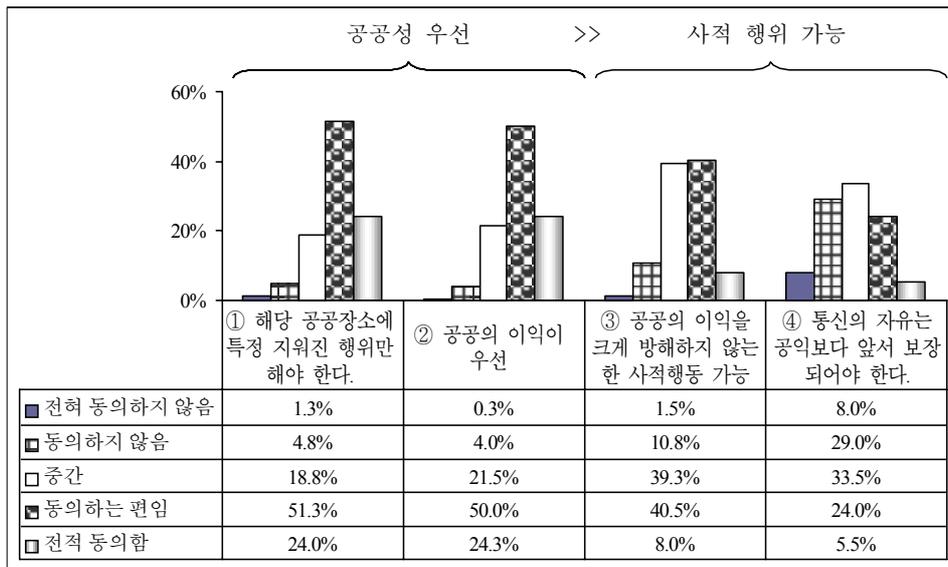
휴대전화에 의해 공적공간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였는지, 공적공간에서 가능한 행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기 이전에 공적공간이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공적공간은 불특정한 사람들이 특정 혹은 불특정한 목적으로 모여서 공공적 성격을 띄는 공간이라 한다. 그러면, 현대의 사람들은 공공장소에서의 공익

과 사익, 방해받지 않을 권리와 통신의 자유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공공장소에 대해서 75.3%가 공공장소의 특성에 따른 특정한 행위를 해야 한다고 여기며 74.3%가 공공의 이익이 우선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48.5%가 공공의 이익을 방해하지 않는 한 사적 행동이 가능하다고도 여기며, 통신의 자유가 공익보다 보장되어야 한다는데 29.5%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공익은 우선되어야 하되 공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적인 통신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으로 분석된다(그림 3-8) 참조.

[그림 3-8] 공공장소에 대한 인식



공공장소에 대한 인식은 사용량에 따른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중요도에 따라서는 휴대전화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룹이 장소 특성적 행위를 해야 한다는 고정성에서 벗어나 통신의 자유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저중요도그룹은 해당장소에 특정지워진 행위만 해야한다는데 80.9%나 동의하고 통신의 자유가 공익보다는 앞서 보장되어야 한다는데 24.4%만 동의하였으나, 고중요도그룹

공공장소에서의 공간한정적 행위에 대해서는 연령에 따른 유의미성이 나타났는데, 10대는 62.9%가, 20대는 67.7%가, 30대는 76.0%가, 40대는 74.4%가, 그리고 50대 이상은 91.6%가 장소특성별 특정행위만 하여야 한다는데 동의하였다. 50대 이상은 대부분이 공간에 정하여진 행위만을 하여야 한다고 하는 반면, 세대가 낮을수록 공간에 대한 고정적 시각에서 벗어나 꼭 특정적 행위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장소에서 공공의 이익이 우선해야 한다는데 대해서는 사용량이나 중요도, 그리고 성별이나 연령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대체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통신의 자유는 성별로는 남성들이, 직업별로는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의 동의정도가 다른 직업집단에 비해 높았다.

1. 공적공간의 사사회

가. 공적공간에서의 휴대전화 수신행태

휴대전화의 사용에 따른 공적공간의 사사회를 파악하기 위해 두가지를 조사하였다. 하나는 공적공간의 공공적 성격에 대한 인식이며 다른 하나는 공적공간에서의 휴대전화 수신행태이다.

이 분석에 있어서 휴대전화의 수신행태는 Plant(2001;16)가 이야기한 휴대전화 사용행태인 ‘①자리 피하기(flight), ②전화하는 동안 잠시 대화 중단하기(suspension), ③상대방을 무시하고 그냥 전화받기(persistence)’를 보다 세분하여 ‘①자유롭게 통화, ②주위를 의식하면서 조심스럽게 계속 통화, ③주요 통화인지 확인 후 최소통화, ④장소를 이동하여 통화, ⑤연결 후 간단통화 (‘관람중입니다’하면서 바로 끊음), ⑥확인만 하며 통화는 하지 않음, ⑦꺼둠’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공공장소의 구분은 공간의 개폐성(내외부성)과 행위의 특성에 따라 <표 3-16>에서와 같이 구분하여 조사되었다. 이러한 구분은 공간에 대한 인식조사는 물론 휴대전화 수신행태 조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표 3-16〉 공간특성에 따른 장소 구분¹²⁾

| | 폐쇄적 공간 (내부공간) | 개방적 공간 (외부공간) |
|--------------|---|--|
| 한정적 행위 공간 | ③ 강의실/회의실 ④ 도서관 ⑤ 극장/공연장 | ⑩ 미술관/박물관 ⑪ 전시장/대중집회장 ⑫ 경기장 |
| 다양한 행위 공간 | ⑥ 은행 병원 등 관공서 ⑦ 찜질방/PC방 ⑧ 커피숍/일반식당 ⑨ 지하철 버스 등 교통수단 내 | ⑬ 쇼핑센터 ⑭ 대합실/터미널/건물로비 ⑮ 도로/공원/광장 |

※ ① 집, ② 사무실은 비교대상이 되는 기준공간으로 설정하여 함께 질의됨

공간적 구분을 염두에 두고, 각 공간에 대한 인식과 그 공간에서의 휴대전화의 관계성을 분석한 결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전화 수신행태가 공간특성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며, 특히나 한정적 행위공간과 다양한 행위공간으로 나뉘어 차별적 양상을 보였다. 한정적 행위공간으로 인식된 공간에서는 휴대전화의 사용을 자제하며, 개방적 행위공간으로 인식된 공간에서는 자유로운 통화를 하는 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그림 3-9) 참조).

회의실과 도서관, 공연장 등의 한정적 행위가 요구되는 폐쇄적 공간은 공적공간이라는 인식이 일반적이었으며, 각각 61.3%, 55.0%, 64.5%가 휴대전화를 받지 않거나 꺼두는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물관, 전시장, 경기장 등의 한정적 행위가 요구되는 개방적인 공간에서는 32.6%, 34.8%, 25.8%가 휴대전화를 받지 않거나 꺼두며, 36.6%, 37.3%, 34.1%가 다른 장소를 이용하거나 ‘지금은 관람중입니다’라는 간단한

12) 사적공간인지 공적공간인지에 대한 공간구분으로 요인분석한 결과, 공간의 개폐성(내외부성)에 상관없이 한정적 행위공간과 다양한 행위 공간으로 분류되었다. 한정적 행위공간은 ③강의실/회의실, ④도서관, ⑤극장/공연장, ⑩미술관/박물관, ⑪전시장/대중집회장, ⑫경기장이며, 다양한 행위 공간은 ⑥은행 병원 등 관공서, ⑦찜질방/PC방, ⑧커피숍/일반식당, ⑨지하철 버스 등 교통수단 내, ⑬쇼핑센터, ⑭대합실/터미널/건물로비, ⑮도로/공원/광장이다.

통화를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는 다르게 관공서, PC방, 일반식당, 교통수단 등의 다양한 행위가 가능한 폐쇄적 공간은 공적공간이라는 인식이 그리 높지 않으며, 이들은 오히려 자유롭게 통화를 한다는 응답이 각각 32.0%, 47.3%, 76.8%, 72.6%로 나타났다. 일반식당과 교통수단은 자유통화를 하는 편이나, 관공서와 PC방은 주변상황에 따라 각각 38.6%와 28.3%는 간단한 통화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쇼핑센터, 대합실 등의 건물로비, 도로나 공원 등의 다양한 행위가 가능한 개방적 공간에서는 각각 72.3%, 80.8%, 92.6%의 응답자들이 통화를 자유롭게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3-17〉 참조).

〈표 3-17〉 공간인식과 그 특성에 따른 수신행태와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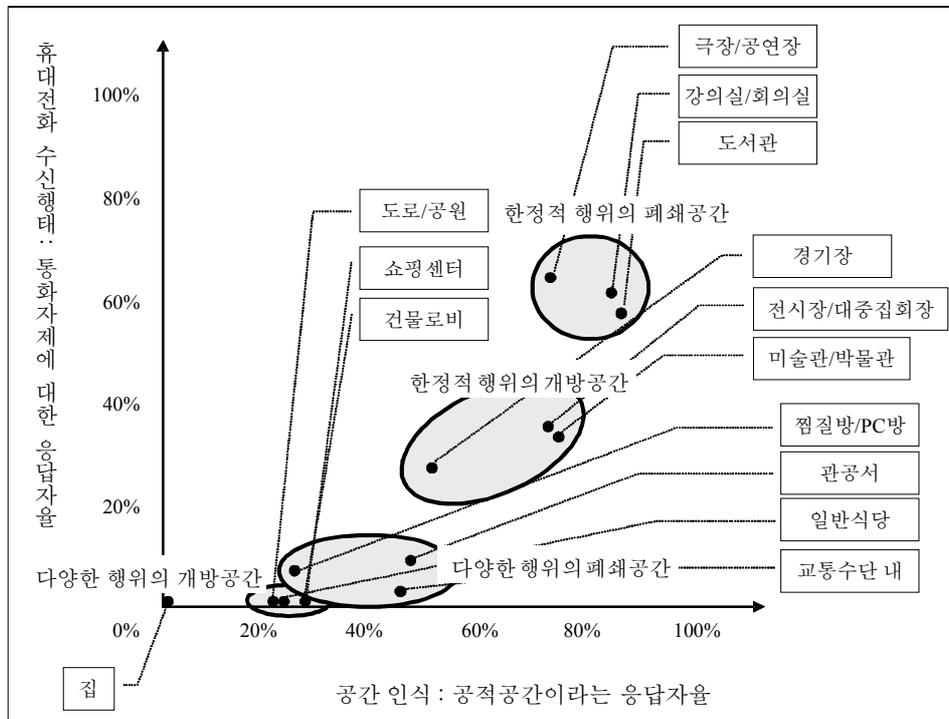
| 공간 특성 | 개별공간 | 공적공간 인식과 수신행태의 상관관계 분석 | 공적공간 인식 (응답자율) | 휴대전화 수신행태 | |
|--------------|-----------|------------------------|----------------|-------------|-------------|
| | | | | 자유통화 (응답자율) | 통화자제 (응답자율) |
| 기준공간 | 집 | 0.110* | 2.0% | 96.0% | 0.5% |
| | 사무실 | 0.227** | 74.5% | 52.0% | 9.8% |
| 한정적 행위의 폐쇄공간 | 강의실/회의실 | 0.318** | 84.5% | 7.3% | 61.3% |
| | 도서관 | 0.310** | 84.8% | 6.3% | 55.0% |
| | 극장/공연장 | 0.244** | 73.0% | 6.5% | 64.5% |
| 한정적 행위의 개방공간 | 미술관/박물관 | 0.281** | 76.5% | 13.5% | 32.5% |
| | 전시장/대중집회장 | 0.400** | 74.3% | 12.5% | 34.8% |
| | 경기장 | 0.417** | 55.5% | 24.3% | 25.8% |
| 다양한 행위의 폐쇄공간 | 관공서 | 0.180** | 48.3% | 32.0% | 9.3% |
| | 찜질방/PC방 | 0.040 | 25.3% | 47.3% | 6.8% |
| | 커피숍/일반식당 | 0.248** | 23.8% | 76.8% | 0.3% |
| | 교통수단 내 | 0.203** | 44.8% | 72.5% | 1.8% |
| 다양한 행위의 개방공간 | 쇼핑센터 | 0.227** | 26.0% | 72.3% | 0.5% |
| | 대합실/건물로비 | 0.178** | 25.8% | 80.8% | 0.5% |
| | 도로/공원/광장 | 0.182** | 21.8% | 92.5% | 0.8% |

* : 상관계수 0.05수준(양쪽)에서 유의

** : 상관계수 0.01수준(양쪽)에서 유의

다양한 행위공간과 같이, 공적공간이라는 인식이 높지 않은 것은 사적공간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에 대한 공적인 정도가 높지 않음을 의미한다.¹³⁾ 공적공간의 공공성 인식에 따라서 공적 규범의 허용정도가 차이를 보이며, 휴대전화의 수신행태도 공간의 공적인 정도에 따라서 통화를 자제하거나 자유롭게 통화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3-9) 공간인식과 그 특성에 따른 수신행태



공간인식과 공간특성에 따른 휴대전화 수신행태는 사회경제적 지표에 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사용량과 중요도에 의해서도 특별한 양상을 보이는 영향을 받지 않았다.

13) 공적공간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아 반공적공간이라고도 사용하겠다.

한정적 행위가 요구되는 폐쇄공간에 대해서는 상관없이 대부분이 공적공간이라는데 수긍하며, 통화를 자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중요도에 따라서는 고중요도 그룹이 저중요도그룹보다 통화를 자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3-18〉 공적공간 인식과 설명변수

| | 사용량 | 중요도 | 사회경제적 지표 | | |
|--------------|--|--|----------|----|----|
| | | | 성별 | 연령 | 직업 |
| 한정적 행위의 폐쇄공간 | — | — 중요도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만 특별한 양상을 보이는 것은 아님 | — | — | — |
| 한정적 행위의 개방공간 | — 사용량이 많을수록 공적공간 인식 — 한정적 행위의 개방공간의 공적공간 인식 2.8(소량이용): 3.0(중저이용): 3.0(중상이용): 3.2(다량이용) (anova유의도 0.012) | — 중요도가 높을수록 공적공간 인식 — 한정적 행위의 개방공간의 공적공간 인식 2.9(저중요도): 2.9(중저중요도): 3.1(중상중요도): 3.2(고중요도) (anova유의도 0.020) | — | — | — |
| 다양한 행위의 폐쇄공간 | — | — | — | — | — |
| 다양한 행위의 개방공간 | — 사용량이 많을수록 공적공간 인식 — 다양한 행위의 개방공간의 공적공간 인식 2.6(소량이용): 2.6(중저이용): 2.7(중상이용): 2.9(다량이용) (anova유의도 0.055) | — 중요도가 높을수록 공적공간 인식 — 다양한 행위의 개방공간의 공적공간 인식 2.5(저중요도): 2.6(중저중요도): 2.8(중상중요도): 3.0(고중요도) (anova유의도 0.001) | — | — | — |

한정적 행위가 요구되는 개방공간은 사용량이 많은 그룹일수록,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룹일수록 공적공간이라는 인식이 높았다. 그러나, 휴대전화 통화자제에 있어서는 사용량과 중요도에 따른 차별적 양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다양한 행위가 요구되는 폐쇄공간에서는 공간인식과 휴대전화 수신행태 모두 변수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양한 행위가 요구되는 개방공간 또한 사용량이 많은 그룹일수록,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룹일수록 높았다. 그러나, 휴대전화 수신행태에서는 차별적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

〈표 3-19〉 공간특성별 휴대전화 이용행태와 설명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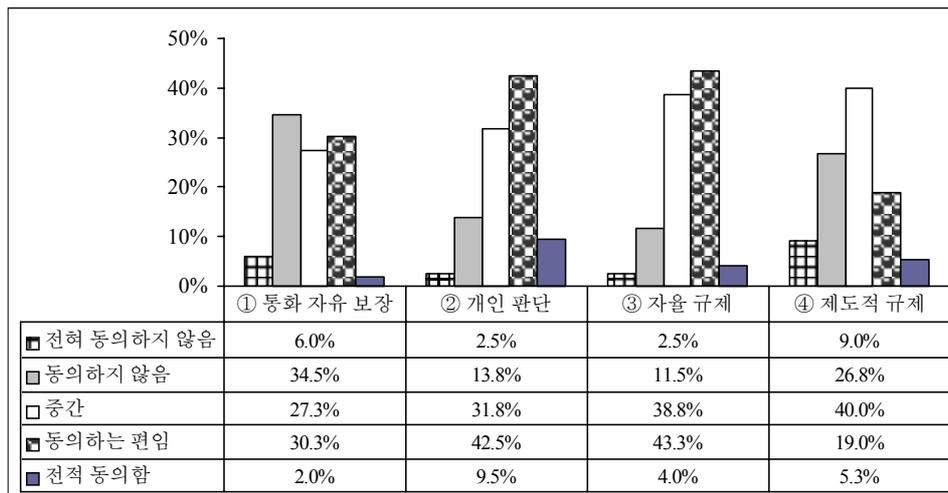
| | 사용량 | 중요도 | 사회경제적 지표 | | |
|--------------|-----|---|----------|----|----|
| | | | 성별 | 연령 | 직업 |
| 한정적 행위의 폐쇄공간 | - | - 중요도가 높을수록 자유통화 - 한정적 행위의 폐쇄공간에서의 휴대전화 이용행태 5.6(저중요도): 5.6(중저중요도): 5.5(중상중요도): 4.7(고중요도) (anova유의도 0.000) | - | - | - |
| 한정적 행위의 개방공간 | - | - 중요도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만 특별한 양상을 보이는 것은 아님 | - | - | - |
| 다양한 행위의 폐쇄공간 | - | - | - | - | - |
| 다양한 행위의 개방공간 | - | - | - | - | - |

나. 공적공간에서의 휴대전화 규제

휴대전화의 수신에 있어서 때로는 장소적 특성 및 공간 상황에 대한 고려없이 무분별하게 통화행위가 발생함으로써 일부에서는 ‘공적공간의 사사화’로 공적 규범이 파괴된다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공간에 대한 규제방법에 있어서는 (그림 3-10)에서와 같이 다양한 방식이 검토되고 있으며 다양한 의견들로 ‘합의의 과정’이 요구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공중폐해가 심각한 공연장이나 병원 등에서 제한적 사용을 강조하며 금연표지처럼 휴대전화 사용금지를 일반화하고 있고, 프랑스에서도 휴대전화 규제 관련 법안의 제정이 추진 중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또한 미국 뉴욕시에서도 2003년도부터 극장, 공연장, 콘서트장, 강의실, 박물관, 도서관, 미술 갤러리 등 공공 장소에서 휴대전화 버튼을 누르거나 통화를 하거나 벨소리가 한번이라도 울리는 사람에게는 벌금 50달러를 내야 하는 ‘공공장소에서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하여 실시하고 있다(Hackersnews, 2003. 2. 14).

[그림 3-10] 휴대전화 규제방식



그런데, 휴대전화의 사용이 일상화되고 활용성이 높아질수록 휴대전화로 인한 공적공간의 공공성이 파괴될 것이라는 일부의 우려는 다시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휴대전화 규제방식에 대한 분석결과에서 휴대전화를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제도적 규제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20〉 참조). 현재의 공간에 따른 휴대전화 수신 혼란은 과도기적 현상으로 휴대전화가 더욱 일상화되고 공적공간에서의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일반적인 활용행태가 정착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가능하게 한다.

〈표 3-20〉 휴대전화 규제방식과 설명변수

| | 사용량 | 중요도 | 사회경제적 지표 | | |
|--|--|---|--|---|---|
| | | | 성별 | 연령 | 직업 |
| ① 공공장소에서는 최대한 통화의 자유를 보장하여야 한다 (통화자유) | - | - | - | - | - 학생과 무직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통화자유에 대한 요구강함 (0.055) |
| ② 개개인의 판단과 행동에 맡겨야 한다 (개인판단) | - | - | - | - | - |
| ③ 시민단체와 이용자가 나름대로의 규율을 만들어 자율적으로 규제하여야 한다 (자율규제) | - | - | - 여성이 자율규제에 대해 더욱 찬성 - 자율규제 3.3(남): 3.5(여) (anova유의도 0.006) | - | - |
| ④ 장소 및 상황에 따라 법률로서 금지하여야 한다 (법률규제) | - 사용량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만 특별한 양상을 보이는 것은 아님 | - 중요도가 높을수록 상황에 따른 휴대전화 사용의 제도적 규제에 찬성 - 제도적 규제 2.7(저중요도): 2.7(중저중요도): 2.9(중상중요도): 3.1(고중요도) (anova유의도0.011) | - | - 연령이 높을수록 휴대전화 사용의 제도적 규제에 찬성 - 제도적규제 2.7(10대): 2.8(20대): 2.8(30대): 3.1(40대): 2.7(50대) (anova유의도 0.077) | - |

공공장소의 유형별 규제방식에 있어서는 한정적 행위공간에서는 휴대전화 통화의 규제가 요구되고 있으며, 시민단체나 이용자의 자율적 규제를 필요로 한다. 다양한 행위공간에서는 규제보다는 개인의 판단에 따른 통화의 자유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간별 규제방식에 대해서 사용량과 중요도, 그리고 사회경제적 지표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표 3-21〉 공간특성별 휴대전화 통화의 규제방식

| | 통화 자유 | 개인 판단 | 자율 규제 | 법률 규제 |
|------------------------|-------|-------|-------|-------|
| 한정적 행위의 폐쇄공간(강의실/회의실) | 0.3 | 26.0 | 64.8 | 9.0 |
| 한정적 행위의 개방공간(전시장/집회장) | 0.8 | 35.3 | 58.8 | 5.3 |
| 다양한 행위의 폐쇄공간(지하철/버스 내) | 16.0 | 61.5 | 21.0 | 1.5 |
| 다양한 행위의 개방공간(도로/공원 등) | 46.8 | 42.8 | 10.5 | 0.0 |

2. 사회반응적 공간

가. 모바일 커뮤니케이션과 공적공간의 미래

휴대전화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사회성과 생활양식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더욱 다기능해지는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통신서비스의 발달로 향후에는 더 큰 사회경제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어지고 있다. 휴대전화를 포함한 모바일 통신서비스의 증대로 예견되는 공간의 다중적 활용과 이용의 효율화에 대한 기대, 그리고 공적공간시설 이용의 효율화, 공적공간으로의 관심을 통하여 공적공간이 지녔던 역할과 중요성이 과연 쇠퇴하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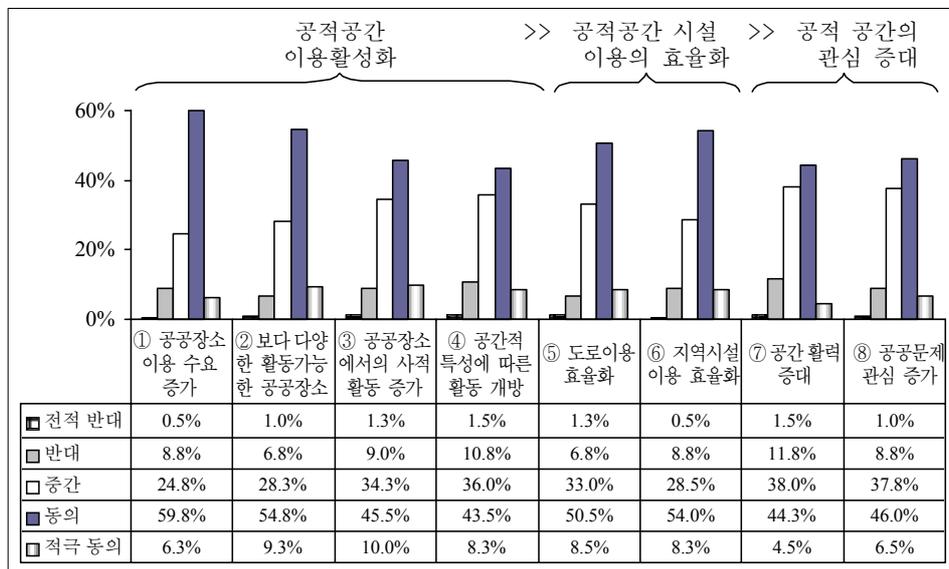
전반적으로 미래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의 발달로 공적공간의 수요와 활용 및 활력이 증대될 것이라는 절반이상이 동의하였다. 이는 휴대전화의 등장으로 공적공간의 역할과 중요성이 감소하리라는 일반적인 추측과는 반대되는 결과이다.

특히나 공공장소 이용 수요가 증가하고(66.1%) 공간 다중성이 확대되리라는(64.1%) 기대가 높으며, 다음으로 도로이용(59.0%)과 지역시설이용(62.3%) 등 공적공간시설

이용이 효율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공공문제(52.5%)와 공간 활력(48.8%) 또한 증대될 것이라는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적공간에 대한 의미와 역할은 사용량이나 중요도, 사회경제적 지표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고, ‘사회반응적 공간’의 형성으로 더욱 중요해지리라 기대되고 있다.

[그림 3-11]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발달에 따른 공적공간의 활용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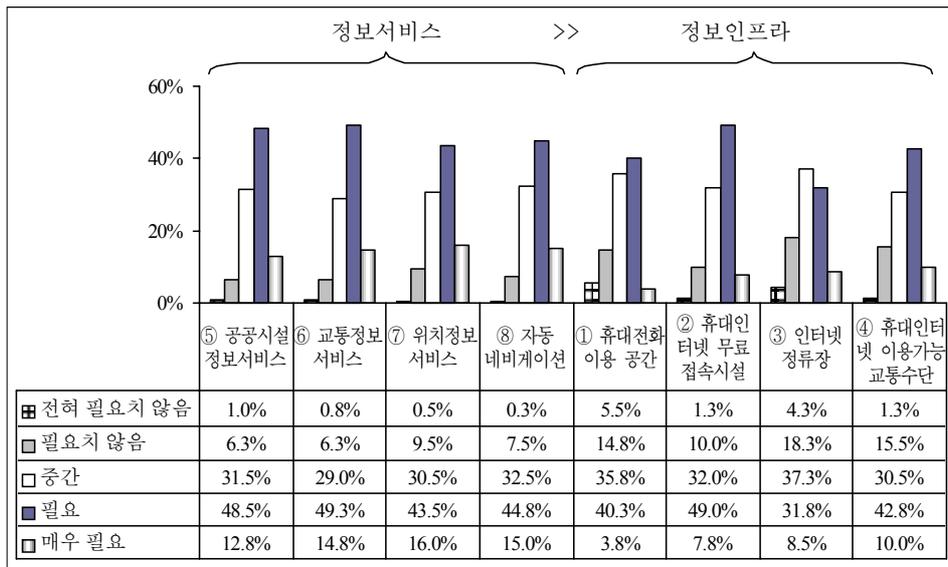


나. 미래의 공적공간을 위한 인프라 및 서비스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의 발달로 요구되어지는 정보인프라나 정보서비스는 없는 것인지 살펴보았다.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발전하면서 예상하지 못하였던 새로운 인프라나 서비스가 제공되기도 하겠지만, 현재 개발되고 있는 기술로 정보서비스와 정보인프라에 대한 기대를 질문하였다. 그 결과, 공공시설 정보서비스(61.3%)와 교통정보서비스(64.1%), 위치정보서비스(59.5%), 자동네비게이션(59.8%) 등의 정보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정보인프라보다 조금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정류장(40.3%)과 휴대전화 이용공간(44.1%)은 낮은 수요정도를 보였다.

미래 공적공간 인프라 및 서비스는 사용량이나 중요도, 성별에 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휴대인터넷 무료 접속시설과 접속시설이 설치된 대중교통수단에 대해서는 연령이 낮을수록 요구도가 높았다. 그리고, 학생집단에 있어서는 휴대전화 이용공간이나 휴대인터넷 무료접속시설과 인터넷정류장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나 학교캠퍼스를 중심으로 이들 공간의 설치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표 3-22) 참조).

(그림 3-12) 미래의 공적공간 인프라 및 서비스



〈표 3-22〉 미래의 공적공간 인프라 및 서비스와 설명변수

| | 사용량 | 중요도 | 사회경제적 지표 | | |
|-------|--------------------------|-----|----------|----|--|
| | | | 성별 | 연령 | 직업 |
| 정보서비스 | ⑤ 공공시설 정보서비스 | - | - | - | - |
| | ⑥ 교통 정보서비스 | - | - | - | - |
| | ⑦ 공공장소에서의 위치정보서비스 | - | - | - | - |
| | ⑧ 자동 네비게이션 | - | - | - | - |
| 정보인프라 | ① 휴대전화이용 공간 | - | - | - | - 학생이 다른 집단에 비해 휴대전화 이용공간 요구(0.049) |
| | ② 휴대인터넷 무료 접속 시설 | - | - | - | - 연령이 낮을수록 무료접속시설 요구 높음 - 휴대인터넷 접속시설 3.7(10대): 3.7(20대): 3.6(30대): 3.4(40대): 3.2(50대) (anova유의도 0.000) |
| | ③ 인터넷 이용가능한 인터넷정류장 | - | - | - | - 학생과 화이트칼라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인터넷정류장 요구높음(0.096) |
| | ④ 휴대인터넷 이용 시설이 있는 대중교통수단 | - | - | - | - 연령이 낮을수록 휴대인터넷 이용가능한 대중교통수단 요구 높음 - 휴대인터넷 가능 교통시설 3.7(10대): 3.6(20대): 3.5(30대): 3.5(40대): 3.1(50대) (anova유의도 0.006) |

제 4 장 휴대전화에 의한 공간활용 심층분석

제 1 절 조사개요

1. 조사의 목적과 기준

이번 장에서는 휴대전화 이용에 의한 공간 활용에 대해 보다 심층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10대에서 40대 남녀 32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앞장의 설문조사가 일반적인 차원에서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에 의한 공간 활용 현상을 살펴보고자 한다면, 이번 장의 심층 인터뷰 조사는 보다 경험적인 차원에서 이 같은 현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즉, 휴대전화 이용에 따른 공간 활용 과정에 대한 일반적인 데이터를 산출하기 보다는 개인이 휴대전화를 통해 공간에 대한 경험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더 미시적인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심층 인터뷰를 통해 개인의 공간 인식이나 사회공간의 (재)구성 혹은 공적공간의 활용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알아보고, 또한 세대, 성, 학력, 직업 등 사회경제적 지위가 다른 개인이 실제 삶 속에서 휴대전화를 통해 공간에 대한 경험을 어떻게 다양하게 하고 있는지를 포착해 보고자 한다.

심층 인터뷰 조사에서 첫 번째 연구문제인 휴대전화 이용으로 인한 공간인식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우선, 휴대전화가 개인의 일상생활 속에 커뮤니케이션 미디어로 차지하는 역할 혹은 상징성을 알아보고, 둘째, 휴대전화를 통해 물리적 형태의 장소에 다양한 사회공간이 접합되면서 이용자가 갖는 지역 환경(장소)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주목해 보며, 셋째, 만남의 장소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대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개인이 일상생활 속에 인식하는 휴대전화의 상징성, 휴대전화를 통해 장소의 물리적 경계를 넘나들며 변화하는 지역 환경에 대한 인식, 그리고 만남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과정 속에서 드러난 만남의 장소에 대한 인식 등을

살펴보면서, 휴대전화 이용에 따른 공간인식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경험적으로 가늠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두 번째 연구 문제인 휴대전화 이용으로 인한 사회공간의 재구성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 첫째, 물리적으로 옆에 있지 않아도 휴대전화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마치 항상 같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들, 즉 모바일 친구(intimate community)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알아보고, 둘째, 면대면 모임에서 휴대전화 이용으로 구성되는 사회공간의 성격에 대해 주목해보고자 한다. 휴대전화를 통한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통해 사회공간이 어떻게 마련되고 구성되는지, 또한 이러한 사회공간이 갖는 의미와 특성이 무엇인지의 문제를 휴대전화 이용으로 인한 모바일 친구 및 사회공간의 다중성에 초점을 맞추어 경험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세 번째 연구 문제인 휴대전화 이용으로 인한 공적공간의 변화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 첫째, 공공장소에서 개인들의 구체적인 휴대전화 사용 경험을 알아보고, 둘째, 휴대전화 이용에 관한 자율적 규범 형성 과정을 주목해보고자 한다. ‘모두에게 공유된(common to all)’ 공공장소의 공공적 성격에 대한 인식에 따라 개인은 자신의 휴대전화 사용을 어떻게 조절하는지, 그리고 공적공간에서 자신 혹은 주변 타자의 휴대전화 이용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규율의 필요성을 느끼는지의 문제를 살펴보면서, 공적공간의 공공성에 대한 휴대전화 이용자들의 대처 방식과 이용 규범 형성의 과정을 경험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구체적인 연구 문제를 통해 휴대전화가 개인의 공간 경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 내용과 특성에 대한 경험적 사례를 알아보고자 한다.

2. 조사내용과 방법

본 연구의 심층 인터뷰 조사를 위해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며 휴대전화를 이용하고 있는 10대에서 40대 남녀 32명을 인터뷰 대상으로 삼았다(〈표 4-1〉 참조). 10대 여자 4명(고등학생 4명), 10대 남자 4명(고등학생 4명), 20대 여자 4명(대학생 2명, 대학원생 2), 20대 남자 4명(대학생 4명), 30대 여자 4명(주부 2명, 교사 1명, 대학원

생 1명), 30대 남자 4명(사무직 1명, 취업준비생 2명, 대학원생 1명), 40대 여자 4명(주부 3명, 영업직 1명), 40대 남자(사무직 4명) 등을 8개의 성별 연령별 집단 총 32명에 대해 집단별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했다. 이들에 대한 집단별 심층인터뷰에 앞서, 본 인터뷰 조사 대상자와는 별도로 10대 여자 4명에 대한 집담회 기회를 가졌고, 이들과 집담회를 통해 이와 같은 집단 인터뷰가 가질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였고 질문 내용에 대한 수정의 기회를 가졌다.

집단별 4명씩 총 8개의 집단에 대해 각각 2~3시간 가량 소요되는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모든 인터뷰는 녹음되었으며 분석을 위해 빠짐없이 기록되었다. 인터뷰 대상자 선정에 대해서는 집단별 초기 정보 제공자(informant)를 정하고 이 사람을 통해 인터뷰 대상자를 한 명 섭외하였고, 이 인터뷰 대상자가 추천 또는 연결해주는 사람, 또 그 사람이 추천 또는 연결해주는 또 다른 사람 등 일종의 릴레이 방식으로 인터뷰 대상으로 정하였다. 따라서 각 집단의 4명의 인터뷰 대상자들은 집단 내 적어도 한명 이상을 서로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인터뷰에 임할 수 있게 되었고, 그럼으로써 인터뷰 대상자들이 좀더 편안한 분위기에서 자신의 사례를 이야기 할 수 있었다. 또한 인터뷰를 위한 연구자와 인터뷰 대상자들 간의 유대 형성의 시간도 최소화할 수 있다.

인터뷰에 앞서 이들 인터뷰 대상자에게 휴대전화의 일반적인 이용 현황에 간단한 설문지를 작성하게 하였고, 인터뷰 중간 중간 자신의 경험에 대해 필기로 ‘자기보고서’를 작성해보는 시간도 마련하였다. 모든 집단에 대해 동일한 질문을 던졌지만, 인터뷰 대상자의 반응과 관심도에 따라 좀더 개방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며, 이들이 자신의 경험을 충분히 그리고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본 조사는 다양한 인구학적 특성을 가진 다양한 집단의 개인들이 휴대전화를 통해 어떻게 공간을 경험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연령, 성, 직업 등의 차이를 최대한 고려하여 조사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하지만 이들이 자신들이 속한 인구학적 집단을 대표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본 조사 또한 이들에 대한 인터뷰 결과를 토대로 이들 모집단의 휴대전화 이용패턴에 대한 확대된 결론을 제시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다. 하지만 심층 면접을 통해 휴대전화 이용자의 이용 패턴

및 공간에 대한 경험이 어떻게 ‘공통적으로’ 혹은 ‘다양하게’ 구성되는지를 구체적이고 심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즉, 심층적 사례 연구를 통해, 휴대전화 이용에 따른 공간 경험의 일면을 포착하고자 한다.

〈표 4-1〉 인터뷰 대상자의 인구학적 배경 및 휴대전화 이용 현황

| 대상자 | 나이 (세) | 직업 | 월평균 이용요금* | 주요이용목적** | 주요이용서비스*** | |
|-----|-----------|------|--------------|----------|-------------------------|-----------------------------|
| 10대 | 여 | A 17 | 고등학생 | 4~6만원 | 사회적관계유지 | 통화, 문자, 폰꾸미기, 사진찍기, mp3, 게임 |
| | | B 17 | 고등학생 | 6~8만원 | 사회적관계유지 | 문자, 폰꾸미기, 사진찍기 |
| | | C 18 | 고등학생 | 4~6만원 | 사회적관계유지 | 문자, 통화 |
| | | D 18 | 고등학생 | 4~6만원 | 사회적관계유지, 가족, 오락용 | 통화, 문자, 폰꾸미기, 사진찍기, mp3 |
| | 남 | A 18 | 고등학생 | 2~4만원 | 사회적관계유지, 가족 | 문자 |
| | | B 18 | 고등학생 | 2~4만원 | 사회적관계유지, 가족, 오락용 | 통화 |
| | | C 18 | 고등학생 | 2~4만원 | 가족, 사회적관계유지 | 통화 |
| | | D 18 | 고등학생 | 2~4만원 | 사회적관계유지, 가족, 정보검색 | 통화, 문자 |
| 20대 | 여 | A 23 | 대학생 | 10만원 이상 | 사회적관계유지, 가족 | 문자, 폰꾸미기, 동영상 메일, 사진찍기, mp3 |
| | | B 21 | 대학생 | 4~6만원 | 사회적관계유지, 가족 | 문자, 통화 |
| | | C 24 | 대학원생 | 6~8만원 | 사회적관계유지, 용무 | 통화, 문자 |
| | | D 25 | 대학원생 | 2~4만원 | 사회적관계유지 | 문자, 폰꾸미기, 사진찍기 |
| | 남 | A 21 | 대학생 | 4~6만원 | 사회적관계유지, 용무, 오락용 | 통화, 문자, 사진찍기 |
| | | B 20 | 대학생 | 6~8만원 | 사회적관계유지, 용무, 가족 | 통화, 문자 |
| | | C 23 | 대학생 | 8~10만원 | 사회적관계유지, 가족, 용무 | 통화, 문자 |
| | | D 24 | 대학생 | 6~8만원 | 가족, 사회적관계유지, 용무 | 통화, 문자 |
| 30대 | 여 | A 33 | 주부 | 4~6만원 | 사회적관계유지, 가족, 용무 | 통화, 문자, 동영상메일, 폰꾸미기 |
| | | B 35 | 교사 | 4~6만원 | 가족, 용무, 사회적관계유지, 온라인거래용 | 통화, 상거래 |
| | | C 39 | 주부 | 2~4만원 | 가족, 용무, 사회적관계유지 | 통화, 문자 |
| | | D 30 | 대학원생 | 8~10만원 | 사회적관계유지, 용무, 가족 | 통화, 사진찍기 |
| | 남 | A 33 | 대학원생 | 6~8만원 | 용무, 가족 | 문자, 사진찍기 |
| | | B 30 | 취업준비 | 8~10만원 | 사회적관계유지, 용무, 가족 | 통화, 문자 |
| | | C 30 | 취업준비 | 2~4만원 | 용무, 가족, 사회적관계유지 | 문자, 폰꾸미기 |
| | | D 30 | 사무원 | 4~6만원 | 사회적관계유지, 가족 | 통화, 문자 |

| 대상자 | 나이 (세) | 직업 | 월평균 이용요금* | 주요이용목적** | 주요이용서비스*** |
|-----|-----------|----------|--------------|-----------------|------------|
| 40대 | 여 | A 41 주부 | 2~4만원 | 사회적관계유지, 용무 | 통화, 문자 |
| | | B 41 주부 | 2~4만원 | 가족, 사회적관계유지 | 통화 |
| | | C 49 주부 | 2만원 | 사회적관계유지 | 통화 |
| | | D 41 영업직 | 8~10만원 | 용무, 가족 | 통화 |
| | 남 | A 44 사무직 | 2만원 | 용무, 가족 | 통화 |
| | | B 49 사무직 | 4~6만원 | 용무, 사회적관계유지, 가족 | 통화 |
| | | C 49 사무직 | 2~4만원 | 가족 | 통화 |
| | | D 41 사무직 | 2~4만원 | 용무, 사회적관계유지 | 문자 |

* : 가입비, 할부금을 제외한 월평균 휴대전화 이용요금

** : “직장업무/학업 등 일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서(용무)”, “친구/애인과의 대화 등 사회적 관계 유지를 위해서(사회적 관계유지)”, “가족통화, 자녀관리, 부모안부 등 가정생활을 위하여(가족)”, “뉴스, 경제, 교통, 날씨정보 등 정보검색용으로(정보검색)”, “폰뱅킹, 전자결제, 예약, 예매 등 온라인 거래용으로(온라인거래)”, “게임, 영화, 사진 찍기 등 오락용으로(오락용)” 등 6개 항목에 대한 5점 척도에 대해 중요도 정도가 4점(중요함) 내지는 5점(매우 중요함)으로 평가된 항목

***: 통화, 문자메시지, (동)영상 메일/메시지, 폰꾸미기(벨소리, 컬러링, 레터링 등), 상거래(폰뱅킹, 쇼핑, 주식거래 등), 사진찍기, mp3로 음악듣기, 게임, 정보습득(날씨, 교통, 경제 정도 등), 엔터테인먼트(영화, 뮤직비디오, 드라마 등) 등 총 10개 항목에 대한 5점 척도에 대해 중요도 정도가 4점(중요함) 내지는 5점(매우 중요함)으로 평가된 항목

제 2 절 휴대전화 이용의 일상성 및 상징성

우리나라 휴대전화 사용인구가 전체 인구의 75%라는 수치가 보여주듯이, 이미 휴대전화는 많은 사람들의 일상적인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자리 잡아 있고, 본 인터뷰 대상자들에게도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되고 있었다. 대부분의 인터뷰 대상자들은 특정한 상황, 예를 들어 영화 상영중이나 공연관람중 등을 제외하고 휴대폰을 켜두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휴대전화가 인터뷰대상자 모두에게 일상적인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집단별 그리고 개인별 특성에 따라 휴대전화의 사용정도나 미디어로서의 중요도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도 발견되었다.

휴대전화의 사용량과 중요도는 인터뷰 대상자의 연령층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었고, 성별에 따라 서비스 이용의 차이가 발견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인터뷰 집단 중 다른 연령층 집단에 비해 40대의 휴대전화 이용이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경향을 띄고 있고, 10대, 20대의 경우 대부분 휴대전화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10대, 20대가 주로 친구와의 교제와 관계 유지를 위해 휴대전화를 주로 사용하였다면, 30대, 40대의 경우 일이나 가족 관련 이용도 중요한 사용 목적이 되고 있다. 또한 같은 10대라도 남성에 비해 여성 인터뷰 대상자가 휴대전화 이용에 좀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여성에 비해 남성 인터뷰 대상자는 “뭐 하나”, “재밌냐”, “같이 하자”, “놀자” 식의 간단한 문자 메시지 혹은 통화 내용을 주고받는 경향이 발견된다.

무엇보다도 주목되는 점은 연령별 집단 내에도 개인의 성향이나 사회적 활동에 따른 휴대전화 이용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같은 20대라 하더라도 개인의 사회적 성향에 따라 휴대전화 이용에 소극적인 경우를 찾을 수 있었고, 같은 40대층이라도 직업이 전업주부인 여성과 생활설계사란 영업직에 종사하는 직업주부인 여성은 서로 다른 휴대전화 이용도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친한 몇몇 친구 외에 소극적인 대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20대여B 같은 경우, 평소 때 휴대전화를 무음으로 해놓고 자신이 “무심코 열어봤을 때 문자가 와있거나 전화가 왔을 때만” 이용하고 “정말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연락을 하지 특별히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에게 있어 휴대전화는 “꼭 필요치는 않은 존재”로서, 휴대전화를 일상적인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다른 20대 인터뷰 대상자들과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반면, 영업직에 종사하는 40대여D는 다른 40대여성 인터뷰 대상자에 비해 휴대전화를 활발히 사용하고 있었고, 다른 인터뷰 대상자들이 별로 익숙해하지 않는 문자메시지 활용에도 적극적이었다.

상호작용 매체로서 휴대전화가 차지하는 역할 또한 인터뷰 대상자의 미디어 활용도 및 주요 활동 공간에 따라 다른 양상을 띄고 있다. 인터넷 특히 인터넷 메신저의 활용도가 높은 10대에서 30대 인터뷰 대상자의 경우, 인터넷을 사용하는 공간에서

는 휴대전화보다는 인터넷 메신저를 보다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었다. 10대여C, 10대남B, 20대여D, 20대남A, 30대여D, 30대남B, C 등의 경우, 인터넷 메신저의 활용 빈도가 높았고, 인터넷 메신저를 사용하는 동안에는 휴대전화가 부차적인 혹은 ‘급할 때’만 사용하는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만 활용된다. 이들에게 인터넷 메신저는 훨씬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수단인 반면, 휴대전화는 인터넷 접속이 용이하지 않는 공간에서 이용하는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되고 있다. 한편, 집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많은 전업주부는 집에서 주로 집전화를 사용하며 휴대전화는 주로 수신용으로 활용하고 있었고, 사무실에서 활동하는 사무직 인터뷰 대상자는 사무실에 주로 사무실 전화를 이용하며 휴대전화를 수신용이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들은 집전화 혹은 사무실 전화가 휴대전화에 비해 경제적 혹은 심리적 부담을 덜 느끼며 통화할 수 있다고 말한다. 전업주부 인터뷰대상자의 경우, 집에서 휴대전화로 통화할 때는 용건만 간단히 하게 되고, 그동안 집이라는 공간에 고정적인 장소를 접하며 외부와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자리잡아왔던 일반전화로는 경제적 부담감을 상대적으로 덜 느낄 뿐만 아니라 좀더 편안하게 안정감을 느끼며 통화를 할 수 있다고 말한다. 휴대전화가 이동 중 효율적인 통화를 가능케 하지만, 집이라는 공간에서는 그동안 익숙해왔던 통화수단인 집전화가 여전히 좀더 마음 놓고 외부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수단이 되고 있다. 한편 사무원 인터뷰 대상자의 경우 사무실이라는 공간에서 사무실 전화가 공식적인 외부와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자리 잡아 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적 용도로 사용되는 휴대전화 이용에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다.

(휴대전화) 바깥에 일 나갈 때 편하기는 편해요. 집에서는 안 쓰긴 하는데 켜 놓기는 해요. 집 통화가 길어질 때 계속 통화중이고 안 된다면 핸드폰으로 전화가 와요. 집에 있을 때 주부다 보니까 아무래도 요즘 때문에 집에서는 집 전화 쓰고 핸드폰은 안 써요. 바깥에서 집에 연락할 일이 있다 그럴 때, 꼭 필요할 때 쓰는 거죠... 나는 안부 전화 할 때는 핸드폰으로 안 해요. 왜냐하면 핸드폰으로 하면 그냥 사무적인 것만 묻게 되지 핸드폰 붙들고 늘어져서 자식이 어떻고 남편이 어떻고

이런 얘기는 할 수가 없거든요(40대여B).

출근을 하면은 저에게 직접 걸려오는 전화만 받지, 잘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회사 전화가 다 있으니까, 회사 전화를 사용하고 정 사적인 통화를 하게 될 때는 나가서 해야 되니까, 핸드폰으로 하고. 주로 핸드폰 많이 사용하는 것은 퇴근하고 집에 가면서이죠(30대남D).

사무실 내에서는 핸드폰을 쓸 일이 거의 없어요. 받는 데는 쓰는데 전화 오면 받기는 하지만, 사무실 내에서는 사무실 전화가 있으니까요(40대남A).

저 같은 경우는 집에 가면 우선 끕니다. 나한테 개인적인 용무가 있는 사람은 집 전화번호를 아니까 집으로 전화를 할 것이죠(사무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기는 하지만). 아닌 게 아니라 비밀스러운 전화라기보다는 가정적으로 형제들 간의 얘기라던가 이런 거 남들이 들으면 안 좋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실외로 나가서 휴대전화로 통화하는 편입니다(40대남B).

인터뷰 대상자들은 서로 조금씩 다른 휴대전화 이용패턴을 보이는 가운데 자신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휴대전화가 갖는 상징성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연락을 챙겨주는 “비서”(10대여A), 소중한 “액세서리 중 보물1호”(10대여B), “연락수단”(10대여C), “필수품”(10대여D), 심심할 때 사용하는 “장난감”(10대남A), “시계”(10대남B), “나의 연락망”(10대남C), “나의 전화기”(10대남D), “없으면 불안한 나의 분신”(20대여A), “꼭 필요치는 않은 존재”(20대여B), “친구이며 나를 표현하는 악세사리”(20대여D), “긴급할 때 사용하는 하나의 보험”(20대남A), “연락수단”(20대남B), “항상 챙겨야 되는 지갑 같은 존재”(20대남C),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만능”(20대남D), “생필품”(30대여A), “비서”(30대여B), “통화수단”(30대여C), “필수품”(30대여D), “필수품”(30대남A), “연락수단”(30대남B), “편의품”(30대남C), “도움이 되는 도구”(30대남D), “없으면 불편한 존재”(40대여A), “생활필수품”(40대여B), “없으면 불편한 존재”(40대여C), “생활필수품”(40대여D), “꼭 필요치는 않은 물건”(40대남A), “무전기 대응”(40대남B), “연락수단”(40대남C), “필요한 물건”(40대남D) 등으로 인터뷰 대상자들은 휴대전화의 상징성을 표현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의

휴대전화의 필요성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일상생활의 편의성을 더해주는 개인의 필수품으로 생각하고 있다. 더 나아가, 자신의 표현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었다(〈표 4-2〉 참조). 이와 같이, 휴대전화가 개인의 사회공간을 구성하는 주요한 수단으로 자리 잡으면서, 개인이 물리적으로 실재하는 장소에 다양한 사회공간의 구성이 가능해졌고, 따라서 기존 물리적 공간에 대한 인식 또한 변화를 겪게 된다.

〈표 4-2〉 휴대전화의 상징성

| | | |
|-----|---|--|
| 10대 | 여 | “필수품”, “연락 수단”, “가장 소중한 액세서리”, “비서” |
| | 남 | “연락망”, “나의 전화기”, “시계”, “장난감” |
| 20대 | 여 | “분신”, “친구 & 나를 표현하는 액세서리”, “웃: 자기랑 닮은 아이템”, “꼭 필요치는 않은 존재” |
| | 남 | “연락수단”, “긴급할 때 사용하는 하나의 보험”, “항상 챙기는 지갑”, “만능” |
| 30대 | 여 | “생필품”, “필수품”, “비서”, “통화 수단” |
| | 남 | “필수품”, “편의품”, “연락수단”, “도움이 되는 도구” |
| 40대 | 여 | “생활 필수품”, “없으면 불편한 존재” |
| | 남 | “필요한 물건”, “연락수단”, “꼭 필요치는 않은 물건”, “무전기 대응” |

제 3 절 휴대전화와 개인의 공간 활용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해 개인은 장소의 물리적 구속성에서 벗어나 사회공간을 가질 수 있게 된다. 휴대전화가 물리적 형태의 장소에 탈물리적인 매개 사회공간을 형성할 수 있게 함으로써, 특정한 역할 혹은 기능을 수행하는 공적인 장소에서 사적인 사회공간을 가질 수 있고, 특정 장소가 다양한 사회공간과 접합하며 다양한 기능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물리적인 장소와 커뮤니케이션의 가상적 공간이 쉽게 접합가능하게 됨으로써, 물리적, 가상적 공간의 경계가 쉽게 허물어질 수 있게 되고, 특정 목적의 장소와 특정 목적의 공간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실제 인터뷰 대상자들의 휴대전화 이용 경험을 보면, 특정 공간의 물리적 구속성

에서 벗어나는 것을 종종 발견할 수 있다. 대부분의 10대, 20대 학생의 경우, 강의를 듣는 교실이나 책을 읽는 도서관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함으로써 장소의 고유한 맥락에서 벗어나 개인의 사회공간으로 넘나들고 있었다. 이러한 장소에서 휴대전화의 이용을 공식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대부분의 인터뷰 대상자들은 그곳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방법을 나름대로 터득하고 있었다.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개인적인 행동을 제한했던 물리적 장소에 사회공간의 구성이 가능해진 것이다. 그럼으로써 이용자는 같이 있지 않는 상대방과 ‘항상 연락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10대 남학생 인터뷰 대상자들은 모두 수업시간에 휴대전화를 진동으로 해놓고 있다고 답했다. 수업시간에 진동이 울릴 경우에 대한 질문에 대해) 선생님께 급한 전화 왔다고(말해요) 엄마가 이 시간에 전화할 리가 없는데 전화가 왔다고 하면...(웃음) 그 외엔 사적인 전화는 몰래 숙여서 받든가, 아니면 안 받든가.(하지만) 문자는 다 받아요. 답문도 하고요.(선생님한테) 안 걸리죠. 핸드폰 사서 문자 학교에서 한 삼일만 보내보면 다들 노하우가 생겨서...(10대남D)

(학교에서) 쉬는 시간에 통화하고, 수업 시간에 문자 보내고...(10대여D)

강의실 들어가도 항상 진동으로 해두고 전화 오면, 뭐 아주 급한 전화다, 혹은 내가 좀 받아야겠다 싶으면 나가서 받고,(물론) 소규모 강좌에서는 그렇지 못하죠 (20대남C).

옛날에 복학하고 한참 아직 사회에 적응을 못했을 때 그때는 군대 전역 했을 때는 그 때는 교수님 눈치 보여 가지고 꺼두고, 그러니까 항상 정자세로 수업을 듣고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는 교수님 앞에서 그냥 문자 좀 보고 교수님이 찌려보시면 그냥 한번씩 씩 웃고...(20대남D)

한편, 40대 주부 인터뷰 대상자의 경우, 자녀 때문에 집에서 쉽게 벗어나기 어려웠지만, 휴대전화 이용으로 자녀의 소재를 확인하고 자신의 스케줄을 조정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주부 및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사적인 공간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된다.

저희는(애가) 중학교 가니까 CA(학교 동아리활동)라고해서 밖으로 영화를 보러 가거나 아니면 더 멀리 가거나 그럴 땐 제가 애에게 핸드폰을 주죠. 그럼 안심이 되는 거예요. 혼자서 지하철을 몇 번을 갈아타고 가야 되는 극장이다, 그러면 제가 일일이 따라 다닐 수도 없는 거고. 그럴 때는 심리적인 것도 여유가 생기고 시간적인 것도(여유롭죠.) 신체적으로도 편하고(40대여A).

(휴대전화 이용으로) 물리적인 시간으로 버는 것보다도 마음으로 여유가 생기고, 심적으로 더 편안하죠. 애가 지금 어디 있구나. 몇 분에 만나면 되는구나 하고...(40대여B)

핸드폰이 없었으면 집에만 있었어야 되잖아요. 핸드폰이 있음으로써 내가 나가면서 애가 어디 있는지 알게 되고, 만약에 애가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집을 비웠다면 집에 빨리 들어가게 되죠(40대여C).

또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시, 휴대전화는 상대방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만의 사회공간 혹은 놀이공간을 갖게 하는 ‘상징적인 보디가드’ 역할을 담당한다. 휴대전화 이용으로 인해 지역의 물리적 환경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사회공간 혹은 놀이 공간으로의 이동이 용이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장소는 다양한 공간과 접합을 하게 된다.

특히나, 휴대전화는 대중교통 수단으로 이동하는 동안의 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전화를 사용하기 전에는 자거나, 신문 혹은 독서를 하거나, 음악을 듣거나, 가만히 있거나, 주변을 보거나 하는 등의 행동으로 이동중의 시간을 메웠다면, 휴대전화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많은 인터뷰 대상자들이 이 시간 동안에 자기만의 사회공간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이동 중 폐쇄된 공간에서 불특정 다수와 함께 있으면서 느낄 수 있는 어색함이나 당혹스러움을 휴대전화가 해결해 주는가 하면, 사회적 관계 유지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다. 일종의 짜투리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물론 모든 사람이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때 휴대전화를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음악을 듣거나, 가만히 있는 등 자신들이 그동안 취해왔던 행동을 그대로 유지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하지만, 휴대전화 이용으로 이동 시간이 개인의 연락이나 오

락 등의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개념을 강화시켰고, 이동 중의 공간은 개인의 사회공간 혹은 오락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게 된다.

친척동생이나 초등학교 친구한테는 연락 잘 안하거든요... 그런데 지하철이나 그런데서 할 게 없으면 그냥 친척동생이나 연락을 잘 못한 애들한테 전화해 가지고 ‘공부 열심히 하고 있냐’ 해요. 그런 시간을 이용하는 거 같아요(20대남B).

저희 집이 그 3호선 제일 종점 역이라 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텅 빈 데서 전화를 하다가 사람들이 계속 와서 옆에 앉고 앞에 서고하니깐 옆에서 시선이 느껴지잖아요... 그 때부터 핸드폰 켜가지고 문자왔던 것 처음부터 다시 다 읽고 문자 보냈던 것도 처음부터 다시 다 읽고 그러고 나서는 어제 누구한테 전화했었나 다시 다 보고. 진짜 그런 거 하고 있으면 시간이 되게 빨리 가거든요(20대여C).

저는 워낙 빨쫂이 그냥 항상 땅을 많이 쳐다 봤었고요. 아니면 내 가방을 뒤적뒤적 거리고, 핸드폰을 뒤적뒤적 거리다가 사진 찍었던 거 보고...특히 그 시간에 문자를 많이 보내요. 그 시간에 나름껏 아껴 써요. 전화도 그 때 좀 하고 그러면서 빨쫂함을 견뎌내요(20대여D).

요즘엔 이동 중에 많이 써요. 제가 통화할 때 옆에서도 다 문자하고 있어요. 진짜 다 하니까 신경을 안 쓰죠. 오히려 옆에서 애나 어른이 다 하고 있으면 나만 안 하고 멍하니 가는 자체가 더 빨쫂해요. 안하는 내가 이상한 것 같아요(30대여A).

이동 중의 공적공간이 자신의 커뮤니케이션 목적이나 오락적 목적으로 재구성될 수 있게 된다. 물론 이러한 공적공간의 재구성은 공적공간의 공공성에 대한 개인의 인식에 따라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1. 시공간의 미시적 조정

휴대전화 사용으로 약속 장소 및 시간을 정하는 계획이 좀더 ‘합의의 과정(shared decision)’을 거쳐 형성되고, 전반적으로 느슨하고 유연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인터뷰 대상자들은 휴대전화를 통해 약속 장소 및 시간을 정하는 것에서부터 약속 장소에 대한 정보 교환, 약속 장소에 참석하는 현황 등에 이르기까지 서로의 의견

을 물어 만남을 계획하고 실행함으로써 이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각종 불안감과 불확실성을 최소화시키고 있었다.

애들하고 만나야 되는 일이 있을 때는 일단 전체 문자로 언제, 어디서, 몇 시쯤 만나는 게 좋을지 물어보고 그 날 약속이 있는 친구의 시간대를 피해서 대충 애들하고 정한 다음에 확실한 약속장소와 시간을 전체 문자로 보내서 알려준다(10대여 D, 자기보고서 中).

해병대 전우회가 있어 모임을 가지기 전, 일시와 장소를 적은 대자보를 학교 곳곳에 붙인다. 금요일 저녁 6시, 학교 정문 앞을 약속시간과 장소로 기재하고 그 후 단에 회장, 총무의 연락처를 함께 적었다. 만남 하루 전 총무는 연락 가능한 사람들에게 내일 모임 참석 여부를 확인하고 단체 문자를 통해 모임 시간, 장소를 확인했다. 당일 모임 시간 후 30분 정도 대기 후 일단 참석한 사람들과 다시 어디로 이동할지 정한 후 이동했다. 이동 후, 참석한다고 했던 사람들에게 전화해 이동 장소를 얘기해주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갑자기 불참하게 된 경우는 따로 연락을 취하였다(20대남D, 자기보고서 中).

특정 일시 및 특정 장소로 약속을 정해놓고 해당 일시 및 장소에서 상대를 마냥 기다려야 했던 시절과는 달리, 휴대전화를 통해 만나는 상대와 지속적인 연락이 가능해짐으로써 자신의 현황을 알려 약속 모임의 진행이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돕는다. 참석자의 전체 상황이 고려되어 모임이 실행되는데, 늦게 오는 사람은 약속 장소에 실재하지는 않지만 모임 참석자에게 자신의 상황을 알리며 커뮤니케이션 상태를 유지하고, 먼저 와서 기다리는 사람은 기다리는 시간을 활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서로가 약속과 만남을 이행하고 있다는 ‘가상적(개념적)’ 인식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약속 시간을 지키는 것에 대해 좀더 ‘관대’해졌고, 약속 장소 혹은 만남의 장소도 상황에 따라 좀더 ‘유연’하게 정해지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동창 모임을 위해 날짜와 장소를 정한다. 전철 역 출구나 광장, 특정 점포 부근으로. 약속 시간 30분쯤 전부터 서로의 위치를 확인하고 날씨나 장소 여건 등에 따라 장소를 변경하거나 자신의 위치를 서로에게 알려 장소는 대개 먼저 도착한 사

람의 취향에 따라 달라지고 변경 내용은 후에 오는 사람들에게 전해진다. 늦게 오는 사람도 장소 이동 등에 관계없이 계속 연락하고 이로 인해 결국 약속 이행율이 높아진다(30대남 B, 자기보고서 中).

약속은 집 전화로 정한다. 장소(집, 공공장소)가 먼 경우 이동하면서 상대 친구도 나오는지 핸드폰으로 확인한다. 약속 시간에 늦는 친구에게 휴대폰 확인하고, 장소 변동이 있을 경우에도 휴대폰으로 확인한다. 내가 약속에 늦는 경우, 얼마정도 늦는지, 약속장소가 바뀌었는지를 휴대폰으로 확인한다. 휴대폰으로 연락하면 약속에 늦어도 죄가 용서된다(40대여 C, 자기보고서 中).

인터뷰 대상자들에게 있어 약속 시간과 장소를 지키는 정확성보다는 약속 상대와 커뮤니케이션 상태를 유지하며 약속이 이행되고 있음을 확인시키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 이에 따라 약속 시간과 장소에 대한 조정이 유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약속 장소를 미리 정해 놓고 만나더라도 약속 장소로 이동하는 도중에 만나 최종 만남의 장소(목적지)로 같이 이동하기도 하고, 최종 약속 장소를 미리 정하지 않고 이동 중의 특정 장소(예를 들어, 전철 차량의 특정 칸, 전철역 출구, 특정 점포 앞)에서 만나 최종 목적지를 정하기도 한다. 심지어 약속 시간까지도 느슨하게 정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약속 장소가 여의치 않을 때 장소의 변경도 쉽게 이루어졌다. 휴대폰의 ‘지속적인 접근성’으로 인해, 약속 장소로 이동하는 순간부터 만남이 가능해졌고, 약속 장소가 단일 장소로 고정되기 보다는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정해지는 경향을 보인다. 40대 인터뷰 대상자의 경우, 타 연령층에 비해 구체적인 약속 장소 및 시간을 미리 고정시켜놓고 만나는 경향이 크지만, 휴대폰을 통해 약속 상대와의 지속적인 연락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약속 시간을 지키는 문제에 대해 좀더 관대해지고 장소의 변경에도 유연하게 대처하게 된다. 휴대폰 이용으로 만남을 위한 접촉 지점이 ‘고정된 단일 지점’에서 ‘가변적인 다중 지점’으로 확대되고,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한 약속 시간의 엄격함도 약속이 이행되고 있다는 가상적 공감이 지속되는 한 유연해진다. 이에 따라 약속 시간도 특정 시점에서 서로의 이해를 구할 수 있는 시간의 범위로 확대된다.

친구랑 아침에 만나서 학교가요. 가는 길에 계속 통화나 문자를 날려요. 주로 문자를 많이 하죠.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주로 애(함께 만나서 학교가는 친구가 함께 인터뷰에 응한 인터뷰 대상자임) 가 많이 기다려요. 문자로 먼저 제가 탄 지하철이 ‘2-3’¹⁴⁾라고 알려주고, 애가 기다리고 있는 플랫폼 전역에서 “전역이야. 이번에 타” 하고 문자를 또 날리죠. 대부분 그렇게 만나서 학교에 가요. 가끔 버스로 갈 때도 있지만요(사전집담회 인터뷰대상자 10대여).

(약속장소를 정하는데) 심지어 출구도 안 정할 때 가 있거든요. 그러니깐 “명동 어디서 볼까?” 그러다가 “나~ 그 시간에 명동에 있어.” “어? 나도 명동인데...” 그러면 막 통화하다가 서로 통화를 하면서 길을 걸어요. 그러다가 저, 중간지점이 어디쯤 될까. “어, 너 거기 아냐?” “아, 나 거기 아는데, 그러면 그래 거기서 볼까?” 그러면 조금만 기다리면 오고... 정말 장소 개념은 거의 없어졌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뭘 할 장소는 안 정해도 대충 그 근방에서 뭘 할 거라는 그 바운더리만 약간 정해져 있으면 만남은 이루어져요(20대여C).

저는 뽀뽀세대인데. 그때까지만 해도 약속장소나 시간을 정할 때는 좀 확실히 정했죠. 뭐 6시 어디 구체적인 건물 앞, 이렇게 확실히 정해서 그때까지 오라고 그러면 그때 막 모여요. 늦게 오는 애들한테 뽀뽀가 오며는 그땐 되게 불편하잖아요. 뽀뽀 번호 확인도 해야 하고... 그때까지만 해도 밖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깐 늦게 오는 애들한테 되게 뭐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요새 같은 경우는 늦게 오면 다 전화가 오잖아요. 전화상으로 “어! 왜? 무슨 일 있어? 늦을 것 같아?” 그러면서... 늦게 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미안해하지도 않고 우리도 그냥 늦게 온 사람들에게 그렇게 뭐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이미 전화를 통해서 확인했으니깐 그런 건 확실히 없어진 것 같아요(20대남C).

저는 약속장소를 구체적으로 정해요. 왜냐하면 오는 시간이 딱 그 시간에는 못

14) “2-3”은 지하철 승하차 입구 바닥에 쓰여져 있는 번호로써, 분실물 처리나 약속 등을 위한 상징적 의미로 사용하도록 적어놓고 있다. 앞의 숫자는 지하철 객차 가운데 몇 번째 객차인지를 의미하며, 뒤의 숫자는 한량에 있는 4개의 문 가운데 몇 번째 문(출입구)인지를 의미한다. 즉, “2-3”은 일반적으로 8량 내지 10량인 지하철 객차수 가운데 2번째 객차를 의미하며, 2번째 객차에서 3번째 문(출입구)임을 나타낸다.

오니까 지하철 몇 번 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 쪽, 보리밭이 있는 쪽 교보문고 빌딩 종로 방향 광화문 방향 아니면 이쪽 앞 방향. 확실하게 정해요. 아주 늦는 친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때는 밖에서 만날 경우에는 चु잡아요. चु거나 덮거나 하나까. 일단 장소를 옮기면서 그때 다시 통화를 하죠. 어디로 와라. 그 애도 알고 우리도 아는 곳으로. 새로운 곳에 도전하기 어렵죠...(핸드폰이 없었던 시절에는), 친구가 늦어도 기다리는 거죠. 올 때까지. 온다는 얘기를 확실하게 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이우 그렇게 했다기는 죽죠. 나중에...(웃음)(40대여A)

2. 다의적 장소성

휴대전화의 이용으로 면대면 사회공간에 또 다른 사회공간 혹은 사회공간을 형성할 수 있다. 휴대전화 이용으로 인한 가상적 사회공간이 실제 사회공간과 접합되는 방식은 실제공간의 상황(공식적 vs. 비공식적, 공적 vs 사적),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상대와의 친밀도와 규모(소수 vs. 다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공식적이고 공적이며 예의범절이 중요시 되는 딱딱한 모임 혹은 소수의 인원이 긴밀한 이야기를 나눌 때는 휴대전화의 이용을 자제하며 면대면 커뮤니케이션 상황에 좀더 집중을 하지만, 비공식적이고 사적인 모임이나 참석이 다수여서 다소 산만한 커뮤니케이션 상황이 진행될 때는 휴대전화의 이용으로 인한 일시적 사회공간의 형성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진다.

서로 간에 심오한 대화를 한다면야 전화를 안 받죠. 보통 친구들 만나면 그런 얘기 보다는 주로 일상생활이나 자연스러운 편안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어려운 내용이면 잘 안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다면야 전화를 받으면 좀 분위기를 깨잖아요. 자연스럽게 노는 분위기면 그다지(전화통화에)신경 안 쓰는 거 같아요(20대남B).

여럿이 있을 때는 덜 미안하고 그 사람(휴대전화 사용하는 사람)이 덜 미워 보이고 그런데, 딱 단둘이 만났는데 전혀 얘기는 안하고 문자가 계속 보내고 계속 전화하고 ‘어, 미안 잠깐만’ 하면서 계속 전화하고 그러면 좀 밉죠. 그런데 단체로 있을 땐 한 네 명 정도, 그럴 땐 전화를 해도 한사람 쉬고 있어도 세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깐 그럴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20대여D).

그런데 연결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10대, 20대 인터뷰 대상자들 중 특히 10대 여성 인터뷰 대상자의 경우, 커뮤니케이션 상황에 상관없이 휴대전화에 의한 가상적 사회공간을 유지하며, 면대면 사회공간과 가상적 사회공간에 동시에 존재하는데 익숙해져있었다. 실제 인터뷰를 진행하는 동안에도 이들은 끊임없이 휴대전화로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인터뷰에 응하고 있었다. 다음은 이들과 나눈 인터뷰의 일부이다.

10대여B: 저는(친구들과 대화 중에 휴대전화 통화를 해도) 안 끊어요.(같이 있는 친구들이) 뭐라고 해도 그냥 무시해요.

10대여A: 다 받아요... 친구들도 다 받아요.

10대여D: 할 애긴 끝까지 다 하고 끊어요... 문자도 다 받고..

진행자: 대화가 한창 진행중인데, 통화하면 친구들과 대화를 놓칠 수 있잖아요.

10대여D: 전화 아니면요, 여기서 얘기 하고 문자도 보내요.

10대여B: (문자를 하더라도 대화가)다 들리는데. 다 참여할 수 있어요. 안 헛갈려요.

10대여A: 저도 다 들려요.

이들은 휴대전화로 실제 사회공간과 가상적 사회공간을 동시에 점유하며 각 공간의 대화자 역할을 함께 하고 있었다. 다중적 사회공간에서 각 공간의 대화 상대자를 동시에 수행하며, 또래 집단의 다중적 사회공간의 이용에 대해서 관대하였다. 통화보다는 문자에 익숙한 이들은 한쪽에서는 구어로 한쪽에서는 문자로, 다시 말해 한쪽에서는 청각으로 다른 한쪽에서는 시각과 촉각으로 다중적 사회공간을 형성할 수 있었고, 이러한 다중적 사회공간의 형성이 또래 집단의 문화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다른 연령층 인터뷰 대상자의 경우, 면대면 대화 중 휴대전화의 이용이 현재의 사회공간과 불연속적인 사회공간 형성에 대해 불편해하는 태도를 보인다. 대화 중 휴대전화의 이용이 현재의 대화의 맥락에서 벗어나게 만든다고 인식하며, 가상적 사회공간 보다는 현재의 사회공간의 맥락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노

력한다. 휴대전화 이용에 의한 다중적 사회공간의 형성이 면대면 사회공간의 집중도를 떨어뜨린다고 보며, 다중적 사회공간의 대화자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기를 꺼려한다. 따라서 면대면 대화중 휴대전화를 통한 가상적 사회공간 형성을 자제하는 태도를 보인다.

친구들 같이 있을 때는 웬만해서 통화도 그렇고 문자도 웬만해서는 잘 안하려고 해요. 친구들과 같이 걸어가면서 문자를 보내고 다 하긴 하는데, 같이 이야기를 하려고 모인 장소에서 같이 이려고(문자 보내거나 통화하고) 있으면 웬지 집중을 안해주는 것 같아요. 좀 그렇기 때문에 전화 오면 받아야 할 경우에는 받긴 받는데 ‘아, 내가 좀 있다 전화할게’하고 끊는 경우도 많고요. 문자도 그냥 일상적으로 그런 문자 오는 경우에는 나중에 보내는 경우도 많고 다른 친구가 보내는 것도 한두 번 보내는 건 괜찮은데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문자를 보내고 있으면 제가 막 불안하거든요. 재가 내 얘기를 듣고 있는 건지. 그런 것 때문에 좀 자제하려고 하는 편이에요(20대여D).

같이 이렇게 모여서 막 얘기하고 막 그러는데 한 애가 전화 왔다고 받고 나가요. 그런데 한참 있다가 계속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좀 짜증나요. 저는 길게 한 적이 거의 없어요, 그냥 하면 끊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꼭 그런 애들이 한 명씩 있어요. 꼭 술 먹으면 전화만 계속 붙들고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 있으면 지 혼자만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짜증나죠(20대남A).

저는 친구들이 모임을 갖고 막 애길 하고 있으면 좀 돌아서고 소리를 낮춰서 간단히 통화하고, 전화 끊고 다시 애길 해요(30대여B).

저도 그런 편이에요. 괜히 상대방한테 피해를 주는 것 같아서(30대여C)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오는 전화는 집 같은 경우 급한 일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럴 때는 나가서 무슨 일인가 받고. 그렇지 않으면 특별히 연속적으로 오는 전화 아니면 나중에 해요(40대여B).

또한 이들은 실제 사회공간에서 휴대전화의 이용으로 인한 가상적 사회공간의 형성에 대해 관용도가 떨어진다. 자신들이 현재의 사회공간의 맥락에서 벗어나는 것

을 자제하는 만큼, 타인도 그러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10대 여성 인터뷰 대상자가 자신의 혹은 상대의 다중적 사회공간 참여에 관대한 반면, 대부분의 다른 연령층의 인터뷰 대상자는 다중적 사회공간 이용에 관대하지 못하다. 이들은 현재의 사회공간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여기서 벗어나는 것을 부적절하다고 본다. 다중적 사회공간에서의 멀티태스킹의 수행으로 감각이 분산되는 것이 대화의 집중도를 떨어뜨리고 서로에 대한 예의를 지키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한명이 계속 통화하고 그러면 싫은 것 같아요. 10대들이 문자 보내면서 얘기를 듣는다고 하는데 모두가 그러고 있으면 너무 싫을 것 같아요. 그건 진짜 최악일 것 같아요(20대남C).

제가 친구랑 독대를 하는데 전화가 왔다. 그 친구랑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5분 정도를 통화했다. 제가 상대방이면 되게 기분 나쁠 거 같아요. 저는 그게 예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해요. 어쩔 수 없이 받았는데 상대방이 말이 길어질 수가 있잖아요. 저는 짧게 끊어요. ‘그래 얘기중인데, 나중에 전화할게’ 하고... 한번은 여자친구랑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평범한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밥 먹었냐, 등등. 그 와중에(여자친구가) 전화를 받더니 중요한 전화도 아닌 것 같은데, 상대방에 대한 아무런 배려 없이 전화를 계속하더라고요. 속으로 예의가 없구나 하는 생각을 했죠(30대남B)

(인터뷰 도중 휴대전화를 받고 나서) 지금도 안 받으려는데 계속 올려가지고. 아는 사람이면 안 받거든요. 그런데 모르는 번호라, 혹시 오늘 택배가 올 거 있어서, 그 사람인가 하고 받은 거거든요. 친숙한 자리는 여기서 통화 계속하면 원성이 자자하죠. ‘넌 지금 누구 만나러 왔냐’고요(40대여B).

친구라는 의미가 저희 세대는 생각도 공유하고 궂은일도 같이하고 그런 의무적인 구속이 따라가는데 그 애들한테는 그런 구속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그룹이랑도 같이 놀다가 저 그룹이랑 같이 놀다가 어떤 경계가 없어요. 그 애들은. ‘너희한테 친구라는 말이 대체 무슨 의미냐’고 그러면 그냥 같이 다니는 친구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돼’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 세대의 분위기는 제가 인정을 해주기는 하는데... 만약에 정말 여러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가운데 그러고

(계속해서 문자하고 통화하고) 있으면 한소리를 하죠(40대여A).

별로 안 친해도 전화오래하면 괜히 내 위치가 소홀한 것 같기도 하고. 대충 빨리 끊는 게 예의인가 싶고. 저는 회의 같은 거 할 때 꺼놔요(40대여D).

저는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급한 일이 있으면 빨리 받고. 전화를 계속 하면서 대화하면 좀 에티켓에 벗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빨리 대충 전화를 끊고 대화를 같이 해야 하지 않을까요(40대남A).

휴대전화의 이용으로 실제 사회공간에 또 다른 사회공간의 접합이 가능해짐으로써 사회공간의 다중적 구성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다중적 사회공간에서 대화자로서 각 공간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문제에 대해 각 개인과 집단은 현재 이견을 보이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연결에 대한 민감도가 높고 감각을 분산해서 이용하는 것에 익숙한 10대 여성 인터뷰 대상자의 경우, 이러한 다중적 사회공간을 동시에 점유하는 행동을 보인다. 다른 연령층이 휴대전화 이용으로 형성된 사회공간의 불연속성 혹은 현재의 사회공간에서의 이탈 문제를 문제시하는 반면, 10대 여성 인터뷰 대상자들은 자신들의 또래 문화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

제 4 절 휴대전화와 사회공간의 재구성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해 개인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원하는 때에 원하는 사람과 커뮤니케이션함으로써 사회적 관계를 더욱 수월하게 유지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 휴대전화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없이 그 안에서 편리하게 정보를 교환하고 인간관계를 구축하는 사회공간의 연장선인 것이다(이인희, 2001, pp.262~3).

또한 개인적 통신수단을 넘어, 배타적이고 독립적인 소통행위의 영역, 곧 개인적 공간을 만들어 준다는 의미에서 사인주의(私人主義, *privatism*) 매체이다(황주성 외, 2002). 가족들간에 혹은 직장동료들간에 공동으로 사용하였던 유선전화와는 달리, 상대방과 직접적으로 일대일 통화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사적생활과 사회관계를 영위할 수 있게 한다.

제3장의 정량적 실증분석에서도 휴대전화는 주로 사회적 목적에 이용되고 있으며, 사회적 관계의 양과 깊이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인터뷰 대상자들에게 있어서도 휴대전화는 사회관계적 연결망으로서 필수적이며, 특히나 20대와 30대의 경우는 관계의 깊이가 더욱 강화되었다고 여긴다. 휴대전화로 인한 상대방응적 커뮤니케이션과 원거리 친구와의 즉시적인 연락으로 사회관계를 친밀하게 유지시키고 있었다.

저도 뭐~ 제 친구들이 부산에 있다 보니까 친한 친구들도 워낙 부산에 많으니까 가끔씩 안부 워낙 핸드폰이 없으면 없어도 그 관계가 유지가 된다고 저는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있음으로서 더 유용하게 친구관계가 유지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 휴대폰이 발전도 시켜준다고 봐요. 그러니까 서먹서먹한 관계인데 그니까 얼굴만 한번 본 사인데.. 그 다음부터 그냥 전화통화 몇 번 하다보면 뭔가 통하는 면도 발견하게 되는 것 같고.. 또 전 그렇게 통화를 또 많이 하는 성격이다 보니까 그렇게 발전도 많이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은 제가 공부하는 입장이라서 자제하고 있는데 만나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유지되기도 하고.. 또 가끔 연락해서 만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인관계를 발전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20대남A).

친한 사람하고는 더 친해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만나지 못할 때도 이렇게 연락을 하니까... 수시로 연락을 할 수 있으니까 친한 사람하고 더 친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주 못 만나도 연락 할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고... 군대가 있는 애들하고는 제가 편지는 쓰긴 써요. 쓰긴 하는데 그래도 가끔 전화가 오면 좋잖아요. 그 친구도 군대에서 외로운데 전화 받아줘서 좋고... 편지보다는 전화로 목소리를 들으니까... 편지도 그 때 읽으면 좋겠지만 그것보다 좋은 것 같아요... 친밀감이 높아진다고 할까(20대여B).

친구랑 통화하는 시간이 만나는 것보다 길어졌죠. 멀리 있으니까. 말하기 불편하면 문자 메시지로 얘기하고. 그런 게 많아진 것 같아요. 친구랑 더 좋아진 게 많은 것 같아요(30대여A).

저도 그래요. 아무래도 저희는 핸드폰이 없으면 집으로 전화를 해야 하는데 집으로 전화하면 안받으면 잊어버리고 마는데 핸드폰이 있으면 장소 제한이 없잖아

요. 그러니까 통화하면 더 친해지게 되고. 그런데 뭐, 만나는 횟수 같은 건 각자 자기 생활들이 있기 때문에 별로 많아지진 않고(30대여B).

저도 뭐 휴대 전화기가 뭐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크게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부정적인 것 보다는 휴대폰 때문에 긍정적인 면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대인관계에서도 서로 금방금방 연락도 가능하고 여기 아까 나왔듯이 번개 텅이라는 뭐 이런 것도 시간 되는 사람이..(만날 수도 있고) 굳이 약속을 하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문자도 일괄적으로 짹 보내잖아요. 좋은 것 같아요(40대남C).

한편, 40대 인터뷰 대상자의 경우 휴대전화 이용이 친구와의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데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모임에 대한 정보를 얻는 다든지, 약속을 정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 편리함을 갖지만, 친구와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물리적인 경험의 축적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본다. 휴대전화는 실제적으로 같이 거주하는 가족 공동체가 외출했을 때 서로의 실재를 확인하고 커뮤니케이션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돈독한 거랑은 상관없는데요. 만나러 나갔을 때 그 편리함에 이용을 하지 돈독함은 집 전화 몇 시간 썩 이제(웃음) 집 전화 붙들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나는 안부 전화 할 때는 핸드폰으로 안 해요. 왜냐하면 핸드폰으로 하면 그냥 사무적인 것만 묻게 되지 핸드폰 붙들고 늘어져서 자식이 어떻게 남편이 어떻게 이런 얘기는 할 수가 없거든요.b)핸드폰으로는 사무적으로, 업무상으로 간단하게만 하지 그렇게 돈독한건 집전화가...(웃음)(40대여B).

친구관계는 뭐 이미 우리는 오래된 친구관계니까(휴대전화로 인한) 영향은 별로 없어요(40대남B).

저 같은 경우는 핸드폰이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 같아요. 사람을 많이 사귀는 편도 아니고 핸드폰이 실질적인 대인관계를 넓히고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지하철 같은 데서 특별하게 전화하고 이런 거는 별로 안 좋아하죠. 애들도 핸드폰이 있는데 자주 사용하면 뭐라고 하죠(40대남A).

저도 비슷한 것 같은데요. 맞벌이를 하니까 외부에 있고 그럴 때, 오늘 애 데려와라, 그럴 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친구간은 그런 게 별로 그런 건 없어요. 아까

말했다시피 연말 되면 동창회, 상갓집 정보가 다 들어오니까 그런 것들 다 알게 되죠. 그게 생활이 편리하고 좋아지는 부분 같아요. 옛날보다(40대남D).

휴대전화를 통한 사회관계의 변화는 휴대전화가 형성하는 가상적 공간으로도 이어져 가상적 사회공간이 형성되어지고 있으며, 다시 실제 사회관계로도 영향을 주는 긍정적 변화를 보이고 있다.

1. 모바일친구와의 항시적 연결성

휴대전화의 이용은 시공간에 상관없이 상대방과의 사회공간, 다시 말해 사회공간을 갖게 해줌으로써 상대방이 물리적으로 실재하지 않더라도 항상 같이 있는 느낌을 갖게 하는데 일조한다. 휴대전화는 일상생활의 많은 부분을 같이 공유하는 지근(至近)의 동료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동료에 이르기까지 그들과의 사회적 관계를 유지시켜줄 뿐만 아니라 서로의 존재감을 항상 확인하고 가상적으로 혹은 텔레프레젠스(telepresence)의 형태로 ‘모바일 친구’를 구성 또는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휴대전화는 장소와 시간에 상관없이 상대방에게 접촉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상대방에 대한 실재감 혹은 함께 한다는 느낌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한다.

다음 <표 4-3>을 보면 연령층에 따라 휴대전화를 통해 ‘모바일 친구’를 구성하는 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0대와 20대가 활발한 휴대전화 이용으로 부모나 가족 외에 친구 및 동료, 애인, 업무관계자에 대한 가상적 실재감을 유지하는 반면, 휴대전화 이용이 소극적인 대부분의 40대 인터뷰 대상자는 가족 외에 가상적 실재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대상이 적었다.

대부분의 10대 및 20대 인터뷰 대상자가 일상적인 휴대전화 이용을 통해 죽마고우, 친구 및 동료, 애인에 대한 가상적인 실재감을 끊임없이 (재)확인하며 자신들의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관리한다. 휴대전화는 보이지 않는 상대에 대한 존재감을 상기시키며 더 나아가 가상적인 실재감을 느끼는 대상과의 물리적인 만남을 끊임

〈표 4-3〉 인터뷰 대상자의 모바일 친구

| | | 가상적 실재감을 항상 느끼는 대상 | 1인당 하루평균 통화건수 | 1인당 하루평균 문자건수 |
|-----|---|----------------------------|------------------|------------------|
| 10대 | 여 | A 동창 1명, 학교친구 1명 | 4 | 3 |
| | | B 동창 4명, 남자친구 1명 | 5 | 28 |
| | | C 동아리친구 4명, 부모 | 1 | 7 |
| | | D 남자친구, 학교친구 2명, 동창1명 | 3 | 20 |
| | 남 | A 동창 1명, 부모 | 2 | 5 |
| | | B 동창 1명, 학교친구1명, 부모 | 3 | 2 |
| | | C 학교친구1명, 부모, 동창2명, 여자친구 | 2 | 1 |
| | | D 동창4명, 여자친구 | 1 | 20 |
| 20대 | 여 | A 부모, 학교친구1명, 동창2명 | 3 | 4 |
| | | B 부모, 동창3명 | 1 | 2 |
| | | C 동창1명, 학교친구1명 | 6 | 12 |
| | | D 동창 2명 | 1 | 6 |
| | 남 | A 학교친구1명, 선배1명, 부모 | 2 | 3 |
| | | B 여자친구, 동창1명, 부모, 학교친구2명 | 2 | 7 |
| | | C 여자친구, 부모, 학교친구 1명, 동창 1명 | 3 | 3 |
| | | D 부모, 대학친구3명, 후배1명 | 2 | 2 |
| 30대 | 여 | A 남편, 가족, 직장동료 1명, 수영동료1명 | 2 | — |
| | | B 부모, 남편, 직장동료1명 | 2 | — |
| | | C 남편, 가족, 딸친구엄마, 교회동료1명 | 1 | 1 |
| | | D 과거직장동료, 가족, 동창 1명 | 3 | 1 |
| | 남 | A 부모, 선배, 후배, 선생님 1명 | 1 | 1 |
| | | B 여자친구, 동창2명, 선배 2명 | 2 | 3 |
| | | C 후배1명, 동생 | 1 | — |
| | | D 가족, 동창1명, 군대친구1명 | 1 | — |
| 40대 | 여 | A 남편 | 1 | — |
| | | B 남편, 친구2명 | 2 | — |
| | | C 남편, 자녀 | 1 | — |
| | | D 가족, 직장동료, 업무관계인, 동창 | 8 | 2 |
| | 남 | A 아내, 직장동료 | 3 | 1 |
| | | B — | — | — |
| | | C 아내, 가족 | — | — |
| | | D 아내 | 1 | — |

없이 계획하고 실행하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한다. 이에 따라 상대에 대한 가상적인 실재감은 가상적 상태로만 머물지 않고 물리적인 상호작용 혹은 실질적인 만남을 만들어가는 조건이 되고 있다. 실제로 인터뷰 대상자들이 자신의 ‘모바일 친구’ 구성원과 주고받는 대화의 내용 중 자신 혹은 상대의 현황에 대해 알리고, 보이지 않는 상대와의 실제 만남을 만들어가는 대화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아침에 학교 올 때 만나서 같이 가는 친구하고 맨 날 버스 시간 때문에 문자 보내요. 지금 어디쯤인가. 연락 오면 버스 안에서 애들하고 얘기하고 가고... 학교 가 선 애들하고 수업시간에도 몰래 문자하고, 쉬는 시간에도 계속 문자하고. 전화 좀 하고(10대여D).

집에 오는 길에는 (친구들과) 통화하고요. 학교에서도 문자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러다 시간이 맞으면 맞는 사람들끼리 해서 만나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저 혼자 가만히 못 있고 계속 문자를 보내며 핸드폰을 가지고 잘 노는 편이에요. 그렇게 놀다가 시간이 된다면 그러면 ‘잠깐 보자’ 해서 같이 놀다가 집에 갈 때쯤 되면 이제 헤어지고, 그러고 나서 ‘잘 들어갔냐.’ 이런 문자 보내고. 전화를 꼭 들고 다니면서 놓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자인데도 많이 보내고 많이 받고... 그리고 자기 전에 제가 자기 전에 전화를 한 시간 정도씩 하는 사람이 두 명 있어요. 친구랑 수다 떨고, 항상 전화를 하다 자고(20대여C).

저는 여자친구가 있으니깐 여자친구랑 전화를 많이 해요. 또 여자친구가 같은 학교거든요. 자주 필요하니깐 (전화를 많이 하죠)... 같이 있는 사람한테 전화를 더 많이 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있는 사람보다는 같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니깐. 지금 일단 뭐 뭘 할까 할 때에도, 밥을 먹더라도 같이 있어야 되고 하니깐... 없으면 전화를 하게 되죠. 일단 가까운 사람한테 더 많이 쓰게 되죠(20대남C).

40대 인터뷰 대상자의 경우 휴대전화 때문에 사회적 관계가 강화되고 발전된다는 점에 동의하지 않았다. 더 나아가 물리적인 경험이 아닌 가상적인 실재감을 통해 사회적 관계가 유지 혹은 관리되는 것이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실제적인 경험에서 소외된 현상이라며 거부감을 표현하기도 한다.

얼굴을 보거나 전화로 음성을 듣거나 그러면 그런 느낌(항상 같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전해질지는 몰라도 굳이 핸드폰 때문에 유독, 핸드폰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40대여B).

나는 다른 사람을 통해 반대느낌을 받았어요. 길을 가다 보면 사람들이(휴대전화를 이용하며) 혼자 말하면서 가잖아요. 보통 친구하고 같이 갈 때 옛날에는 대화를 하고 가거나 혼자 갈 땐 입을 다물고 가잖아요.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런데 이렇게 막 혼자 전화 걸면서 중얼중얼 말하면서 가잖아요. 그걸 보면서 오히려 현대인들이 전부다 자기 혼자 있잖아요. 개개인 자기 혼자 옆 사람하고 상관없이 혼자 지껄이잖아요. 상대는 멀리 있겠지만 우리 눈에는 일단 눈에는 안보이잖아요. 이러다가 개개인이 정말 나 홀로 주의로 가는 거 아냐? 이런 느낌 저는 받았어요 (40대여 A).

10대, 20대 인터뷰 대상자들은 사회적 관계가 물리적인 만남뿐만 아니라 서로의 가상적 실재감을 느끼며 유지 혹은 강화됨으로써, 이들은 항상 가상적으로 ‘연결(connectedness)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자 한다. 즉,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서로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걸려오는 메시지나 통화를 놓치지 않고 확인하기 위해 벨소리나 진동 등 수신 모드를 조정하고, 장소의 고유한 맥락에서도 쉽게 벗어나 ‘연결’ 상태를 유지한다. 수업 중에 상대방과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다가, 심지어 걸려오는 연락을 놓치지 않기 위해 벨소리를 유지하는 태도까지 발견된다. 또한 걸려오는 연락에 순간순간 즉각적이고 현재적인 반응을 보임으로써 연결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시킨다.

저는 항상 벨소리에요. (질문: 학교에서도?) 예. (질문: 수업시간에도?) 예. (질문: 극장에서도?) 예. (이유는?) 평소에 진동을 잘 못 느껴서 친구들이 하도 뭐라고 해서 그냥 웬만하면 벨소리로 해요(10대여A).

(휴대전화로) 하루 종일 그냥 하고 싶은 얘기 다 해요. 아침에는 오늘 날씨 좋다, 그런 걸로 시작해서 학교 지각하겠다, 이런 것도 보내고. 그쪽에서도 나 지금 무슨 시간인데 뭐해? 이런 거 보내고...(10대여C).

중학교 동창한테 학교에서 점심때 잘 먹어라, 문자 보내고... 집에서는 게임 같이 하는 친구한테 언제 들어 올 거냐?, 곧 들어가겠다. 그런 걸 문자로 주고받아요(10대남A).

(학교친구에게) 계속 연락을 하게 되요. 이유 없이 그냥 심심해도 연락을 하게 되고요. 그냥 수업을 같이 들을 때 빼놓고는 아무 생각 없이 ‘어디 간다’, ‘기분 안 좋아’, ‘수업 재미없어’, 계속 문자 보내죠(20대여A).

10대, 20대가 상대와의 ‘연결’에 상당히 민감한 반면, 40대의 휴대전화를 통한 ‘연결’의 민감도’는 다소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항시 상대방과의 연결을 기대하고 유지하는 젊은 층에 비해, 휴대전화를 소극적으로 이용하는 대부분의 40대 인터뷰 대상자는 연락을 주고받을 필요가 있을 때만 휴대전화 이용이 이루어지는 불연속적인 연결 상태(discontinuous connectedness)를 유지한다. 휴대전화를 이용하고 있지만, 몸에 익은 혹은 일상적으로 체화된(embodied) 테크놀로지라기보다는 필요에 의해 혹은 상황에 따라 사용하는 편의품이다.

저는(핸드폰 소리를) 못 느껴요. 핸드폰을 가지고는 나가요. 그런데 있다는 거는 잊어버려요. 공공장소에 가면 핸드폰은 저한테는 가깝지 않다는 물건이죠. 나도 한번은 진동을 해놓고 핸드폰을 여기 가방채로 나뒀어요. 봤더니 13통이 왔어요.(남편이) 할 때까지 해본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쫓겨나(웃음)(40대여C).

음식점이나 시댁에 갈 때는 한 사람만 가지고 가요...(하지만) 백화점이라든지 마트라든지 이런 큰 공공장소는(휴대전화) 각각 필요한 거 같아요. (남편과 구매 취향이 다르니까). 뭐 사다보면 난 저거 사야 되고... 한쪽이 만약에 안 들고 갔을 때는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일일이 찾다가 보면 짜증나죠(40대여D).

2. 물리적 만남과 모바일 만남

한편, 휴대전화의 이용으로 인해 계획에 없었던 즉흥적인 만남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대부분의 인터뷰 대상자들은 “할 일 없을 때”, “심심할 때”, “갑자기 기분이 ○○해져서”, “갑자기 생각나서”, “근처에 지나가다” 등 개인의 당시 기분과 감정

에 따라 즉흥적인 만남을 실행하는 경험을 가지고 있다. 물론 10대, 20대 인터뷰 대상자에게 좀더 빈번하게 일어나고, 40대 남성 인터뷰 대상자의 경우 즉흥적 만남을 별로 갖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연령별, 개인별 휴대전화 이용의 패턴에 따라 즉흥적인 만남의 빈도수가 다르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휴대전화 이용에 따른 즉흥적 만남의 내용은 대부분 유사한 성격을 갖는다. 즉, 휴대전화를 통해 자신의 일정에 없던 만남을 즉흥적으로 만들고, 다른 장소에 있던 사람들을 순간적으로 끌어모으며, 물리적인 만남 혹은 상호작용을 한다는 것이다. 계획에 없었던 순간적인 만남인 만큼, 만남의 요구를 받은 사람은 별다른 부담없이 참여여부를 결정하고, 주어진 시간에 물리적인 만남이 가능한 지역 범위 내에 있는가에 따라 즉흥적인 만남이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즉흥적인 만남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엄마랑 신발 사러 백화점에 갔는데 뭐 살까 고민하다가 친구에게 전화해서 물어보며 결정을 계속 안하여 엄마가 그냥 집으로 갔다. 나는 집에 가기 싫어서 친구에게 전화랑 문자로 ‘너희 집 쪽인데 나와. 나 심심해’ ... 근처 놀이터에서 만나서 이야기만 3시간 하다가 다시 엄마를 내가 있는 쪽으로 불러 신발을 사러 갔다(10대여B, 자기보고서 中).

작년 내 생일에 낮에는 수업이 있어서 친구들과 저녁에 대학로에서 만나기로만 약속되어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수업이 휴강되는 바람에 중간에 시간이 텅 비어버리게 되었다. 그 약속을 잡았던 친구들 몇 명에게 연락을 해보았으나 다들 약속이 있는 관계로 오랜만에 수원에 있는 친구에게 연락을 해서 오늘 생일인데 일 없으면 밥 사달라고 전화를 하였고, 그 친구도 때마침 약속이 오후에만 있고 해서 안양에서 만나기로 했다(20대남B, 자기보고서 中).

즉석 소개팅이나 미팅에 한 사람이 공백이 생겼을 때, 핸드폰으로 연락하고 연락되면 바로 소개팅이나 미팅에 참가한다(30대남A, 자기보고서 中).

기분이 울적하거나 고객과의 약속이 취소되었을 때, 또는 전혀 일할 마음이 나지 않을 때 동료들에게 전화해서 커피숍이나 영화를 보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아주 친한 친구이며 같이 마음이 통하는 경우 10분전이나 갑자기 전화해도 가능할 수 있다(40대여D, 자기보고서 中).

휴대전화가 시공간에 구애 없이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인터뷰 대상자들은 좀더 ‘합의의 과정’을 거친 약속을 계획하거나 약속 시간 및 장소도 좀더 느슨하고 유연한 형태로 정하는 경향을 보인다. 휴대전화를 통해 가능하여진 시공간의 ‘미시적 조정’으로 이루어진다. 만남의 장소가 ‘가변적인 다중 지점’으로, 만남의 시각이 특정 시점 보다는 서로가 공감하는 시간대로 확대되면서, 약속 시간을 지키거나 장소를 변경하는 문제에 대해 상황에 따라 좀더 유연하게 대처하게 된다. 만남의 장소도 또한, 장소의 인지도가 높은 폐쇄적 공간에서 뿐만 아니라, 서로의 위치에 따라 개방적 공간에서도 만남의 접합지점을 찾을 수 있다.

저녁에 집에 있으면 친구에게 문자가 온다. “너 내일 학교 끝나고 뭐해?” “아직 몰라, 왜?” “내일 끝나고 만나!” “왜? 뭐하게?” “그냥... 밥먹고 얼굴이나 보게. 볼거지?” “생각 좀 해보고. 근데 어디서 몇 시에?” “너 학교 끝나고 연락해. 나 명동에 친구랑 있을게.” “알았어. 내일 연락할게. 잘 자.” 다음날, “너 어디야? 나 끝났어?” “명동. 명동와서 연락해.” “알았어. 기다려...” 잠시 후, “너 어디야? 나 도착.” “티니 위니(옷가게이름) 앞으로 와.” “알았어. 지금 간다. 먼저 와서 기다려.” “알았으니 빨리 와!”(20대여C, 자기보고서 中)

휴대전화의 있음으로 해서 바깥에서 약속장소를 많이 정하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휴대전화 없이 항상 다방이면 다방, 건물 안에서 약속을 많이 정했는데 요즘은 바깥에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편리한 것 같아요(40대여B).

또한 자신이 있는 접촉할 수 있는 범위에 있는 사람이나 만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사람과 즉흥적인 만남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계획에 없는 감성적인 만남이 좀더 쉽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휴대전화는 상대방과 만날 수 있는 가능성(availability)을 타진해주고 물리적 만남으로의 이행 과정을 가상적으로 확인하거나 효과적으로 진행시킬 수 있게 해줌으로써 대부분의 인터뷰 대상자들은 고정된 시공간에서 탈피한 약속 혹은 만남의 기회를 경험하게 된다.

제 5 절 휴대전화와 공적공간의 역할 변화

1. 공적공간의 사사화

대부분의 인터뷰 대상자들은 ‘모두에게 공유된(common to all)’ 공공장소의 공공적 성격에 따라 자신의 휴대전화 수신 모드를 조정하고 있었다. 자신의 ‘연결’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와 공공장소의 성격에 대한 인식 혹은 공적 장소의 공공성에 피해를 주지 말아야겠다는 의식을 견주어가며, 벨소리, 진동, 무음, 꺼놓음 등의 수신 모드를 변화시키고 공적공간의 공공성에 대해 나름대로 대처하고 있다. 물론 ‘연결’에 민감한 몇몇 10대 여성 인터뷰 대상자의 경우, 장소의 공공성보다는 연결 상태 유지를 보다 중요시했지만, 대부분 인터뷰 대상자들은 공공장소의 성격에 따라 자신의 수신 모드나 수신 태도를 조정하였다.

저는 항상 켜놓고요. 수업시간에는 진동으로 해 놓는데, 유독 전화가 계속 오는 날에는 어쩔 수 없이 끄죠. ... 버스 타면 대개 잘 자기 때문에 진동으로 해놓고 이렇게 손에 쥐고 자다가 문자 오면 깨서 받고...(20대여D)

저는 영화 보는 걸 무척 좋아해서 영화관에서 핸드폰을 켜두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전시장 이런 곳도 잘 가는 편이라서 그런 장소에서는 거의 꺼두는 편이에요. 중요한 일이 있거나 그러면 진동으로 해뒀다가 전화가 딱 왔다 그러면 얼른 끄고 아니면 이렇게 살짝 “문자로 보내” 하거든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는 거의 진동으로 해두는 경우가 많고요... 보통 때는(벨소리로) 켜두고 버스나 이럴 때는 거의 진동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20대여C).

요즘에는 워낙 학교에서만 있다 보니깐 도서관에 있거나 강의실 있으니까 거의 진동으로 해놓거든요. 집에서도 의식적으로 벨로 안 바뀌고 항상 에티켓 모드라고 하죠. 항상 그렇게 나눠두고 있는데. ... 제가 고시반 도서관에 있는데 거기서는 문자 보내는 소리도 되게 신경 쓰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문자를 아예 무음으로 해놔요(20대남C).

저도 공공장소, 전철이나 극장에선 진동으로 하고요. 또 이야기를 할 때는 항상

진동으로 하는데... 일 년에 정말 한, 두 번 가는 음악회에서는 한 시간 정도 꺼놔요. 진동도 소리가 나니까(30대여C).

저도 찜질방 같은 데에는 아예 안 갖고 가요. 그러니까 제가 신경 쓰는 일은 참 싫어하나봐 성격이... 이렇게 말씀 나누다 보니까... 다 놓고 가고. 영화를 본다, 볼링장 간다, 그러면 일단 다 꺼놔요. 신경 쓰는 거 싫어요. 방해받는 게 싫고 해서...(40대여A)

이동 중 휴대전화 사용을 자제하는 인터뷰 대상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일단 통화 여건이 좋지 않다는 점을 꼽는다. 대중교통 수단이 주는 소음으로 인해 원활한 통화를 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든다. 또한 자신이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데에서 사적인 용무를 본다는 것에 대해 불편함을 드러내기도 한다. 개인의 사적인 이야기가 남에게 노출된다는 점 때문에 휴대전화 이용을 자제한다.

일단은 공원이나 버스나 지하철이나 저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공공장소잖아요. 핸드폰으로의 심한 대화는 자제를 해야 된다고 봐요...(그래서) 핸드폰이 와도 최대한, 최소한의 통화를 하려고 그러죠. 안부 같은 것은 제가 지하철을 나가서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경우는 안하게 되죠. 저. 만약에 제가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여자 친구가 ‘자기야 보고 싶어’ 이런 애길 하는데 ‘어디야’ 라고 물었을 때 지하철이라고 하면 제가 화끈거려요. ... 여자 친구가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는 몰라도. 대중교통 안에서 개인적인 내용을 얘기한다는 것은 부적절하고, 또 사무적인 내용이 중요하다 그래도, 가능한 한 줄이는 게 예의상 맞죠. 다른 사람에게 피해 줄 수도 있고...(30대남B)

지하철 타면서(이동) 전화를 하면 제일 좋은 장소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투리 시간이니까. 그런데 여건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주위 소음이 굉장히 시끄러워요. 통화가 하기가 힘들 정도로 상대방 목소리가 잘 안 들리고. 그리고, 물론 잘 끊기는 것도 있고 자기 소리도 상대방에게 전달이 잘 안되고, 크게 내려고 하니깐, 옆 사람에게 피해되고 크게 못 내죠... 기술이 잘 발달되어 가지고 속삭이는 목소리까지도 전달이 가능하다면 지하철에서 통화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아요... 자투리 시간이니까(30대남D).

휴대전화의 발전으로 모든 공적공간의 사적 공간화가 무조건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은 자신이 생각하는 공적공간의 공공성 정도 혹은 휴대전화 이용욕구에 따라 휴대전화 사용을 조절하고 있었다. 휴대전화 이용으로 이동중의 시간은 활용 가능한 자투리 시간이 재인식되고 있다.

공적 장소에서의 휴대전화 이용이 확산되면서 공적공간에서의 휴대전화 이용에 대한 사회적 규범이 새롭게 형성되고 있다. 인터뷰 대상자들이 공적공간에서 자신 혹은 주변 타자의 휴대전화 이용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우선 자신의 휴대전화 이용에 대해 관대함의 정도에 따라 남에게도 관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공적공간에서 휴대전화 이용 빈도가 높은 인터뷰 대상자의 경우, 자신의 이용에 관대한 만큼이나 상대방의 이용에 대해서도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다만, 지극히 사적인 이야기나 “비밀스런” 진지한 이야기는 남들에게 노출될 수 있는 장소를 피해서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주변 사람들의 익명성 때문에 거리낌 없이 사적으로 중요한 이야기를 한다는 사람도 있다.

저는(공공장소에서의 휴대전화 이용을) 신경 안 쓰는 편이에요. 중요한 얘기는 가려가면서 하고. 아주 비밀 얘긴 안 해요(10대여A).

저는 오히려 모르는 사람이니까 막 하는데. 중요한 얘기도. 아는 사람이 있으면 신경 쓰이죠... 제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래도 뭐라고 못하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죠(10대여B).

(공공장소에서 휴대전화 통화를) 크게 해도 상관없어요. 한, 두 사람 그러는 거니까(10대남B).

저는(공공장소에서) 문자는 별로 신경 안 쓰고요. 전화는 좀 신경 쓰여요. 주위가 굉장히 조용하면 제 통화소리가 다 들리잖아요. 그래서 신경이 쓰이니깐 버스 타면 주로 창가 쪽에 앉거든요. 전화가 오면 이렇게 붙어 가지고 되게 조용조용 얘기를 하는데, 공공장소에서 하기 힘든 사생활 얘기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있다가 내가 전화할게” 하고 얘기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 들리지 않은 정도로 이야기해요(20대여C).

저는 뭐 그게 좀 일상화 되어있는 것 같아요. 뭐 공공장소나 대중교통 이런 데서 통화를 하고 문자를 보내고 이런 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여져요. ‘아, 그냥 통화하거나 전화하나보다. 오락 하는가보다.’ 그게 굳이 뭐 내 기준으로 좀 목소리가 너무 크거나 아까 누나가 얘기했듯이 뒤에서 혼자 목소리 되게 크게 얘기하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제 기분에 꺼릴 이유도 없고, 그 사람의 사생활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죠(20대남C).

인터뷰 대상자들이 공적공간에서의 휴대전화 사적 이용에 대해 조금씩 다른 관용도를 보이지만, 휴대전화로 인한 소음에 대해서는 대부분 관용도가 떨어진다.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어느 정도 존중할 수 있으나, 휴대전화 이용자가 내는 소음이 주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문자는 상관없는데 시끄러운 건 좀...(10대남A)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하거나 오락을 하거나 다 자기 자유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만 안 가게 하려는 될 것 같아요.(그런데) 그냥 나이 든 사람 말고 학생들도 막 어린 애들도 막 시끄럽게 통화하는 거 많이 봤거든요. 특히 여자들은 목소리가 카랑카랑 울리잖아요. 큰 목소리로 “야, 어저께 봤는데, 애 완전히 폭탄이야” 이러면 되게 썩 거슬려요. ...(휴대전화 이용은) 다 해도 상관없다고 보는데, 주위사람한테 피해는 안 줬으면 좋겠어요(20대남A).

경로석 앉은 아저씨가 “어 나야 어 가고 있어”하고 목소리 되게 크게 하는 거예요. ... 이상해요. 무슨 어디 사장인지, 자기 만에 뭐가 있나 봐요. 그런 사람은 되게 싫어요(20대남B).

저는(대중교통수단에서) 일부러 통화를 하지는 않고요. 걸려오는 건 필요에 따라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끄러운 아저씨들이랑 아주머니, 나이 드신 분들, 회사 일이 바쁜 건 알겠는데, 너무 주변 의식 안하고 거의 회사 사정 다 알 정도로 떠드는 거 되게 싫어서 췌려보기도 하거든요(30대여D).

목소리도 들어보면 상대방이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 지를 대략 알 수 있잖아(그렇죠. 웃음) 전화를 들으면 실내에 있던가. 실외에 있던가. 목소리가 틀리잖

아요.(한번은) 여자가 버스 타면서 내릴 때까지 전화를 하더라고요. 성질 나가
지고 보는데 신경도 안 쓰고. 내가 한 마디 했어요. ‘대중교통에 조용하라’고.
그랬더니 전화기를 딱 끊더라고요. 내릴 때도 같이 내렸는데, 뭐라 하라고 했
더니 뒤도 안돌아보고 가더라고요(40대남B).

대중교통 수단과 같은 공적공간에서 휴대전화 이용으로 인한 소음은 타인에게 피
해를 줄 수 있다는 인식이 지배적인 경향을 보이면서, 대부분의 인터뷰 대상자들은
이 같은 공간에서 휴대전화 이용 시 자신의 통화 목소리를 줄이거나 벨소리를 진동
혹은 무음으로 바꾼다. 휴대전화 이용으로 공적공간에 사적 사회공간을 만들 수 있
지만, 커뮤니케이션 조건이 여전히 물리적인 조건, 예를 들어, 주위의 소음이나 주
변 사람들의 시선으로 인해 주변 상황에 완전히 독립적인 사회공간을 갖지는 못하
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종종 간단히 통화를 마치고 좀더 대화에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 다시 커뮤니케이션을 재개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공적공간의 휴대전
화 이용에 대해서는 자신의 이용 정도에 따라 관용도가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휴대전화 통화나 벨소리가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인식하며 휴대전화 이용으
로 인한 자신의 ‘소음’ 수준에 신경을 쓴다. 자율적으로 자신의 소음 수준을 조절하
며 ‘모두에게 공유된’ 공적공간에서의 휴대전화 이용을 일상화해가고 있는 것이다.

2. 사회반응적 공간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으로 제공되는 다양한 서비스들은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고
있다. 결제서비스와 날씨, 뉴스 등의 생활정보서비스 등이 제공되어지면서 간단한
정보들은 원하는 때에 검색이 가능하여졌다. 그러나, 이들 서비스들은 그들 서비스
내용의 폭이 넓지 않아 이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다.

제 친구 한 명은 문자 서비스를 받아요. 경기, 스포츠, 그거는 주요경기를 자기가
해야 할 것을 종류를 선택해 가지고 몇가지. 월드컵 관련 소식 몇가지 하면 10분에
한번씩 문자가 와서 생중계 해주고 문자로. 그런 서비스를 받더라고요. 그러는 한

명만 해 놓으면 괜찮은데 모두 다 할 필요가 없잖아요. 한명만...(20대남B)

버스 위치 도착알리미. 그걸 쓰려고 해당 번호를, 제가 이용하는 버스로... 해봤더니 제가 타는 버스는 아직 서비스가 안돼서.. 언제 업데이트 되려는지? (30대여D).

특히, 40대 이상인 경우에는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용의 중요성과 편의성이 크게 인식되어지지 않고 있었다.

지하철 타면 TV있잖아. 나 그거 잘 보거든요. 있으면 보겠죠. 그거(지하철 TV) 안쳐다보고 이거(휴대전화 멀티미디어 서비스) 보겠죠. 아... 그런데 소리가 나고 그러니까... 남들을 좀 의식하지 않으려면.. 이어폰 같은 것을 껴야 되지. 귀찮겠다 (웃음)(40대여B)

현재도 많은 서비스가 있는데 지금도 많은 것을 거의 이용을 못하고 있잖아요. 못하고 있어요. 저는. 예를 들어 그런 거는 괜찮은 거 같아요. 카드 쓴 것을 문자로 보내준다던가 그런 거는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특별히 더 많은 거를... 현재 있는 것도 제대로 못쓰고 있는데.. 대부분 이 나이또래가 휴대폰을 주로 받는데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것저것 의도는 좋은데 젊은 사람들은 많이 하는데 이 또래는 삶을 산 다음에 핸드폰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다양하게 쓰지는 않는 것 같아요(40대남A).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제공받고자 하는 서비스는 인터넷 등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 내용보다는 공간과 관련된 서비스 요구가 컸다. 정확한 대중교통정보서비스와 해당 지역정보의 실시간 수신 등이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에 요구되는 서비스들이었다.

(DMB 서비스 가운데) 애니메이션은 볼 것 같아요. 그런데, 비싸잖아요. 휴대전화기로 내리는 시간 동안에 휴대전화가(사용) 되는 거라서 돈이 너무 많이 나와요. 차라리 집에서 인터넷으로 보는 게 낫지요(10대여B).

저 같은 경우엔 별로 안 와 닿는데, 갑자기 정해놓지 않고 어딜 갔을 때... 신촌에 오랜만에 갔는데 그런 기능 있죠? 몇 번 해봤는데 저한테 맞는 곳을 검색하면 갈 만한 데 나오고, 그런 것들... 검색하면 각자 구미에 맞게 그런 정보들이 뻗으면 좋

졌어요. 맛 집 같은 거. 남자들은 스포츠 몇 대 몇으로 이겼는지, 그런 거 관심 많잖아요(30대여C).

웰빙에 관한 거나 먹고 사는 것과 관련된 정보... 근처 백화점의 세일 정보 등을 내가 찾는 게 아니라 딱 맞춤 서비스로 버튼 하나만 누르면 관련 정보들을 짹~ 보여주는 그런 것이 있었으면 해요(40대여B).

그리고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는 서비스내용과 더불어 요금의 문제도 크게 작용하고 있었다.

비싸잖아요. 핸드폰에 내리는 시간동안 핸드폰이 되는 거라서 돈이 너무 많이 나와요. 받는 것도 돈 내고 받아야 하는데.(10대여B)

그래도 요금이 만만치 않아서 그렇게 사용은 안할 것 같아요.(20대남A)

전.. 가격이 싸진다면 날씨 같은 것은 막 집에서 급하게 나오다 보면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때그때 날씨같은 것 확인하고 주변 음식점 정보도 보고.. 음악이나 뮤직비디오 같은 것 다운받고.. 핸드폰 음악 계속 받긴 하잖아요. 그런데 되게 비싸더라고요. 잘 다운 안 받는데...(20대여A)

그래서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사용하다가 관뒀어요. 정보료가 너무 많이 나와서요. 데이터도 데이터요금이지만 통신료가 너무 많이 나와서 한 번 또 속았다는 생각하면서... 그런 경험에 상응하다 생각했고.(30대여D)

저는 지금 뭐 이정도면 옛날 같으면 다 활용을 못하는데. 홀룡하죠 뭐 카드 쓰는 거 쓰더라. 결제되니까 애들 쓰는 거 다 쓰더라고. 승인 됐다고 더 이상 바랄 거 없지요 뭐. 요금이라도 조금 썼으면...(40대남B)

공적공간이 물리적 만남의 장소로서 활성화되어지고는 있지만, 사람들의 요구에 반응하면서, 휴대전화의 상호작용 대상자이자 주체자로서 활용되어지는 데는 몇가지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다. 앞서도 계속 언급된 지역정보 등 제공서비스의 내용과 요금의 문제이다. 정보화와 관련한 정부정책에 관심이 많은 30대 남성인터뷰자의 이야기는 이를 더욱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다.

(새로운 모바일기술의 발달에 대해서) 저는 세 가지정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콘텐츠 문제인데, 콘텐츠의 질이 문제입니다. 그만큼(질의) 담보가 안 된다는 거죠. 물론 기술의 발달로 그런(질이 담보되는) 시기가 오겠죠. 그렇게 됐을 때 핸드폰에 대한 의존도나 그 이외 여러가지 많은 변화가 있겠죠. 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요금의 문제입니다. 사실 콘텐츠가 질에 따라서 얼마든지 요금을 널만한 용의가 있다면 그 정도는 개의치 않는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의 문제입니다. 내가 원치 않는데, 내 개인정보가 새어 나간다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버스나 위치 정보 등은 이미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제공했을 때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핸들링하는 주체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원하지 않는데, 아무리 가치있는 정보가 온다고 해도 일단은 기분이 나쁘고 음모론적인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일단은 앞서 이야기 한 세가지가 충족되어야 시스템적으로 구축되었어도 이용이 가능한 것이지, 그 중에 어느 하나라도 안 되어 있으면 이용을 안 한다는 거죠(30대남B).

유비쿼터스 통신환경 등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달은 사회반응적 공간을 형성하리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고 있다. 하지만, 공적공간에서도 사회반응적 공간이 구성되기 위해서 제공되어야 할 인프라나 서비스는 충족되어야 할 기반이 여러가지로 고려되어야 한다.

제 5 장 종합 및 시사점

제 1 절 모바일과 도시공간 변화의 종합적 이해

1. 휴대전화와 공간변화에 대한 종합적 이해

본 연구는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의 발달로 인한 사회적 변화들을 커뮤니케이션에 한정하지 않고 전체적인 변화들을 파악하여 일반화시키고자 하였다. 사회적 변화들은 개인의 공간, 사회공간, 공적공간의 세가지 공간으로 나누어, 휴대전화로 인한 시공간 활용의 변화와 사회적 관계 및 사회공간의 구성, 그리고 공적공간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기존 연구와 논의들을 중심으로 한 제2장의 이론연구를 토대로 제3장과 제4장을 통한 실증분석을 시행하였다. 제3장에서 이루어진 정량적 실증분석결과는 더 심화되고 상황맥락적인 제4장의 심층집담회의 사례를 통해서 면밀히 재검토되고 입증되었다(〈표 5-1〉 참조).

연구문제 따른 종합적 결과를 하나하나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으로 인한 개인의 시공간 활용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살펴본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시간과 공간의 의미변화를 보았다. 물리적인 장소 구속성에서 벗어나서(63.8%) ‘활용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개념을 강화시킴으로써 일정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게 되었으며(64.8%) 새로운 활동공간을 형성하게 되었다는데 대체적으로(60% 이상) 높게 평가하였다. 특히나, 시공간의 미시적 조정이 용이하게 되었다는 것이 일시적 공간을 형성하게 되었다는 휴대전화의 활용성보다 높았다.

다음으로 개인의 이동중 시간의 의미와 활용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한 만남과정의 유연화 정도에서 29.0%만이 시간이나 장소를 확정하지 않고 조정해 나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남의 장소나 시간에 대한 ‘합의의 과정’으로 상대적 상황을 이해하게

되고 만남 진행의 불안감과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있었다. 전체 만남 과정 가운데, 시간과 약속의 조정 비율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것은 지근의 사람들과 유사한 시간 패턴을 가지고 있어서 시간조정이 불필요하며, 공유하고 있는 장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의 사용에 따라 공간의 고유성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나 바뀌었는가를 휴대전화로 인한 ‘일시적 공간 형성’ 경험으로 알아보았다. 그 결과, 새로운 활동공간을 형성(60.3%) 하지만, 일시적 공간에 대한 경험 정도가 깊지 않고 (16~34%) 실재공간에 대한 현존감을 유지(50% 이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연령대나 성별과는 달리, 특히 10대 여성의 경우는 현재 공간과 휴대전화를 통한 가상공간을 동시에 공유하고 있었다.

둘째,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으로 인한 사회관계와 사회공간의 구성을 살펴보고자 먼저 휴대전화로 인한 사회관계성의 양과 깊이의 변화를 알아보았다. 휴대전화를 통해 만나는 사람의 수가 늘어났으며(77.1%) 사람들간의 친밀도(68.1%)가 강화되었다고 생각한다. 연결망의 범위, 즉, 휴대전화로 맺는 관계의 범위는 상대적으로 확대되지 않았으며, 새로운 만남의 기제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기존의 인간관계를 지속시키거나 강화하는 매체라고 할 수 있다.

휴대전화는 사회관계의 범위와 관계성의 깊이에만 영향을 준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언제나 어디에서나 원하는 상대방과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는 느낌을 줌으로써 정서적 유대로 안정감을 주며, 항상적인 사회공간이 존재하는 것처럼 여기게 한다. 2명의 모바일친구와 하루에 4.4건의 통화나 문자메세지를 교환하고 있다. 10대나 20대는 모바일친구와의 가상적 실재감이 친밀감을 더욱 높여준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모바일 커뮤니케이션과 물리적 만남과의 상호성을 전체 만남의 횟수와 즉흥적 만남의 횟수로 살펴보았다. 휴대전화로 만남의 가능성 타진이 용이하게 됨으로써 즉흥적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만큼 물리적 만남의 횟수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모바일 공간행태가 도시공간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에 앞서 공적공간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았다. 공적공간에서는 공공성이 우선되어야 한다는데 74.3%가 동의하지만, 통신의 자유에 대해서는 29.5%만이 긍정적인 것으로 공공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 통신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최근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관련 주요 이슈가 되고 있는 ‘공적공간의 사회화’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공간특성별 휴대전화 수신행태와 규제방식을 조사하였다. 분석결과, 개별적 공공장소에 대한 공적공간의 인식은 차별적이어서, 회의실과 도서관 등의 한정적 행위공간은 공적공간이라는 인식이(84.5%), 도로와 공원 등 다양한 행위공간은 반공적공간이라는 인식이(공적공간이라는 인식 21.8%) 강하였다. 그리고 휴대전화 수신행태 또한 공간특성별로 전자에 대한 통화자제는 61.3%인 반면, 후자에 대해서는 0.8%만이 통화를 자제하고 있었다. 심층집담회를 통한 결과에서도 공적공간의 공공적 성격에 따라 자신의 휴대전화 수신태도를 조정하며 공공성과 연결상대유지욕구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까지 공적공간에서의 휴대전화 이용행태에 대한 혼돈은 새로운 사회규범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조정의 과정인 것으로 판단된다. 규제방식에 대해서도 대부분이 개인판단(52.0%)이나 자율규제(47.3%)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더욱 다기능해지는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달로 향후에는 공적공간에 대한 수요(66.1%) 및 다양한 활동의 가능성이 더욱 확대되리라 여기며(64.1%), 모바일 통신인프라(공공시설정보서비스 61.3%) 보다는 모바일 통신서비스(교통정보서비스 64.1%)에 대한 요구가 약간 더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보다도 인프라와 서비스 제공에 우선하여 서비스 내용이나 요금 문제에 대한 정책적 방안이 우선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표 5-1〉 모바일 커뮤니티케이션과 공적공간의 변화

| 이론적 논의 | 2장(문헌 연구) | | 3장(경량적 실증분석) | | 4장(심층집담회) |
|-----------------------|---|--|---|---|---|
| | 연구문제 및 가설 | 조사내용 | 조사결과 | 조시분석 | |
| 모바일 커뮤니티션과 개인의 시공간 활용 | [연구문제 1] 모바일 커뮤니티션의 사용으로 개인의 시공간이 변화하고 있는가? | | 시간과 장소의 조정: 29.0% | 만남과정의 유연화 진행률 | 만남의 '합의의 과정' - 만남을 위한 가변적 다중지점화 - 만남과정의 불안감과 불확실성 최소화 |
| 시공간의 미시적 조정 | [연구가설 1-1] 모바일 커뮤니티션의 사용으로 개인의 이동중 시간이 의미 있어졌으며, 시간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하다. | | 만남과정의 유연화 정도 | 다의적 장소성 > 실제공간에 대한 이탈 파악 - 일시적 공간의 경험 정도는 높지 않음(16~34%) - 실제공간에 대한 원존감 유지(50%이상) - 다중적 공간의 공유: 실제공간과 가상공간 통합 | 가상공간과 실제공간의 결합방식은 실제공간의 상황, 커뮤니케이션 상대와의 친밀도와 규모에 따라 차이 - 다중적 사회공간의 공유(10대어) - 사회공간의 불연속성(10대어 이외세대) |
| 다의적 장소성 | [연구가설 1-2] 모바일 커뮤니티션의 사용으로 공간의 고유성(고유한 성격과 역할)에서 벗어난 다중적 공간 활용이 가능하다. | - 휴대전화로 인한 일시적 공간 경험 | 공원의 사무실화: 36.0% - 사무실의 데이트장소화: 31.1% | | |
| 모바일 커뮤니티션과 사회공간의 재구성 | [연구문제 2] 모바일 커뮤니티션으로 인하여 사회관계가 변화하고, 사회공간이 재구성되고 있는가? | | 사회관계성의 긍정적 인 변화 | | |
| 모바일 커뮤니티션의 향시적 연결성 | [연구가설 2-1] 모바일 커뮤니티션의 사용으로 개인의 사회관계가 긍정적으로 변화한다. | - 하루평균 1회 이상 휴대전화 통신자수 - 모바일 친구수 - 모바일 친구와의 상호작용량 (대화문자) | 모바일 친구수: 2명 - 모바일 친구와의 상호작용량: 4.4건 | 향상적인 사회공간 존재 - 사회관계성 진밀 | 가상적 실제감의 유지와 강화(10대, 20대) - 물리적 경험의 축적으로 가상적 실제감 형성(40대) |

| 2장(문헌연구) | | 3장(정량적 실증분석) | | | 4장(심층집담회) |
|-------------------------|--|---|--|--|--|
| 이론적 논의 | 연구문제 및 가설 | 조사내용 | 조사결과 | 조사분석 | |
| 물리적 만남과 모바일 만남 | [연구가설 2-2] 모바일 커뮤니케이션과 모바일 만남의 관계는 보완적이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즉흥적 만남 횟수 - 친체 만남 횟수 - 친체 만남 대비 즉흥적 만남 비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즉흥적 만남: 2.7회 - 친체 만남: 6.1회 - 친체만남 대비 즉흥적 만남 비율: 44.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의 효율적 활용이 즉흥적인 만남으로 연결됨 - 즉흥적 만남이 물리적 만남의 확대로 이어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남의 가능성 타진 용이 - 물리적 만남으로 이행과정을 효과적으로 진행 |
| 모바일 커뮤니케이션과 공적공간의 역할 변화 | [연구문제 3] 모바일 공간행태가 도시 공적공간의 기능과 역할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적공간 구분 특성별 휴대전화 수신여부 - 공간특성별 휴대전화 사용 - 휴대전화 규제방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실의 공적공간 인식자가 84.5%이며 통화자체 61.3% - 도로의 공적공간 인식자가 21.8%이며 통화자체는 0.8% - 휴대전화 규제방식: 개인판단(52.0%)과 자율규제(47.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정적 행위공간이 공적공간이라는 인식이 일반적이며 통화자체 다양한 행위공간이 공적공간이라는 인식이 일반적이며 자유통화 정함 - 휴대전화를 중요시한수록 제도적 규제를 필요로 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결상 태유 지속구와 공적공간의 공공성간의 적절한 균형유지 - 공적공간의 공공적 성격에 따라 자신의 휴대전화 수신태도 조정 - 공적공간에서의 사회적자기 자체 휴대전화 이용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규범이 형성되는 과정임 |
| 공적공간의 시사화 | [연구가설 3-1]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은 공적공간을 활성화시킨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발달과 활용 -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요구되는 모바일 서비스 - 통신서비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적공간 이용 수요 증가: 66.1% - 공적공간에서 다양한 활동 가능: 64.1% - 교통정보서비스 요구: 64.1% - 공공시설정보서비스: 61.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발달에 따른 공적공간의 다목적 활용 증가 기대 - 공적공간 이용을 효율화하는 정보서비스 요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적공간활용서비스 요구 - 서비스 내용과 요금 문제 |
| 사회반응력 공간 | [연구가설 3-2] 모바일이 고도로 발달된 미래사회에는 공적공간의 활용이 더욱 활성화된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발달과 활용 - 모바일 서비스 - 통신서비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적공간 이용 수요 증가: 66.1% - 공적공간에서 다양한 활동 가능: 64.1% - 교통정보서비스 요구: 64.1% - 공공시설정보서비스: 61.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발달에 따른 공적공간의 다목적 활용 증가 기대 - 공적공간 이용을 효율화하는 정보서비스 요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적공간활용서비스 요구 - 서비스 내용과 요금 문제 |

공적공간에서는 공공성 우선이며, 공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 통신의 자유

휴대전화의 다기능화(메일, 알람, 스케줄, 인터넷 등)와 일상화로, 휴대전화는 이제 단순히 커뮤니케이션 도구만이 아니라, 생활의 일부분이 되어가고 있다. 그리고 휴대전화는 ‘공’의 시간과 장소에서 사적 행위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사’의 시간과 장소화의 조정능력을 가지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개인의 공간과 사회공간, 공적공간을 변화시키고 있었다.

시간의 절대성과 공간의 한정성에 대한 실존적 한계는 여전히 존재하고 인정하나, 휴대전화의 매개가 되어 현재의 물리적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인지적인 시간과 공간을 형성가능하게 됨으로써 시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그리고 공간을 다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파악되었다. 더불어 휴대전화 버튼만 누르면 바로 다른 장소의 사람과 이루어지는 새로운 차원의 사회공간은 시간화된 공간, 즉 시간에 따라 바로바로 공간을 형성함으로써 공간을 더욱 다중적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휴대전화로 확장된 시간과 공간은 업무의 처리나 사회적 관계의 유지에 이용되어, 일정과 기타 시간(틈새시간)을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게 하며 물리적인 만남을 증가시키고 항상 함께 하고 있는 듯한 모바일 친구의 존재를 확인시켜 안정감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각적인 네트워크 연결성은 사적으로나 공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의 기회를 증가시켰으며, 이 커뮤니케이션의 확대는 즉흥적인 만남으로 이어짐으로써 물리적인 만남의 기회도 증가시켰다.

정보통신기술이 공간을 압축함으로써 물리적 만남을 대체시킬 것이라는 기술적 기대와는 반대로 실제적인 만남을 촉진하는 보완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변화하고 있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지만, 여전히 공간적 특성에 따른 활동의 제약은 공공적 측면에서 지켜져야 한다고 여기며 다만, 공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통신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인식되어지고 있다.

또한, 개인활동의 자유에 대한 개인적 욕구와 공공성간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면서 자발적인 휴대전화 이용 규범을 형성해 나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존 연구 논의에서 우려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공적공간의 사사화나 공간 규범 파괴 보다는 ‘공적공간의 활성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근대의 공적공간이

활성화되던 양상과는 조금 다른 방향, 즉 전체가 하나의 목적을 위한 공적공간의 활용이 아니라, 개별적 목적의 다양한 공적공간의 활용이 일어나고 있다.

2. 공간변화에 대한 설명변수 종합

휴대전화의 사용으로 시공간적 배치가 재구성되고 삶의 양상 자체가 변화하게 된 개인의 경험은 휴대전화를 더욱 필요한 존재로 인식하게 되어, 휴대전화의 중요도에 따른 인식적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 5-2>에서도 보이는 바와 같이, 개인의 공간인식은 사용량이나 연령, 직업 등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휴대전화 중요도와 관련성이 더욱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 휴대전화와 개인의 공간 경험 및 활용과 설명변수 종합

| | | 사용량 | 중요도 | 사회경제적 지표 | | |
|-----------------|-----------------------|--------------------|-----|----------|-----|-----|
| | | | | 성별 | 연령 | 직업 |
| 개인의 공간 경험 일반 | 시공간의 미시적 조정 | 장소구속에서 해방 | | ○ | | |
| | | 공공장소에서의 시간 효율화 | | ○ | | |
| | | 일정 효율적 조정 | | ○ | | |
| | 일시적 공간 형성 | 새로운 활동공간 형성 | | | | |
| | | 공간특정적 활동 이외의 활동 | | | | |
| | 모바일친구 | 항상적 친구 연결성 | | ○ | | ○ ○ |
| 물리적 만남 | 물리적 만남 횟수 증가 | ○ | ○ | | ○ ○ | |
| | 틈새시간을 즉흥적 만남으로 | | ○ | ○ | ○ ○ | |
| 시공간의 미시적 조정 | 만남과정의 유연화 | ○ | | | ○ ○ | |
| 다의적 장소성 | 다의적 장소성 | 공원의 사무실화 | | ○ | | |
| | | 사무실의 데이트장소화 | | ○ | | ○ |
| | 현재 공간에 대한 이탈 파악 | 주변상황 인식 | | ○ | | ○ ○ |
| | | 통화 상대에 열중 | | ○ | | ○ ○ |
| | | 현재의 상대 존재감 망각 | | ○ | | |
| | 하차 오류 | | ○ | | | |

시공간의 미시적 조정은 만남과정의 유연화로 개인의 공간 경험 가운데서도 사회 공간에 대한 경험에 가까우며, 사용량과 연령, 직업에 따른 차이를 보인다. 이를 제외하면 휴대전화로 인한 공간적 활용의 효율성은 휴대전화를 더욱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여기게 되며, 그로 인하여 공간을 더욱 다양하게 활용하게 되면서 휴대전화는 개인의 공간 활용과 ‘순환적 가치성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휴대전화는 다른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중개자로서 사회 공간을 더욱 의미있게 구성하고 있다. 휴대전화의 사용으로 가족과 친구, 업무상 관계의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하면서 사회관계의 폭이 넓어지고 관계성의 친밀감도 깊어지게 되었다고 받아들이고 있다.

직접 만나지 않고도 휴대전화로 인하여 사회공간을 형성함으로써 관계를 유지하게 되고, 휴대성, 네트워크성, 즉시성을 가진 휴대전화의 특성으로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누군가와 항상 연결되어 있고 언제든지 소통이 가능하다는 의존적 믿음을 주게 된다. 이러한 친밀한 사람들 간에는 하루에 1회 이상 통화하며 그날의 일, 그 시점의 상황과 감정을 교환, 공유하는 모바일 친구를 구성하고 있었다.

〈표 5-3〉 휴대전화와 사회관계의 변화 및 사회공간의 재구성과 설명변수 종합

| | | 사용량 | 중요도 | 사회경제적 지표 | | |
|--------------------|----------------------|-----|-----|----------|----|----|
| | | | | 성별 | 연령 | 직업 |
| 사회 관계의 변화 일반 | 사회관계성의 변화 | | | | | |
| 모바일친구와의 항시적 연결성 | 하루평균 1회 이상 음성통화상대자수 | ○ | | | | ○ |
| | 하루평균 1회 이상 문자메세지상대자수 | ○ | | ○ | ○ | ○ |
| | 모바일친구수 | ○ | | ○ | ○ | ○ |
| | 모바일친구와의 상호작용량 | ○ | | | ○ | ○ |
| 물리적 만남과 모바일 만남 | 전체 만남 횟수 | ○ | | ○ | | |
| | 즉흥적 만남 횟수 | ○ | | | | |
| | 전체 만남 대비 즉흥적 만남 비율 | ○ | ○ | | ○ | |

만남의 과정에 있어서는 고정적 시간과 장소가 아닌 상대의 시간과 공간적 상황을 이해하고 맞춰가는 유연한 만남이 이루어지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전화의 이용은 개인의 통제에 따라 사회공간을 구성가능하게 하고 상호작용 통로로 뿐만 아니라, 공유감을 통해 개인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공동체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 그리고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할수록 사회공간을 조절하는 능력을 가지게 됨으로써 휴대전화의 사용량에 따른 사회공간의 경험이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 5-3>에서도 보이는 바와 같이, 사회공간의 재구성은 성과 세대, 직업 등 사회경제적 지표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휴대전화 사용량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휴대전화를 통한 공간의 확장은 주로 공적공간에서 이루어졌고, 공적공간에 대한 인식과 행위를 변화시키고 있었다. 그리고 무분별하여 보이는 휴대전화의 사용은 공간특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정적 행위가 요구되는 공간이라 인식되어지는 곳에서는 가능한 한 휴대전화의 사용을 자제하는 편이나, 다양한 행위가 가능하다고 인식되어지는 곳에서는 자유로운 통화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공적공간에서의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규범방식 또한 한정적 행위만 가능한 공적공간에서는 자율규제로, 다기능적 행위가 가능한 공적공간에서는 개인의 판단에 따라 규제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 생각이다.

휴대전화로 인한 공적공간에서의 다의적 활동으로 공적공간의 의미는 새롭게 받아들여지고 지속적으로 발달되고 있는 모바일 통신서비스에 의하여 공적공간에 대한 수요와 기대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휴대전화의 이용으로 인한 공적공간의 긍정적 변화에 대한 수용과 인정은 동일한 경향을 보이며, 사용량이나 중요도, 사회경제적 지표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요컨대 휴대전화로 인한 개인과 사회, 그리고 공적공간적 변화와 의미를 제대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사회경제적 지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변수들을 고려해야 될 것이다. 본 분석에서 다루어진 사용량과 중요도 등을 포함하더라도 휴대전화 활용의 상당 부분이 설명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새로운 분석 개념의

도입이나 기존 개념에 대한 정의, 측정도구 개선 등을 통해 보다 발전된 모형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표 5-4〉 휴대전화와 공적공간의 의미 및 역할 변화와 설명변수 종합

| | | 사용량 | 중요도 | 사회경제적 지표 | | | |
|-------------|------------|--------------------|-----|----------|----|----|---|
| | | | | 성별 | 연령 | 직업 | |
| 공간의 의미변화 일반 | 공공성 우선 | 공공장소에서는 특정적 행위만 가능 | | ○ | | ○ | ○ |
| | | 공공의 이익이 우선 | | | | | |
| | 사적행위 가능 | 공익의 범위 내 사적행동 가능 | | | | | |
| | | 통신의 자유는 공익에 앞서 보장 | | ○ | ○ | | ○ |
| 공적공간의 사사화 | 공적공간 인식 | 한정적 폐쇄공간 | | | | | |
| | | 한정적 개방공간 | ○ | ○ | | | |
| | | 다양한 폐쇄공간 | | | | | |
| | | 다양한 개방공간 | ○ | ○ | | | |
| | 공간특성별 수신행태 | 한정적 폐쇄공간 | | ○ | | | |
| | | 한정적 개방공간 | | | | | |
| | | 다양한 폐쇄공간 | | | | | |
| | | 다양한 개방공간 | | | | | |
| | 공간특성별 규제방식 | 한정적 폐쇄공간 | | | | | ○ |
| | | 한정적 개방공간 | | | | | |
| | | 다양한 폐쇄공간 | | | ○ | | |
| | | 다양한 개방공간 | | ○ | | ○ | |
| 사회반응적 공간 | 미래 공적 공간 | | | | | | |
| | 정보서비스 | 공공시설정보서비스 | | | | | |
| | | 교통정보서비스 | | | | | |
| | | 위치정보서비스 | | | | | |
| | | 자동네비게이션 | | | | | |
| | 정보인프라 | 휴대전화 이용공간 | | | | | ○ |
| | | 무료접속시설 | | | | ○ | ○ |
| | | 인터넷정류장 | | | | | ○ |
| 대중교통수단 | | | | | ○ | | |

제2 절 정책적 시사점

1.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의 일상화에 관한 측정·평가 지표의 개발

휴대전화는 단순한 커뮤니케이션 매개체가 아니라 이용자 삶의 양식을 변화시키는 기제가 되고 있으므로, 일상생활에서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측정과 고찰이 필요하다. 나아가서 이러한 자료를 활용하여 사회생활부문의 정보화가 어떻게 발전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과 정책제언도 뒤따라야 한다.

본 연구는 휴대전화로 인한 변화들을 고찰하기 위하여, 개인공간, 사회공간, 공적공간으로 구분하여 변화의 요인과 의미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구분과 논의는 합의의 과정을 통하여 일반화되지는 않았지만, 향후 학계 및 조사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객관성을 지닐 수 있는 개념과 지표를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현재 정보화추진의 보완적 도구로서 고려되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의 수용과 활용에 대한 지표와 데이터는 향후 정보화정책의 방향을 점검하고 수정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2. 한국형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정책

초고속인터넷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정보화정책은 국제적으로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제 정보화정책이 이동성을 기반으로 한 유비쿼터스, 즉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정책으로 넘어가면서 한국은 제2의 도약을 꿈꾸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휴대전화의 사용행태와 인식이 삶의 양식 전체에 얼마나, 어떻게 영향을 미치며, 다시금 휴대전화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었다.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정책에 의해 한국사회 전반의 구조와 생활행태가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기술은 이동성, 휴대성 등으로 인하여 공간기술화(space information technology)되어가고 있으며, 기술과 공간, 인간의 삶은 상호작용적인 순환연결고리를 형성하며 진화해 나가고 있다. 공간환경에 중점을 둔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정책은 사회 전체의 변화를 이끌어갈 중요 포인트가 될 것이다.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의 활용 및 기대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자료를 참고로 하여 한국적 상황 및 사회에 적합한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정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3. 미래 모바일 커뮤니케이션과 서비스의 질 제고

미래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요구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인프라의 제공보다는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기대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현재 교통정보서비스는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지만, 대중교통안내정보서비스 등 기타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용요금 대비 부족한 서비스내용의 제공으로 그 이용도가 그리 높지 않고 있다.

향후 DMB 서비스 등 다양한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제공됨에 따라 그에 따른 서비스의 질 또한 고려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까지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은 단순인프라로서 보급이 곧 서비스 이용으로 서비스 활용능력이나 서비스 내용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질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향후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 정책은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질 제고에도 많은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이 생활 깊숙이 침투해 들어오면서 정보격차가 우려되고 있으며, 훨씬 복잡하고 다양한 접근을 요구한다.

참 고 문 헌

- Anne Galloway, 2003, Resonances and Everyday Life: Ubiquitous Computing and the city
- Anthony M. Townsend, 2000, Life in the real-time city: mobile telephones and urban metabolism, *Journal of Urban Technology*,(7)2:85-104
- Anthony M. Townsend, 2001, The Science of Location: Why the Wireless Development Community Needs Geography, Urban Planning, and Architecture
- Anthony M. Townsend, 2001, Mobile Computing and Communications: New Interactions Between Information Architecture and Infrastructure Use
- Green, Nicola., Harper, Richard H., Murtagh, Gerald & Cooper, Geoff, 2001, Configuring the Mobile User: Sociological and Industry Views, Personal and Ubiquitous Computing, 5: 2, pp.146~156
- Hans Geser, 2004, Towards a Sociological Theory of the Mobile Phone, Release 3.0
- ITU, 2004, Social and Human Considerations for a More Mobile World, Background Paper
- Kakihara, Masao & Soensen, Carsten, 2002, Mobility: An Extended Perspective, Proceedings of the 35th Hawaii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ystem Sciences, January 7-10, Big Island, Hawaii
- Kopomaa, T., 2000, Speaking mobile: the city in your pocket, YKT's electronic publications, available at <http://www.hut.fi/Yksikot/YKT/julkaisu/mobile.htm>
- Kopomaa, T., 2002, Mobile phones, place-centered communication and neocommunity, *Interface*, pp.241~245
- Laurier, Eric., 2001, Why people say where they are during mobile phone calls,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2001, volume 19, p.12)

- Leysia Palen, Marilyn Salzman & Ed Youngs, 2000, *Going Wireless: Behavior & Practice of New Mobile Phone Users*, Philadelphia, PA
- Ling, Rich and Yttri, Birgitte., 1999, "Nobody sits at home and waits for the telephone to ring:" Micro and hyper-coordination through the use of the mobile telephone, Presented at Perpetual Contact Workshop, December, Rutgers University, New Brunswick, New Jersey, pp.6~9
- Mark Poster, 2004, *Digitally Local: Communications technologies and space*, prepared for Conference on "The Global and Local in Mobile Communication: Places, Images, People, Connections"
- Nicola Green, 2002, on the Move: Technology, Mobility, and the Mediation of Social Time and Space, *The Information Society*, 18:281~292
- Nokia, 2002, Are you ready for multimedia messaging service: an evolutionary approach to implementing MMS. Nokia [on-line]. Available: www.nokia.com
- Palen, Leysia, Salzman, Marilyn & Youngs, Ed, 2001, *Discovery and Integration of Mobile Communications in Everyday Life, Personal and Ubiquitous Computing*, 5: 2, pp.109~122
- Plant, Sadie., 2001, on the mobile: the effects of mobile telephones on social and individual life, Research Report submitted to Motorola.
- Rich Ling and Leslie Haddon, 2001, *Mobile telephony, mobility and the coordination of everyday life*, presented at "Machines that become us" conference at Rutgers University
- Rich Ling, 2002, *The social juxtaposition of mobile telephone conversations and public spaces*
- Rob Frieden, 1997, Widespread deployment of wireless telephony, Business, legal, regulatory and spectrum challenges, *Telecommunication Policy*, 21(5), 451~459
- Roos, J.P., 1993, *Sociology of cellular telephone: The nordic model(300 000 Yuppies?*

- Mobile phones in Finland), Telecommunications policy Vol 17, Nr 6, pp.446~458
- Sadie Plant, 2001, on the mobile: the effects of mobile telephones on social and individual life, Research Report submitted to Motorola.
- Sheller, Mimi, 2004, Mobile Publics: Beyond the Network Perspective,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22: 1: pp.39~52
- Timo Kopomaa, 2002, The reunited family of the mobile information society, Vodafone Group
- Wei, R. and L. Leung, 1999, Blurring public and private behaviors in public space: policy challenges in the use and improper use of the cell phone, Telematics and Informatics, 16:11~26
- William Shaw, 2001, In Helsinki Virtual Village.
- 마셜 맥루언(김성기·이한우 역), 2002, 『미디어의 이해: 인간의 확장』, 민음사(원제: Marshall McLuhan, 1964, 『Understanding Media: The Extensions of Man』)
- 배진한, 2004, ‘공적공간에서의 휴대전화의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Mobile Communication and Social Change” 한국언론학회 국제 세미나 자료집
- 송중현, 2003, 휴대전화 이용동기와 행태가 사회적 관계 및 규범성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 박사학위논문
- 안영진, 2004, 모바일시대 공적공간분석을 위한 사회공간 이해, KISDI 내부회의자료
- 이인희, 2001, “대학생 집단의 휴대폰 이용동기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보』 15(3)
- 이재현, 2004, 『모바일 미디어와 모바일 사회』, 커뮤니케이션북스
- 이진경, 1997, 『근대적 시공간의 탄생』, 푸른숲
- 주정민, 2004, ‘모바일 미디어의 이용과 공적영역의 사적영역화’, “Mobile Communication and Social Change”, 한국언론학회 국제 세미나 자료집
- 최병두, 2002, 『근대적 공간의 한계』, 삼인.

- 프랜시스 케언로스, 1999, 『거리의 소멸, 디지털 혁명』, 세종서적 (원제: Frances Cairncross, 1997, 「The Death of Distance」,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 한국인터넷진흥원, 2004, 『2004년 무선인터넷이용실태조사』
- 한국전산원, 2004, 『국가정보화백서 2004』

[부록]

모바일 커뮤니케이션과 도시공간의 변화 설문조사지



모바일 커뮤니케이션과 도시공간의 변화 설문조사

ID

이 조사에 조사된 모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제13조 및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무총리실 산하 정책연구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는 정보기술의 진전으로 형성된 정보사회 이슈를 조사·분석하며, 향후에 형성될 미래 디지털 사회를 전망하는 여러 가지 연구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kisdi.re.kr/>)

본 설문 조사는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사회구조의 변화, 특히 공적공간에 대한 활용 및 인식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기획된 것입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적으로 처리되며, 개인의 비밀은 절대적으로 보장됩니다. 이 조사 결과는 인터넷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립에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04년 11월

연구책임자: 황주성 연구위원, 유지연 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디지털미래연구실)

SQ1. 거주 지역

- | | | | | |
|---------|---------|----------|----------|---------|
| 1. 종로구 | 2. 중구 | 3. 용산구 | 4. 성동구 | 5. 광진구 |
| 6. 동대문구 | 7. 중랑구 | 8. 성북구 | 9. 강북구 | 10. 도봉구 |
| 11. 노원구 | 12. 은평구 | 13. 서대문구 | 14. 마포구 | 15. 양천구 |
| 16. 강서구 | 17. 구로구 | 18. 금천구 | 19. 영등포구 | 20. 동작구 |
| 21. 관악구 | 22. 서초구 | 23. 강남구 | 24. 송파구 | 25. 강동구 |

SQ2. 귀하의 성별은? ()

1. 남자 2. 여자

SQ3. 실례지만 귀하의 연세는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만 ()세

| | | |
|------|------|-------|
| 응답자 | 성명: | 전화번호: |
| | 주소: | |
| 면접상황 | 면접원: | 감독원: |
| | 검증원: | 검증결과: |

1. 휴대전화의 전반적 이용

1-1. 귀하는 휴대전화를 언제부터 사용하기 시작하셨습니다가?

_____ 년도에 처음 사용하기 시작함

1-2. 귀하는 하루 평균 휴대전화를 얼마나 사용하십니까? 귀하의 휴대전화 통화 목록을 확인하셔서 정확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부재중 통화나 통화시도는 제외해 주십시오.

| | 음성통화 | 문자 메시지 |
|------|------|--------|
| 발신건수 | 건 | 건 |
| 수신건수 | 건 | 건 |

1-3. 귀하가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이유로 다음 항목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해당하는 점수에 표시해 주십시오.

| | 전혀 중요치 않음 | 중요하지 않은 편임 | 중간 | 중요한 편임 | 매우 중요함 |
|---------------------------------|-----------------|------------------|----|-----------|-----------|
| ① 직장업무/학업 등 일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서 | ① | ② | ③ | ④ | ⑤ |
| ② 친구/애인과의 대화 등 사회적 관계 유지를 위해서 | ① | ② | ③ | ④ | ⑤ |
| ③ 가족통화, 자녀관리, 부모안부 등 가정생활을 위하여 | ① | ② | ③ | ④ | ⑤ |
| ④ 뉴스, 경제, 교통, 날씨정보 등 정보검색용으로 | ① | ② | ③ | ④ | ⑤ |
| ⑤ 폰뱅킹, 전자결제, 예약, 예매 등 온라인 거래용으로 | ① | ② | ③ | ④ | ⑤ |
| ⑥ 게임, 영화, 사진 찍기 등 오락용으로 | ① | ② | ③ | ④ | ⑤ |

1-4. 귀하가 평일 하루 평균 통근/통학, 외부업무, 회식, 친구만남 등을 목적으로 외부에서 보내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은 대략 얼마나 됩니까?

※ '외부'라 함은 가정과 학교, 회사 이외의 모든 공간을 의미합니다.

| | | | |
|--------------------------|---|----|---|
| ① 통근/통학 | 약 | 시간 | 분 |
| ② 외부업무(외근, 방문, 회의, 학원 등) | 약 | 시간 | 분 |
| ③ 회식 (업무/학교) | 약 | 시간 | 분 |
| ④ 친구만남 (커피, 식사, 놀이 등 포함) | 약 | 시간 | 분 |
| ⑤ 백화점, 은행, 서점 등 쇼핑 | 약 | 시간 | 분 |
| ⑥ 기타() | 약 | 시간 | 분 |
| 외부에서 보내는 시간 총 합 | 약 | 시간 | 분 |

2. 공공장소에 대한 인식

2-1. 공공장소에 대한 귀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 | 전혀 동의하지 않음 | 전적으로 동의함 |
|---|------------------|-------------|
| ① 해당 공공장소에 특정 지워진 행위만 해야 한다. (ex, 도서관에서는 책읽기만) | ①--②--③--④--⑤ | |
| ② 공공의 이익(ex. 방해받지 않을 권리 등)이 우선한다. | ①--②--③--④--⑤ | |
| ③ 공공의 이익을 크게 방해하지 않는 한 사적행동이 가능하다. | ①--②--③--④--⑤ | |
| ④ 통신의 자유는 공익보다 앞서 보장되어야 한다. | ①--②--③--④--⑤ | |

2-2. 공공장소란 일반대중이 일정한 사회적 규범과 법규를 따르면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건물 내부 및 외부의 공간을 말합니다. 귀하는 다음의 장소들이 공공장소의 성격을 얼마나 지녔다고 생각하십니까?

| | 매우 사적 공간 | 다소 사적 | 중간 | 다소 공적 | 매우 공적 공간 |
|-------|----------------|----------|----|----------|----------------|
| ① 집 | ①--②--③--④--⑤ | | | | |
| ② 사무실 | ①--②--③--④--⑤ | | | | |

| | 매우 사적 공간 | 다소 사적 | 중간 | 다소 공적 | 매우 공적 공간 |
|-----------------------|----------------|----------|------|----------|----------------|
| ③ 강의실/회의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④ 도서관 | ①--- | ②--- | ③--- | ④--- | ⑤ |
| ⑤ 극장/공연장 | ①--- | ②--- | ③--- | ④--- | ⑤ |
| ⑥ 은행/병원/시청 대기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⑦ 찜질방/PC방/노래방 | ①--- | ②--- | ③--- | ④--- | ⑤ |
| ⑧ 커피숍/일반식당 | ①--- | ②--- | ③--- | ④--- | ⑤ |
| ⑨ 지하철/버스 내 | ①--- | ②--- | ③--- | ④--- | ⑤ |
| ⑩ 미술관/박물관 | ①--- | ②--- | ③--- | ④--- | ⑤ |
| ⑪ 전시장/대중집회장 | ①--- | ②--- | ③--- | ④--- | ⑤ |
| ⑫ 경기장(관람용) | ①--- | ②--- | ③--- | ④--- | ⑤ |
| ⑬ 쇼핑센터(백화점/할인마트/시장 등) | ①--- | ②--- | ③--- | ④--- | ⑤ |
| ⑭ 대합실/터미널/건물로비 | ①--- | ②--- | ③--- | ④--- | ⑤ |
| ⑮ 도로/공원/광장 | ①--- | ②--- | ③--- | ④--- | ⑤ |

3. 휴대전화 이용과 개인의 경험

3-1. 귀하는 휴대전화를 사용한 이후 그 전과 비교하여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은 변화가 나타났다는데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 | 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 |
|--|-----------------|-----------|
| ① 위치나 장소의 구속에서 자유로워졌다 | ①--②--③--④--⑤ | |
| ② 새로운 활동공간이 형성되었다 (ex; 지하철: 업무연락공간) | ①--②--③--④--⑤ | |
| ③ 기존에 특정 활동만 하던 공간을 다른 활동도 가능하게 한다 (ex; 커피숍: 커피 ⇒ 커피+업무연락+뉴스). | ①--②--③--④--⑤ | |
| ④ 공공장소에서 보내는 시간을 더 의미 있게 활용하게 되었다. | ①--②--③--④--⑤ | |
| ⑤ 일정과 이동경로 등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게 되었다. | ①--②--③--④--⑤ | |

| | 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 |
|------------------------------------|-----------------|-----------|
| ⑥ 언제 어디서건 항상 친구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든다. | ①--②--③--④--⑤ | |
| ⑦ 친구 등과 물리적인 만남의 횟수가 더 많아진 느낌이다. | ①--②--③--④--⑤ | |
| ⑧ 틈새시간(짜투리)을 즉흥적인 만남으로 연결시킨다. | ①--②--③--④--⑤ | |

3-2. 귀하는 공공장소에서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 | 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 |
|------------------------------------|-----------------|-----------|
| ① 주변 상황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 ①--②--③--④--⑤ | |
| ② 통화나 문자메시지 상대에 더 열중한다. | ①--②--③--④--⑤ | |
| ③ 현재 같이 있는 사람의 존재를 잠시 잊는다. | ①--②--③--④--⑤ | |
| ④ 지하철이나 버스 등에서 내릴 장소를 지나친다. | ①--②--③--④--⑤ | |
| ⑤ 공원도 휴대폰만 있으면 사무실이 될 수 있다. | ①--②--③--④--⑤ | |
| ⑥ 사무실도 연인과 통화할 때는 순간 데이트장소가 될 수 있다 | ①--②--③--④--⑤ | |

3-3. 귀하에게는 휴대전화로 인한 ‘즉흥적’ 인 만남이 얼마나 자주 발생합니까?
일주일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일주일 평균 (사적_____회)/(공적_____회)

- ※ ‘즉흥적’인 만남이란 일명, ‘번개’라고도 하며, 미리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만나는 것이 아니라 휴대전화를 통해 특정한 공간과 시간의 틈새에 만남이 성사되는 경우를 말함. 예를 들면 용무가 있어 광화문에 들렀다가 30여분 정도 여유시간이 생겨 종로에 있는 친구에게 휴대전화로 통화하여 바로 만나는 경우
- ※ ‘사적’인 만남은 친구나 애인, 가족 등을 지극히 개인적인 일로 직접 얼굴을 보게 되는 상황임
- ※ ‘공적’인 만남은 학교의 교수님이나 교직원, 직장의 상사나 거래처 사람, 판매원 등을 본인의 직업과 관련된 활동이나 일의 처리를 위하여 직접 얼굴을 보게 되는 상황임

3-4. 귀하의 ‘즉흥적인 만남’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장소는 주로 어디입니까?

가장 자주 만남이 이루어지는 1차 장소를 [보기]에서 선택하여 주십시오.

(사적____)/ (공적____)

| | | | |
|--------------|-----------------------|------------------|-------------|
| [보 기] | | | |
| ① 집 | ② 사무실 | ③ 강의실/회의실 | ④ 도서관 |
| ⑤ 극장/공연장 | ⑥ 은행/병원/시청 대기실 | ⑦ 찜질방/PC방/노래방 | |
| ⑧ 커피숍/일반식당 | ⑨ 지하철/버스 내 | ⑩ 미술관/박물관 | ⑪ 전시장/대중집회장 |
| ⑫ 경기장(관람용) | ⑬ 쇼핑센터(백화점/할인마트/시장 등) | ⑭ 대합실, 터미널, 건물로비 | |
| ⑮ 도로/공원/광장 | ⑯ 기타 _____ | | |

4. 휴대전화와 만남

4-1. 귀하는 평소 사적으로나 공적으로 사람들과 각각 몇 번 정도의 만남을 갖습니까? 일주일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일주일 평균 (사적____회)/ (공적____회)

※ ‘사적’인 만남은 친구나 애인, 가족 등을 지극히 개인적인 일로 직접 얼굴을 보게 되는 상황임

※ ‘공적’인 만남은 학교의 교수님이나 교직원, 직장의 상사나 거래처 사람, 판매원 등을 본인의 직업과 관련된 활동이나 일의 처리를 위하여 직접 얼굴을 보게 되는 상황임

4-2. 귀하는 사적인 만남을 계획할 때, 다음 중 어떠한 방식을 택합니까? 여러 방식을 모두 쓰는 경우 비율을 적어 주세요.

| | |
|---|--------|
| ① 정확한 시간과 장소를 사전에 정하여 만남 | ()% |
| ② 시간은 명확히 하되 장소는 대략적으로(예를 들면, 강남 사거리 주변) 정한 뒤,도중에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장소를 확정하여 만남 | ()% |
| ③ 장소는 명확히 하되 시간은 유동적으로(오후 3~4시 경) 정한 뒤, 도중에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시간을 확정하여 만남 | ()% |
| ④ 시간과 장소를 모두 유동적으로 정한 뒤(예를 들면, 3~4시경, 강남 사거리 주변), 도중에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최종적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만남 | ()% |
| | 100.0% |

4-3. 귀하는 공적인 만남을 계획할 때, 다음 중 어떠한 방식을 택합니까? 여러 방식을 모두 쓰는 경우 비율을 적어 주세요.

| | |
|---|---------|
| ① 정확한 시간과 장소를 사전에 정하여 만남 | ()% |
| ② 시간은 명확히 하되 장소는 대략적으로(예를 들면, 강남 사거리 주변) 정한 뒤, 도중에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장소를 확정하여 만남 | ()% |
| ③ 장소는 명확히 하되 시간은 유동적으로(오후 3~4시 경) 정한 뒤, 도중에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시간을 확정하여 만남 | ()% |
| ④ 시간과 장소를 모두 유동적으로 정한 뒤(예를 들면, 3~4시경, 강남 사거리 주변), 도중에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최종적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만남 | ()% |
| | 100.0 % |

4-4. 휴대전화가 귀하의 사회관계 혹은 교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① 만나는 사람의 수는 늘어났으며, 대체적으로 사람들과 더 친해졌다.
- ② 만나는 사람의 수는 늘어났으며, 일부 사람들과는 더 친해졌으나 다른 일부 사람들과는 조금 친밀감이 줄어들었다.
- ③ 만나는 사람의 수는 늘어났으며, 대체적으로 사람들과 조금 친밀감이 줄어들었다.
- ④ 만나는 사람의 수는 줄어들었으며, 대체적으로 사람들과 더 친해졌다.
- ⑤ 만나는 사람의 수는 줄어들었으며, 일부 사람들과는 더 친해졌으나 다른 일부 사람들과는 조금 친밀감이 줄어들었다.
- ⑥ 만나는 사람의 수는 줄어들었으며, 대체적으로 사람들과 조금 친밀감이 줄어들었다.

4-5. 귀하는 평균적으로 하루에 음성통화나 문자메시지를 1회 이상 교환하는 상대가 몇 명이나 됩니까?

음성통화: ()명, 문자메시지: ()명

4-6. 이들 중 귀하가 친근감을 느끼면서 항상 옆에 있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까?

※ 친근감을 느끼는 사람은 다음 각 항목 중 적어도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 ① 스포츠, 취미 등 여가 활동을 함께 한다.
- ② 직장, 학교생활의 어려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한다.
- ③ 가정에서의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한다.
- ④ 급할 때, 돈을 빌리거나 빌려준다.

① 아니요 ☞ 5-1로 가시오.

② 예 ☞ 있다면 몇 명이며, 친근감을 느끼는 정도에 따라 아래의 내용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

| | 관계 | 하루 평균 음성 통화 건수 | 하루 평균 문자 메시지 건수 |
|-----------------------|----|-------------------|--------------------|
| 첫 번째로 항상 옆에 있는 듯한 사람 | | | |
| 두 번째로 항상 옆에 있는 듯한 사람 | | | |
| 세 번째로 항상 옆에 있는 듯한 사람 | | | |
| 네 번째로 항상 옆에 있는 듯한 사람 | | | |
| 다섯 번째로 항상 옆에 있는 듯한 사람 | | | |

[관계 예시]

- ① 애인
- ② 부부
- ③ 가족
- ④ 직장 동료나 학교교우
- ⑤ 과거 동창생(초등)
- ⑥ 과거 동창생(중등)
- ⑦ 과거 동창생(고등)
- ⑧ 과거 동창생(대학)
- ⑨ 기타(군대, 과거 직장동료...)
- ⑩ 업무 및 용무로 알게 된 사람
- ⑪ 그 외(내용: _____)

5. 공공장소에서의 휴대전화 이용

5-1. 귀하는 다음의 장소들에서 휴대전화의 이용을 대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 자유 롭게 통화 | 주위를 의식하면서 조심스럽게 계속 통화 | 주요 통화인지 확인 후 최소통화 | 장소를 이동하여 통화 | 연결후 간단통화 (회의중 입니다 하면서 끊음) | 확인만 하며 통화는 하지 않음 | 꺼둠 |
|---------------------------|---------------------------------------|--------------------------------|----------------------------|-------------------|--|---------------------------|----|
| ① 집 | ①-----②-----③-----④-----⑤-----⑥-----⑦ | | | | | | |
| ② 사무실 | ①-----②-----③-----④-----⑤-----⑥-----⑦ | | | | | | |
| ③ 강의실/회의실 | ①-----②-----③-----④-----⑤-----⑥-----⑦ | | | | | | |
| ④ 도서관 | ①-----②-----③-----④-----⑤-----⑥-----⑦ | | | | | | |
| ⑤ 극장/공연장 | ①-----②-----③-----④-----⑤-----⑥-----⑦ | | | | | | |
| ⑥ 은행/병원/시청 대기실 | ①-----②-----③-----④-----⑤-----⑥-----⑦ | | | | | | |
| ⑦ 짐질방/PC방/노래방 | ①-----②-----③-----④-----⑤-----⑥-----⑦ | | | | | | |
| ⑧ 커피숍/일반식당 | ①-----②-----③-----④-----⑤-----⑥-----⑦ | | | | | | |
| ⑨ 지하철/버스 내 | ①-----②-----③-----④-----⑤-----⑥-----⑦ | | | | | | |
| ⑩ 미술관/박물관 | ①-----②-----③-----④-----⑤-----⑥-----⑦ | | | | | | |
| ⑪ 전시장/대중집회장 | ①-----②-----③-----④-----⑤-----⑥-----⑦ | | | | | | |
| ⑫ 경기장(관람용) | ①-----②-----③-----④-----⑤-----⑥-----⑦ | | | | | | |
| ⑬ 쇼핑센터 (백화점/할인마트/시장 등) | ①-----②-----③-----④-----⑤-----⑥-----⑦ | | | | | | |
| ⑭ 대합실/터미널/건물로비 | ①-----②-----③-----④-----⑤-----⑥-----⑦ | | | | | | |
| ⑮ 도로/공원/광장 | ①-----②-----③-----④-----⑤-----⑥-----⑦ | | | | | | |

5-2. 귀하는 공공장소에서의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전혀 동의하지 않음 | 전적으로 동의함 |
|--|---------------------------|-------------|
| ① 공공장소에서는 최대한 통화의 자유를 보장하여야 한다. | ①-----②-----③-----④-----⑤ | |
| ② 개개인의 판단과 행동에 맡겨야 한다. | ①-----②-----③-----④-----⑤ | |
| ③ 시민단체와 이용자가 나름대로의 규율을 만들어 자율적으로 규제하여야 한다. | ①-----②-----③-----④-----⑤ | |
| ④ 장소 및 상황에 따라 법률로서 금지하여야 한다 | ①-----②-----③-----④-----⑤ | |

5-3. 귀하는 다음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휴대전화의 음성통화 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기 질문의 지문 중에서 골라 주십시오.

| | 통화 자유 | 개인 판단 | 자율 규제 | 법률 규제 |
|--------------|---------------------|-------|-------|-------|
| ① 강의실/회의실 | ①-----②-----③-----④ | | | |
| ② 전시장/대중 집회장 | ①-----②-----③-----④ | | | |
| ③ 지하철/버스 내 | ①-----②-----③-----④ | | | |
| ④ 도로, 공원, 광장 | ①-----②-----③-----④ | | | |

- ※ 통화 자유: 최대한 통화의 자유를 보장하여야 한다.
- 개인 판단: 개개인의 판단과 행동에 맡겨야 한다.
- 자율 규제: 시민단체와 이용자가 나름대로의 규율을 만들어 자율적으로 규제하여야 한다.
- 법률 규제: 장소 및 상황에 따라 법률로서 금지하여야 한다.

5-4. 귀하는 다음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휴대전화의 문자메세지 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기 질문의 지문 중에서 골라 주십시오.

| | 통화 자유 | 개인 판단 | 자율 규제 | 법률 규제 |
|--------------|---------------------|-------|-------|-------|
| ① 강의실/회의실 | ①-----②-----③-----④ | | | |
| ② 전시장/대중 집회장 | ①-----②-----③-----④ | | | |
| ③ 지하철/버스 내 | ①-----②-----③-----④ | | | |
| ④ 도로, 공원, 광장 | ①-----②-----③-----④ | | | |

5-5. 귀하는 차세대 이동전화, 휴대인터넷, 위성 DMB, 텔레메틱스, 위치기반 서비스, 유비쿼터스 등 모바일 통신서비스의 증대에 따라 도로, 공원, 지하철역사, 쇼핑센터 등 도시 공공장소의 미래가 어떻게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전혀 동의하지 않음 | 전적으로 동의함 |
|--|------------------|-------------|
| ① 멀티미디어 및 실시간 인터넷 접속 등으로 공공장소에서의 만남이나 작업 등의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다. | ①--②--③--④--⑤ | |
| ② 공공장소에서 보다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 ①--②--③--④--⑤ | |
| ③ 공공장소에서 사적인 일을 더 많이 할 것이다. | ①--②--③--④--⑤ | |
| ④ 공간적 특성에 따른 활동의 제약에서 해방될 것이다. | ①--②--③--④--⑤ | |
| ⑤ 실시간 교통정보 입수로 도로이용이 효율화될 것이다. | ①--②--③--④--⑤ | |
| ⑥ 위치기반서비스 등에 의한 다양한 지역정보의 제공으로 그 지역의 시설 이용이 보다 더 효율화될 것이다. | ①--②--③--④--⑤ | |
| ⑦ 순간적인 이벤트의 개최 등으로 공간의 활력이 증대될 것이다. | ①--②--③--④--⑤ | |
| ⑧ 다양한 정보로 공공문제에 대한 관심이 늘어날 것이다. | ①--②--③--④--⑤ | |

※ 차세대이동전화: 통신과 방송이 융합되는 정보통신환경에서 다양한 멀티미디어 서비스가 제공되는 휴대전화

휴대인터넷: 네스팟과 같은 무선랜에 이동성이 첨가되어 휴대전화처럼 이동 중에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해 주는 네트워크

위성 DMB: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으로서 고품질 영상과 CD 수준의 음악을 이동 중에 어디서나 감상할 수 있는 서비스

텔레메틱스: 자동차와 무선통신을 결합한 새로운 개념의 차량 무선 인터넷 서비스

위치기반서비스: 유무선 통신망을 통해 획득된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이용자에게 다양한 콘텐츠 및 온라인, 오프라인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유비쿼터스: 이용자가 네트워크나 컴퓨터를 의식하지 않고 자유롭게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정보통신 환경

5-6. 귀하는 휴대인터넷, 텔레메틱스, 유비쿼터스 등 이동 중에 이용할 수 통신 수단의 증대에 따라 향후 도시공간에 필요한 다음의 시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전혀 필요하지 않음 | 일부 필요 | 매우 필요함 | | |
|--|------------------|----------|-----------|------|---|
| ① 휴대전화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개별 공간 (ex: 휴대전화 부스) | ①--- | ②--- | ③--- | ④--- | ⑤ |
| ② 공원, 광장, 터미널 등에서 휴대인터넷 무료 접속이 가능한 시설 | ①--- | ②--- | ③--- | ④--- | ⑤ |
| ③ 운전 중 잠깐 정차하여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정류장 | ①--- | ②--- | ③--- | ④--- | ⑤ |
| ④ 휴대인터넷 이용이 가능한 시설을 갖춘 버스 나 지하철 객차 | ①--- | ②--- | ③--- | ④--- | ⑤ |
| ⑤ 공공주차장 등의 위치와 공석현황을 알려줄 수 있는 정보시스템 | ①--- | ②--- | ③--- | ④--- | ⑤ |
| ⑥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정보를 맞춤형으로 통보 해 주는 정보서비스 | ①--- | ②--- | ③--- | ④--- | ⑤ |
| ⑦ 공공장소에서 원하는 사람을 찾을 수 있게 해 주는 서비스 | ①--- | ②--- | ③--- | ④--- | ⑤ |
| ⑧ 자동 유도운전이 가능한 네비게이션 도로시 설 및 차량 | ①--- | ②--- | ③--- | ④--- | ⑤ |

5-7. 귀하는 교통정보가 보다 정확하고 실시간으로 제공되게 될 경우 이것이 교통정체의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 ① 기존 도로의 사용을 최대한 효율화하여 교통정체 해소에 상당히 기여
- ② 기존 도로의 사용을 효율화하여 교통정체 해소에 일부 기여
- ③ 가능성은 높지만 사람들의 기회적 행동으로 성과는 제한적일 것
- ④ 정보의 정확성과 시차 문제로 인해 교통정보 해소 기여도가 낮을 것
- ⑤ 정보의 정확성과 시차문제, 운전자의 기회적 행동으로 성과는 극히 제한적일 것

